

연구서 2015-01

뉴스 리터러시 교육 I : 커리큘럼 및 지원 체계

양정애 · 최 숙 · 김경보



뉴스 리터러시 교육 I : 커리큘럼 및 지원 체계
연구서 2015-01

책임연구 양정애(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최 숙(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김경보(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BK연구교수)
보조연구 박소영(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이지혜(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발행인 김병호
편집인 우득정
발행일 2015년 10월 31일 초판 제1쇄 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전화 (02) 2001-7742 팩스 (02) 2001-7740
www.kpf.or.kr

편집 커뮤니케이션북스(주)
121-869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71-17 청원빌딩 3층
전화 (02) 7474-001 팩스 (02) 736-5047
www.commbooks.com

인쇄 (사)한국장애인e-Work 협회
150-890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44-21 중앙빌딩 411호
전화 (02) 783-0800 팩스 (02) 783-075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ISBN 978-89-5711-384-4
책값은 뒤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거듭나는 대한민국

차례

01 서론

1.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 1
2. 교육 대상 범위 … 5
3. 연구서 구성 … 7

02 뉴스 리터러시 개념 검토

1. 뉴스 리터러시와 인접 개념들 … 9
2. 뉴스 리터러시가 포괄하는 핵심 개념 … 21
3.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소개 … 31
4. 소결 … 74

03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구성

1.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배경 … 79
2. 교육과정 개발 과정 … 85
3. 중·고등학생용 교육과정 시안 … 88
4. 대학 교양 강좌용 강의 계획 시안 … 143
5. 관련 개념·용어 설명 및 참고 자료 소개 … 150

04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방안

1. 뉴스 리터러시 교육 현황 및 지원 체계의 문제점 … 184
2.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207
3.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 217
4. 요약 및 소결 … 228

참고문헌 … 229

표 차례

- 〈표 2-1〉 미디어 리터러시와 뉴스 리터러시의 차이 ... 18
- 〈표 2-2〉 스토니브룩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내용 ... 35
- 〈표 2-3〉 스토니브룩의 고등학생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내용 ... 36
- 〈표 2-4〉 포인터의 뉴스 대학 프로그램 ... 40
- 〈표 2-5〉 '뉴스 및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내용 ... 43
- 〈표 2-6〉 '뉴스 리터러시 이해' 프로그램의 내용 ... 44
- 〈표 3-1〉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 80
- 〈표 3-2〉 2009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뉴스 리터러시 관련 교육 내용 ... 82
- 〈표 3-3〉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자문단 구성 ... 86
- 〈표 3-4〉 대단원별 핵심 내용 요소와 길러야 할 능력 ... 91
- 〈표 3-5〉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시안 ... 94
- 〈표 3-6〉 교재 집필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명, 단원명 예시 ... 142
- 〈표 3-7〉 대학 교양 강좌용 강의 계획 시안 ... 144
- 〈표 3-8〉 대학 교양 강좌용 실습, 토론, 과제 활동 예시 ... 148
- 〈표 4-1〉 중학교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 ... 187
- 〈표 4-2〉 중학교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 ... 187
- 〈표 4-3〉 고등학교 사회·문화 개정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 ... 187
- 〈표 4-4〉 사회과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중·고등 공통) ... 188
- 〈표 4-5〉 미디어센터의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요 ... 191
- 〈표 4-6〉 공공 기관 및 시·구 청소년 관련 기관의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요 ... 192
- 〈표 4-7〉 시청자미디어재단-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공동 미디어교육사 양성
과정 ... 203
- 〈표 4-8〉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과정-신규 강사 커리큘럼 ... 204

그림 차례

- 〈그림 2-1〉 미하일리디스(Mihailidis)가 제시한 뉴스 리터러시와 인접 개념들 ... 19
- 〈그림 2-2〉 뉴스 리터러시에 응용되는 포터의 인지적 미디어 리터러시 모델 ... 33
- 〈그림 2-3〉 뉴스 리터러시 경진대회(The Saltzman Seven) ... 39
- 〈그림 2-4〉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 및 핵심 구성 요소들 ... 78
- 〈그림 4-1〉 창의적 체험 활동의 총괄목표 및 활동 영역 ... 189
- 〈그림 4-2〉 자유학기 자율 과정의 활동 영역 ... 196

01

서론

1.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되었고, 뉴스를 볼 수 있는 공간 또한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원)를 선택 및 활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정보라 불리는 것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 검증된 품질 좋은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를 분별해 내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시민들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좋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과거 미디어 환경에서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더불어 뉴스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하는 비뉴스 콘텐츠 생산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뉴스’가 수용자의 한정된 시간과 비용을 두고 ‘비뉴스 콘텐츠’와도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언론사들은 광고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언론 전반이 처한 위기는 개별

언론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뉴스 생태계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

‘고품질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뉴스의 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소비 영역에서도 고품질 뉴스를 소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뉴스 리터러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만이 품질 높은 뉴스에 대한 평가 및 분별, 그에 따른 소비 증가가 가능하다고 제언하고 있다(예: Craft, Maksl, & Ashley, 2013; Hobbs, 2010b; Klibanoff, 2012; Mihailidis, 2011). 클레이 존슨(Clay Johnson)은 그의 저서 『정보식단(The Information Diet)』(2012)에서 정보 과부하 문제를 논하며, 미국의 정크푸드와 비만 문제를 정보 영역에 빗대어 설명한 바 있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쓰레기(junk)” 정보가 과도하게 생산·유통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들의 삶의 질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건강하고 품질 높은 정보 식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육을 통해 정보 및 뉴스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뉴스와 비뉴스(특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경쟁 및 그로 인한 뉴스 소비 감소는 여러 학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다. 커런(Curran, 2011/2014)은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데 있어 두 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미디어 시스템 안에서 오락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락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는 콘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함의가 있다고 그는 보았다. 두 번째 변화는 선거 민주주의의 퇴조와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다. 기업의 자본이 전 지구적 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개별 국가가 자본을 규제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이는 곧 국가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여전히 한 국가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

다. 이로 인해 언론이 국가를 초월한 경제적 기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지구화 시대에 시민의 권능이 발휘되는 세계 시민사회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선스타인(Sunstein, 2007)은 다매체·다채널화,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된 정보 노출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테크놀로지 발달에 힘입어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무수히 많아졌고, 또 선택의 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만 선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대단히 용이해진 환경이 조성되었다. 기술 발달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많은 ‘틈새들(niches)’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검열의 부재라는 명시적 조건 외에, 다양한 의견 혹은 자신과 다른 의견(이견)에 대한 충분한 노출, 그리고 시민들의 ‘공통된 경험’이 필수다. 과거에는 신문, 방송, 잡지와 같은 매스미디어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전달자(general interest intermediaries) 기능을 했으며, 이들은 선택성과 사용자 통제의 수준이 뉴미디어에 비해 낮아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관심사에 맞지 않는 정보에도 일부나마 노출할 수 있게 해 주는 구조를 띠고 있다. 20세기는 동일한 정보와 오락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매스미디어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뉴미디어 시대는 개인 맞춤형 정보 노출을 특징으로 하고, 이러한 개인화된 정보 노출은 공동의 경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스타인은 주장하고 있다.

프라이어(Prior, 2007) 또한 선스타인과 유사한 입장에서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양과 다양성이 증가하면 보통 정보보다는 오락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비해 채널·미디어·플랫폼·콘텐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미디어 이용자들이 뉴스나 정보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또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특정한 범주에 집중된 선별적 콘텐츠 이용을 보이게 되고, 뉴스 콘텐츠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기존에 뉴스에 대한 관심이나 선호가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격차가 뚜렷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프라이어는 이러한 두 집단을 각각 뉴스중독자(news junkies)와 이탈자(switchers)로 구분해 명명했다.¹⁾

NIE(News/Newspaper In Education)²⁾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미디어 교육이 20년을 맞았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자유학기제의 선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신문, 내 꿈을 펼치다”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NIE가 공교육 과정 공식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뉴스(신문)를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은 미디어 내지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 뉴스 활용 교육은 주로 학업 능력 향상이라는 교육목적을 위해 이용돼 왔으며,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익히고, 공동체의 규범과 비전을 공유하며, 일상생활에서 뉴스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단계로 확장한 경우는 많지 않다.

한편, 뉴스 리터러시를 ‘뉴스’라는 특정 콘텐츠에 관심을 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부분집합으로만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뉴스’가 지니는 특

1) 이와 유사하게, 시아젝과 동료들(Ksiazek, Malthouse, & Webster, 2010)은 이러한 두 집단을 각각 뉴스추구자(news seekers)와 뉴스회피자(news avoiders)로 구분했다.

2) NIE는 원래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 신문 활용 교육을 의미했으나, 그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가 뉴스 활용 교육(News In Education)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신문을 넘어서서 뉴스 전반을 활용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서에서는 맥락상 신문 활용 교육을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NIE를 뉴스 활용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고자 한다.

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뉴스가 비록 언론사라는 사적 기구를 통해 생산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공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일반화된 통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보아야 한다. 사실 경제와 같이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영역과 달리, 정치의 개인의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공적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치는 언론을 통해 매개되고, 언론은 정치라는 보도거리를 얻는 공생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상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① 뉴스와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따른 정보의 과잉생산, ② 저널리즘 품질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인 뉴스 소비자 교육, ③ 비뉴스 콘텐츠 소비 증가와 그로 인한 뉴스 소비 하락, ④ 기존 뉴스 활용 교육의 한계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뉴스에 대한 분별력을 향상시키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 및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그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뉴스 소비를 통해 공적 이슈에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2. 교육 대상 범위

학교교육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생애주기형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애주기’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교육 대상의 연령대를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단계별로 구분한 후 전 생애에 걸쳐 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교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생애주기형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형 모형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고사하고 미디어교육 자체의 기반이 취약한 국내의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기틀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청년, 중·장년,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대를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어느 연령대도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각 연령대에 맞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 및 교재를 모두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뉴스 리터러시 교육 기반 마련의 기폭제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은 공교육을 받고 있는 10대 청소년층을 시작점으로 삼고 이후 다른 연령대로 확대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클리바노프(Klibanoff, 2012)에 따르면, 공교육의 교육과정(꼭 정규 교과목이 아니더라도)에 뉴스 리터러시를 포함시키는 것은 곧 ‘대중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 대상이 저절로 전체 인구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중등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뉴스 교양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간다면, 굳이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다.

미디어교육 일반이 아닌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현재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고, 미국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두 기관 또한 청소년층을 주요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The News Literacy Project)’는 중·고등학생, 스토니브룩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센터(The Center for News Literacy)’는 언론인과 대학생이 주요 교육 대상이다. 이 중 ‘뉴스 리터러시 센터’의 교육 형태는 ‘학생을 교육하는 모델(teaching-the-students model)’보다는 ‘교사를 교육하는 모델(teaching-the-teachers model)’에 가깝다. 해당 분야 교육의 역사가 짧고

저변이 취약한 경우,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방식보다는 교육과정 이수 후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편이 교육 대상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대상의 범위를 10대 청소년들(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³⁾로 한정하려 한다. 중·고생은 순수한 피교육자의 의미를 띠고 있는 데 비해, 대학생은 피교육자 겸 가까운 미래의 교육자에 해당한다. 노년층, 중·장년층, 주부와 같은 성인 대상 교육이나 유·아동 대상 교육은 발달과정상 특수성이나 수요자의 요구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검토 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유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탈북자, 일탈 청소년과 같은 특수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은 생애주기형 교육과는 구별된 별도의 목표와 과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들의 (재)사회화는 뉴스 자체에 대한 교양 교육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뉴스 활용 교육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는 별도의 교육과정 및 지원 방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연구서 구성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한 본 연구는 다년 연구로 기획되었고, 201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년차인 올해 연구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커리큘럼)을 중·고등학생용과 대학생용으로 구분해 개발하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3) 대학에서 뉴스 리터러시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를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대학생·대학원생이 아닌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두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본 연구서의 3장과 4장에 각각 해당하며, 이러한 커리큘럼 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제안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뉴스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결과를 2장에 배치하였다. 내년에 출간될 연구서 2권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와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 개론으로 구성될 것이다.

02

뉴스 리터러시 개념 검토

1. 뉴스 리터러시와 인접 개념들

1) 뉴스 리터러시란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news)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뉴스에 관련된 읽기, 쓰기 및 표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리터러시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인 영역을 가진 개념이기에, 해당 개념이 포함된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닐 수 있다. 리터러시와 결합되는 객체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 리터러시 등) 리터러시 핵심 요소의 내용이나 중요성이 달라지기에, 여러 ‘리터러시’들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영역 내에서도 해당 개념으로 설명 가능한 하위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방안을 제시하고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해, 해석, 창조, 소통, 활용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해 왔으나, 포함되는 요소들의 범위, 각 요소들의 연결 방법, 그리고 실천적인 해석의 방향은 학자마다 다른 것이 사실이다.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비해 비교적 생소한 분야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보다 늦게 태어난 신생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뉴스라는 콘텐츠가 21세기 들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정형화된 형태의 지식 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을 하였다. 리터러시 자체의 개념적 융통성과 뉴스 영역의 빠른 변화 속도는 뉴스 리터러시가 다루어야 하는 영역, 뉴스 리터러시의 정의, 목적 등을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와 관련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NIE(뉴스 활용 교육)와 비슷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특히 뉴스 관련 교육, 뉴스 활용 교육을 접해 보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는 둘 사이의 차이점이 한 눈에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뉴스 리터러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어떤 방식을 통해 독립적인 영역을 형성해 왔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및 교육 지원 체계를 소개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뉴스 리터러시와 유사한 기능을 해 온 인접 개념들을 검토한 후 그들 사이의 관계를 차례로 살펴보고, 이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뉴스 리터러시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기술하려 한다.

2)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NIE의 차이점

(1)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여러 형태의 미디어를 소비하고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지적 능력과 적극적 태도를 배양하는 데 관심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인 타이너(Tyner, 2014)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용해 기존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제안했으며, 이는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지 능력(문해)의 확장에 중점을 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리터러시’라는 단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정립하게 되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언어, 비언어, 영상, 음향, 시각적 신호 등 다양한 상징체계를 해독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미디어를 매개로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시작으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용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편 많은 학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 수용과 관련된 합리적 판단 능력 및 자기표현 능력의 확장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타이너(Tyner, 2014)와 포터(Potter, 2013)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이고 독립적이며 창조적인 정보의 이용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로버트매크믹재단(Robert McCormick Foundation)과 미디어리터러시교육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 즉 ‘메시지를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학자들은 비판적인 사고방식(critical think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체화할 것을 강조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디어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메시지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학습(Potter, 2010)이기 때문이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능력은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늘 질문을 제시하며, 다양한 아이디어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핵심 개념을 도출하며, 제시된 정보에서 잘못을 발견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등 수준 높은 사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Thoman & Jolls, 2004).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우프더하이드(Aufderheide, 1993)는 미디어

어 리터러시를 시민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이는 메시지 생산자의 측면을 최종적인 목표로 고려한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홉스(Hobbs, 2010a)는 이보다 더욱 넓은 시각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보 홍수, 미디어 포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삶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기술들의 집합이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생활의 기술이란 책임감 있는 선택, 다양한 메시지의 분석,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타인의 행동에 대한 숙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등을 포괄한다.

(2)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이 최초로 등장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운용하고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중심이 맞춰져 있었다. 지금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인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중심으로 기기와 인터랙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복잡한 인지, 운동성, 사회성, 감정 기능 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Bawden, 2001).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이미지와 언어, 상징들을 해독하고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기존에 존재하는 디지털 창작물에서 보다 새로운 것들을 재생산해 내는 능력, 선형이 아닌 비선형적인 글 읽기와 정보 탐색 능력도 우수하며,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잘 알고 있다(Buckingham, 2007). 또한 광의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접하는 다양한 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며, 이 부분은 뉴스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집합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광의의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시각 리

터러시(photo-visual), 재생산 리터러시(reproduction literacy),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shet-Alkalai, 2004).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3)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결성

학자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미디어 자체가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용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버킹엄(Buckingham, 2007)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용어 자체가 정보, 신뢰성, 편견 등에 대해 매우 좁은 범위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모든 형태의 매개된 표상이 가지는 사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본질을 포함하는 광의적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모두 ‘리터러시’ 자체를 단순 기능(skill)의 습득보다 고차원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나, 각 개념이 포괄하는 내용의 등위에는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보든(Bawden, 2001)은, 사서 리터러시(library literacy)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의 경우 같은 리터러시라 하더라도 보다 기술적 측면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이 두 개념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확장된 지식, 인지, 태도까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상대적으로 하위의 개념이 되고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가 이를 포괄하는 상

위의 개념이 될 가능성이 있다.

(4) 정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는 도서관학 · 문헌정보학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정보 리터러시는 흔히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저장된 정보를 꺼내 오고, 이를 이용하는 일련의 기능들(set of skills)로 구성되어 있다(Bawden, 2001).

최근의 정보 리터러시는 특정한 정보 자원이나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보의 이용과 관계되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Bruce, 2011). 한 예로 시라큐스대학 도서관에서는 모든 재학생들에게 정보 리터러시와 관련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 탐색 기술이 아닌, 탐색한 정보에 대한 선별적 이해와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정보 리터러시 영역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 분석, 이용 능력 전반과 관련된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사고 능력 및 비판적인 태도의 학습이라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최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융합하기 위한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Livingstone, Van Couvering, & Thumim, 2008).

(5) NIE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인 ‘NIE’는 한국에서 신문 활용 교육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보 해독 능력의 전반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NIE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피교육자가 뉴스,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반적인 인지 능력, 즉 읽기 ·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와 함께 신문을 접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는 것,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좀 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돕는 것, 나아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민주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Newton, 1985).

NIE 관련 학자들은 신문 지면에 실린 다양한 수준의 논리적인 기사 읽기를 통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여 문화 시민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차후 진로 적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박동숙·이경숙·정수영, 2010; 설규주·김명정·이봉민, 2011). 한편, 최근 들어 종이신문 이용이 저하되면서 신문 이용 동기 및 이용의 효과를 고양하려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NIE를 부각시키기도 한다(이화행·이정기, 2011).

신문 지면의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사회에 관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NIE 관련 사회적 담론 및 학술 문헌은 1980~1990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서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와 비교할 때 NIE는 독립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NIE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학습 능력과 관련해 여러 상승효과가 있음을 부각시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돼 왔다. 학교 현장에서 사회과, 국어과 교육의 한 방식으로 NIE를 활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거나(구정화, 2012), 학습 능력이 낮은 정신지체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검증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성일·윤혜진, 2009). 한편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NIE가 정체성 확립, 언어교육, 문화교육, 실생활 적응교육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사회 전반에 소외 계층을 위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김경희·엄한진·윤택일, 2009), 혹은 노인 교육프로그램의 일부(안정숙, 2005)로 NIE가 이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NIE가 독립 교과

목의 지위를 차지할 만큼의 독자적인 교육목표나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의 인식이기도 한데, 체계화된 형태의 교육과정 부재가 그 문제점의 핵심으로 꼽힌다. 체계적인 NIE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제도적·의식적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NIE가 뉴스 수용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이로써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뉴스 이용자 관련 영역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일 가능성이 있다. NIE는 기본적으로 신문 읽기를 통해 문자에 관련된 리터러시, 다시 말해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성에 관한 기초 역량 제고를 지향한다. 비록 NIE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 통합,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 증가 등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고 해도, 설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수준 높은 평가 능력과 빠른 판단 능력을 키워 주는 교육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신문, 좀 더 넓게는 뉴스에 실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기초적인 문자 해독 능력 및 사회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성 교육의 수준을 넘어선다. 지금 대다수 뉴스수용자에게 더욱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에 책임감 있고 분별력 있는 뉴스 수용자로서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포함한다(Potter, 2013). 그리고 그 영역은 NIE의 기본 영역을 전제로 한, 혹은 NIE의 영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뉴스 리터러시로서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다.

(6)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호 간에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념에 있어

공통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 여전히 의견 수렴이나 합의가 필요한 영역
이기는 하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중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비판적 정보 처리 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이 강조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디지털 리터러시-정보 리터러시 사이에 교차점이 발견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뉴스 리터러시는 앞서 제시된 세 가지 리터러시의
개념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학자들은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개념으로 출발한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Powers, 2010). 미디어 리터러시는 알려
진 대로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며, 이로
써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인지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다(Aufderheide & Firestone, 1993).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디
지탈 미디어가 확장시킨 표현 능력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일반인의 메시
지 생산 능력 또한 그 안에 포함시켰으며, 미학적인 감상 능력, 미디어를
이용한 자기표현과 분석 능력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
(Potter, 2010).

뉴스 리터러시가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출
발하였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능력들을 뉴
스 리터러시 역시 강조하고, 개개인의 이해·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뉴
스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에 대해 논한다. 중요한 사실은 뉴스 리터러
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완전히
포괄되는 부분집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
시와 뉴스 리터러시가 다루는 영역과 관심사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
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콘텐츠 영역과 그 콘텐츠 영역이 독자적으로 가지
는 사회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교할 때, 뉴스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미디어 전반
이 아닌 ‘뉴스’라는 특정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뉴스가 생성, 배포되는 과

〈표 2-1〉 미디어 리터러시와 뉴스 리터러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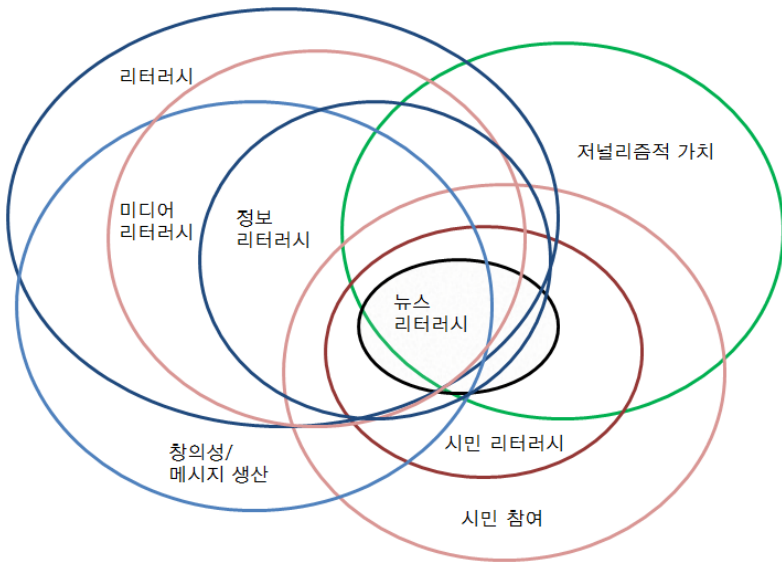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소비하고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processes)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음.	민주시민으로서 뉴스에 담겨 있는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에 관심을 둬. "무엇을 믿을 것이며, 그 결정은 어떻게 내리는가"에 대한 내용임.
미디어 리터러시는 매개된 메시지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생산하는 능력 및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상징을 해독하고 부호화하는 능력을 말함.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가 가지는 가치와 역할을 강조함.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 가르침.
뉴스의 소비자가 1차적 관심 대상임.	뉴스의 소비자나 생산자 둘 다에 관심을 둬.

출처: http://drc.centerfornewsliteracy.org/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mccormicknewsliteracy_share_0.pptx

정에 관련되는 영역들, 즉 저널리즘, 시민성(citizenship), 더불어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수용자의 역할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비해 뉴스 리터러시는 저널리즘, 시민성, 디지털 기술과 수용자라는 각각의 영역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위험성들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Mihailidis, 2012).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교했을 때, 뉴스 리터러시는 시민들이 뉴스 미디어에 담긴 진실, 정보,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기술을 훈련하는 과정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가 담당하고 있는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좋은 뉴스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뉴스 리터러시는 “정보 홍수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좋은 정보를 유통시키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고차원적인 질문을 뉴스 수용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식하도록 한다.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능력을 키워 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나

〈그림 2-1〉 미하일리디스(Mihailidis)가 제시한 뉴스 리터러시와 인접 개념들



출처: <http://engagementgamelab.org/blog/2014/09/seeking-coherence-reflections-on-the-national-news-literacy-summit/>

아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비판적 사고 방식의 함양이라는 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나이더(Schneider, 2008)나 플레밍(Fleming, 2014)과 같은 학자들은 뉴스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한다. 이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며, 뉴스 리터러시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뉴스라는 장르 특유의 속성들, 예를 들어 뉴스의 내러티브, 생산구조, 민주사회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스 리터러시는 위에서 제

시한 여러 가지 유사 개념, 혹은 인접 개념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그 핵심을 공유하지만, 그 어떤 개념과도 100% 일치하지는 않는 독자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뉴스 리터러시는 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정보의 질을 빠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 ②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의 중요성과 디지털 시대의 뉴스 소비·생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③ 뉴스 제작 과정, 뉴스 전파 과정, 뉴스 수용 과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뉴스에 들어 있는 사실과 의견이 과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편파성, 왜곡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합리적 사고능력, ④ 개인과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뉴스에 의존할 때 그 적합성을 스스로 평가하는 판단 능력, 나아가 ⑤ 저널리즘의 기본을 이해하고 수준 높은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를 가짐과 동시에 언론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태도,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⑥ 민주시민으로서 활발하게 정치·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과 자세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인 영역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 및 NIE 개념과 구분된다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돼 온 해외의 사례와 문헌을 검토할 것이다. 기존 문헌을 통해 여러 학자들과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 의해 뉴스 리터러시가 ① 어떤 키워드,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돼 왔고, ② 그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③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④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뉴스 리터러시의 기존 개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실정에 적합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데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2. 뉴스 리터러시가 포괄하는 핵심 개념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뉴스 리터러시의 영역 설정과 함께 국내외 연구들이 뉴스 리터러시에 어떤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뉴스 리터러시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다.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뉴스 리터러시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 교육을 통해 가져야 하는 ‘능력’을 제시하고 이를 배양하는 ‘교육과정’을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절에서는 다양한 뉴스 리터러시 정의가 포괄하는 여러 가지 관련 영역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려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와의 교차 영역: 접근, 이해, 분석, 평가

뉴스 리터러시에서 핵심으로 손꼽히는 능력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뉴스 메시지에 접근하고(access) 이를 이해(understand), 분석(analyze) 및 평가(evaluate)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뉴스 리터러시 정의에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미하일리디스(Mihailidis, 2008)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여 뉴스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이를 정확하게 이해, 분석, 평가하고 나아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뉴스 리터러시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홉스(Hobbs, 2010b) 역시 뉴스 수용자로서 뉴스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핵심으로 꼽았다. 슈바르츠(Schwarz, 2011)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뉴스 미디어와 저널리즘에 관련된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처리하는 능력 배양을 뉴스 리터러시의 기초로 간주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 회자되는 기초적인 메시지 관련 해독 능력과 흡사한데, 뉴스 리터러시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장르로 보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기본으로 제시하는 성향이 두드러

진다고 하겠다(Potter, 2012).

뉴스 리터러시 분야의 논의들 중에는 ‘뉴스’라는 특정 장르에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대입하려는 접근이 존재하는데, 기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강조하는 접근, 이해, 분석, 평가 능력이 뉴스 리터러시에 적용되면서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Powers, 2014).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되는 21세기 뉴스 생태계 현황, 뉴스라는 특별한 장르의 콘텐츠가 생성되고 배포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과정, 뉴스가 지니는 직·간접적 영향력, 뉴스 수용자의 진화 과정 등이 뉴스 리터러시에 관련된 인지적 능력 함양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Mihailidis, 2012). 이런 관점에서 뉴스에 대한 접근(access) 및 선택과 관련된 뉴스 리터러시의 영역을 생각해 볼 때 ① 대중매체를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다양한 메시지 중 뉴스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뉴스란 무엇인가), ② 뉴스가 21세기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지 이해하고(어떤 것이 뉴스이고 어떤 것이 뉴스가 아닌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될 수 있다. 또한 뉴스에 대한 이해, 분석, 평가 영역과 관련해, 지각적 차원에서 뉴스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본 리터러시 능력과 더불어 ③ 뉴스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능력(왜 뉴스 수용자들이 뉴스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가), ④ 뉴스의 품질(좋은 뉴스, 나쁜 뉴스) 결정 요소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이 추가로 뉴스 리터러시 개념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2) 비판적인 평가 능력: 신뢰도 판단

정보의 홍수, 뉴스와 유사 정보의 혼재가 일상화된 21세기 뉴스 생태계에서는 ‘믿을 만한 뉴스 정보원’이 지닌 의미와 ‘뉴스 신뢰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 실제로, 유용하고 믿을 만한 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및 뉴스와 유사한 기타 정보)가 구분되지 않은 채 우리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다(Potter, 2010). 따라서 21세기 뉴스 수용자

들은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인지 판단하고, 수많은 뉴스 중 특히 어떤 정보를 믿을 것인지를 평가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 있다. 뉴스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이어야 하고, 수용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① 자신이 접하게 된 뉴스의 정보원이 누구이며 이 정보원은 과연 믿을 만한가, ② 해당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가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뉴스 신뢰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기준에 대한 학습은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함양할 수 있는 필수적 시민의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파나지오토와 데오도시아도(Panagiotou & Theodosiadou, 2014)는 뉴스 리터러시가 뉴스 ‘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으며,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은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뉴스의 선별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스톤브룩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센터(The Center for News Literacy)’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본다. 플레밍(Fleming, 2012) 역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견지하는 능력, 그리고 뉴스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 더 나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뉴스 리터러시의 영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밀러(Miller, 2010)는 뉴스를 통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소비하며 나아가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는 파워스(Powers, 2010)의 입장과도 유사하며, 뉴스의 전달 형태(전통적인 대중매체, 뉴미디어, 면대면 커

뮤니케이션 등)와 상관없이 자신이 접하게 되는 뉴스의 신뢰도 및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고 능력을 뉴스 리터러시를 통해 함양할 핵심 능력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과 이해, 그리고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더불어 적합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능력을 근간에 둔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뉴스인지, 혹은 무엇이 뉴스 안에 포함된 신뢰도 높은 정보·의견인지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 혹은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21세기 뉴스 수용자들이 처한 미디어 현실이다. 따라서 비판적으로 뉴스를 선별하고, 선별한 뉴스를 읽으면서 해당 내용을 이해·분석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정보원의 신뢰도 등을 기준으로 주어진 정보의 수용 여부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Loth, 2012).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비판적 판단 능력’이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뉴스의 활용이나 뉴스의 생산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능력’과 ‘신뢰성 판단’을 뉴스 리터러시의 근간이 되는 핵심 키워드로 봐야 할 것이다.

3)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

뉴스의 선별과 이해, 분석, 평가의 과정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며, 이와 같은 능력을 보조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뉴스 생산 과정 및 그 파급력이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에서도 강조되어 왔는데, 여러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이 각 미디어 장르의 콘텐츠 제작, 배포에 관련된 실질적인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는 데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Powers, 2010). 예를 들어, 방송국이나 신문사, 콘텐츠 제작 회사(외주 회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작 단계에 개입되는지, 어떠한 협상과 조절을 거쳐 해당 내용이 제작되는지, 제작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파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쳐 가는 언론사 내부의 프로세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남고 어떤 것들이 버려지는지, 편집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콘텐츠 제작 목표는 무엇이며 제작사가 해당 콘텐츠를 배포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매우 다양한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고, 그 해답이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강조될 수 있다(Potter, 2013).

뉴스 리터러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들은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즉, 뉴스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기획·제작·수정·배포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는지와 관련하여 뉴스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장르보다 언론인의 ‘뉴스 선택’과 조직의 ‘통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그 영향력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 뉴스 분야인 만큼(김사승 외, 2010), 뉴스의 편집에서 뉴스 제작 관행이란 어떤 의미인지, 이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뉴스의 제작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목표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분은 많은 적든 뉴스 미디어의 교육적 측면이나 저널리즘에 관련된 가치, 저널리즘의 속성과 특징 등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뉴스 리터러시는 저널리즘 교육과 연관된 부분이 필수로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21세기 뉴스 제작의 현실, 뉴스의 사회적 역할 변화, 뉴스 소비자의 역할 변화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는 일반 미디어 리터러시와는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부분이며, 뉴스 리터러시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된다고 할 수 있다(김양은·안정임, 2004).

기존에 뉴스 리터러시를 논해 온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봐도 이와 같

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포터(Potter, 2010)는 뉴스 산업의 기능과 배경 및 저널리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의 기본 영역이라고 주장하였고, 토피플(Toepfl, 2013) 역시 달라지는 뉴스 환경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뉴스 생산 방식에 대한 이해를 꾀하며, 이를 통해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는 의식 있는 수용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다 실질적으로, 플레밍(Fleming, 2012)은 뉴스 미디어의 구조 변화가 뉴스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 소비자(prosumer)⁴⁾로서 뉴스 수용자의 역할, 저널리즘 측면에서 본 뉴스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교육이 뉴스 리터러시의 중점적인 교육목표라고 지적하였다. 유사하게 말릭, 코르테시와 가서(Malik, Cortesi, & Gasser, 2013)는 뉴스 소비자로 하여금 뉴스 생산 과정에 관여하는 언론인처럼 생각하게 하고 뉴스가 작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뉴스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The News Literacy Project)’는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뉴스의 생산 과정,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뉴스 소비자가 경험하는 내용의 변화 등 저널리즘과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파나지오토와 테오도시아도(Panagiotou & Theodosiadou, 2014)는 메시지 생산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뉴스 메시지가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는지, 어떤 관점이 뉴스에 포함되고 어떤 부분이 삭제 혹은 생략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 뉴스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가 결합된 신조어로,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용어가 여러 영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4)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학자들은 사회에서 뉴스가 가지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술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에서는 뉴스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평가·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것을 강조했으며, 말릭과 동료들(Malik et al., 2013) 역시 뉴스가 지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홉스(Hobbs, 2010b)는 뉴스가 구성되는 방식, 미디어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요소, 뉴스의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뉴스 수용자로서 뉴스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 및 분석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하일리디스(Mihailidis, 2008) 역시 미디어의 기능을 이해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며, 미디어의 사회적인 필요성을 지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로버트매코믹재단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는 뉴스 소비자뿐만 아니라 현재, 혹은 장래의 뉴스 생산자가 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뉴스의 역할과 중요성, 기능, 영향력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면, 뉴스 미디어의 선택에서 이해, 분석, 평가, 그에 따른 행동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의 첫째 목표이며,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본 뉴스 생산 관행, 뉴스 소비자로서의 변화된 경험, 뉴스의 효과와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능의 변화 등 뉴스에 관련된 제반 영역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뉴스 선택과 소비의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평가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의 또 다른 목표가 된다고 하겠다.

5) 뉴스 수용자의 시민성 함양

뉴스 생산 과정이나 뉴스의 역할과 기능,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보다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것은 최근 뉴스 소비자가 뉴스의 흐름, 정보의 생산 및 공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뉴스 수용자가 대중매체를 통해 뉴스를 단순 수용하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Fleming, 2012). 말 그대로 미디어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있으며,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미디어 도구들은 뉴스 수용자를 소비자에서 생비자로 변화시키고 그들이 수용, 공유, 배포, 평가, 협력하는 모든 행위를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통합시키는 것이다(Mihailidis, 2012). 기존의 뉴스 이용 행태보다 훨씬 더 진화한 뉴스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기술 발달에 따라 제약 없이 뉴스를 포함한 정보가 전 세계를 24시간 동안 유통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뉴스 리터러시는 내가 접하는 뉴스, 내가 접하는 뉴스 안의 정보와 의견이 어떻게 생산되고 전파되어 나에게 전해지는지,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뉴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지, 뉴스가 가지는 영향력은 어떠한지 나는 어떤 것을 취사선택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열린 논의의 장을 열어 줄 수 있다(Klurfeld & Schneider, 2014).

뉴스 소비에 대한 비판적 자세 함양 및 뉴스 관행과 기능,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심층적 정보의 습득은 결과적으로 시민성의 함양,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최종 목표로 이어진다(Waldman, 2009). 뉴스 콘텐츠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 뉴스 콘텐츠의 메시지 해석에 필요한 능력은 곧 민주시민으로서 공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뉴스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와 그 의도, 의견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한다(Reece & Blackall, 2007).

딜레브코(Dilevko, 1998)가 주장한 바와 같이, 뉴스 리터러시를 통해 뉴스 정보원, 뉴스 프레임,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 사

람들은 비판적인 식견을 가진 뉴스 수용자가 될 수 있다.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공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다(예: Potter, 2010; 2013). 포터는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된 내용들, 즉 언론인의 작업 환경에 대한 지식,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지식, 뉴스의 프레이밍이나 편향, 객관성, 공정성 등 뉴스 관련 가치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지적하였다.

토피플(Toepfl, 2013) 역시 뉴스 리터러시의 최종 목표는 비판적인 자세를 기본적으로 겸비한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을 갖춘' 수용자라고 보았다. 의식 있는 수용자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뉴스 생산 방식과 달라진 뉴스 환경을 이해할 뿐 아니라, 정치·사회 등 시민으로서 필요한 영역의 지식에 접근 및 이를 분석·이해하는 능력을 높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이 뉴스를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상호간 의견의 차이를 통합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된다.

한편, 파워스(Powers, 2014)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뉴스 소비 다양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적인 지각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능동적인 민주시민 겸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뉴스 리터러시가 책임감 있는 유권자를 양성하고 국가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민을 키워낸다'는 미하일리디스(Mihailidis, 2008)의 의견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를 정보 리터러시(정보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능력)와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의 이해)의 교차점이라고 보는 말릭 등(Malik et al., 2013)은 뉴스 리터러시를 통해 뉴스와 소통하는 능력을 뛰어넘어 뉴스가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중요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좋은 뉴스를 찾아 읽고자 하는 건전한 동기가 유발되고, 나아가 시민성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시민성 함양을 뉴스 리터러시의 최종 목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은 실제 운영 중인 미국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에 잘 반영되어 있다. 중고생들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에서는 뉴스 내용의 생산과정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평가·판단하고 나아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초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인터연구소(Poynter Institute)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도 기본적 저널리즘 소양을 갖추어 최종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중요한 사회 이슈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로버트매코믹재단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정보의 바람직한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할 일임을 주장한다.

즉, 이들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해야 하는 핵심 요소이자 궁극적 역할은 뉴스 정보 탐색 및 평가 능력, 저널리즘에 관한 기본 소양, 정보 생산과 수용의 책임감을 동시에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성(informed citizen)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하겠다. 뉴스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은 정보 홍수 속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뉴스를 선별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바탕으로 신뢰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판단의 이유에 대해 지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① 뉴스, 의견, 그리고 뉴스가 아닌 것들에 대해 구분이 가능하고, ② 미디어와 뉴스 생산에 관련된 제반 환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며, ③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④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의지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뉴스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뉴

스의 수용자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3.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소개

1) 전반적인 목표: 통합적 비판 능력, 합리적 정보 선택 능력 향상

뉴스 리터러시 분야에서 비교적 앞서가는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세부 프로그램별로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⁵⁾ 뉴스 리터러시를 다루는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이 접하는 뉴스와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합리적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늘 의심하고, 궁금해 하는 습관을 갖도록 권유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는 21세기 수용자들로 하여금 현명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키우도록 해(Mihailidis, 2008),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나아가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을 길러주기 위함이다(Powers, 2014).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지적 방어(cognitive defens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초적인 자원을 제공한다(Potter, 2004b). 인지적 방어란 다양한 정보원으

5)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는 교육은 미국 외에 유럽이나 호주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은 뉴스 리터러시에 특화돼 있다기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일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 및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이 절에서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의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은 세계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한 김광재(2014)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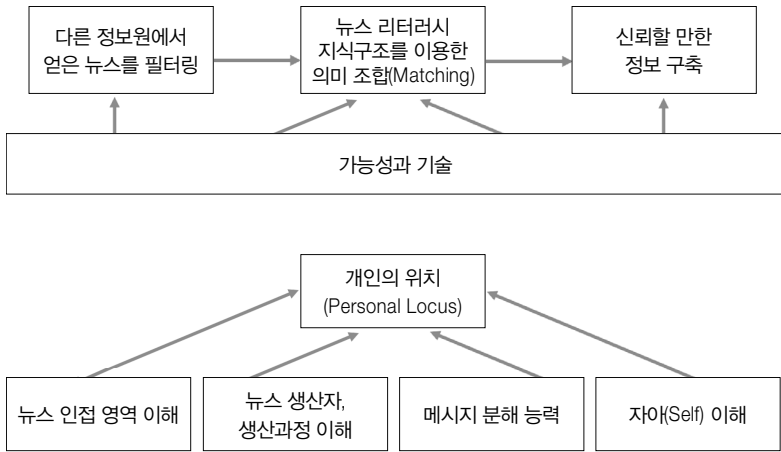
로부터 뉴스와 정보를 접하게 될 때 단순히 이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그 정보를 자신이 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인지적 방어 체계를 만들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Abrami et al., 2008). 이는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개인 차원의 접근이 인지적인 모델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모델에 기초한 접근 방식은 정보 처리에 관련된 기술을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해당 모델에 따르면,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보다 더욱 특화된 뉴스, 저널리즘의 영역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배움과 동시에, 뉴스에 제시된 주장과 아이디어들을 목적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배우게 된다.

2)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들은 각 개인의 인지적 처리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개인이 모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처리자이며 따라서 스스로 뉴스와 미디어 소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포터(Potter, 2004a; 2004b; 2012)는 미디어와 뉴스 소비에서 그 핵심은 자신에게 있으며 미디어 메시지의 해독과 처리에서 자신이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자기책임감(personal locus)’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림 2-2〉 참조). 이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좋은 뉴스가 무엇인지 배우고, 좋은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는 것, 나아가 뉴스 소비에서 정보 처리의 책임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뉴스 소비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닫고 정보 탐색 과정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더해질수록 각 개인은 무엇을 읽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 더욱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뉴스 리터러시는 스스로 뉴스를

〈그림 2-2〉 뉴스 리터러시에 응용되는 포터의 인지적 미디어 리터러시 모델



출처: 포터(Potter, 2004b)

소비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이다. 많은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는 저널리즘과 뉴스 생산에 관련된 지식, 이를 기초로 하여 뉴스와 정보의 품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전 과정 내에서 가장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 리터러시에서 인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의 최종 목표로서 강조하는 능력들로는 크게 여섯 가지 영역이 있다(Potter, 2004a).

- 연역 능력(deduction) - 뉴스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뉴스 유사 장르, 뉴스 생산자, 뉴스 구조 등으로 알려진 저널리즘의 다양한 원리와 원칙들을 이용하는 것.
- 통합 능력(synthesis) - 뉴스 리터러시 원리들을 적용하여 간단한 보고서

를 작성하기 위해서 뉴스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재조합하는 능력.

- 분석 능력(analysis) - 뉴스(신문지면, 텔레비전, 온라인, SNS 등)를 의미 있는 요소들로 나누고, 해당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과 명료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
- 평가 능력(evaluation) - 뉴스에 제시된 다양한 요소들의 설명력, 독립성 등을 판단하는 능력. 이와 같은 평가는 뉴스에 포함된 요소들을 다른 출처의 정보들과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귀납 능력(induction) - 뉴스 구조의 기능에 기초하여 뉴스 소비와 이해 습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뉴스 소비자 집단의 패턴을 추정하는 것.
- 그룹화 능력(grouping) - 오피니언 저널리즘, 케이블 뉴스, 라디오, 블로그 등 각각 다른 장르의 뉴스가 그 기능, 목적, 형태 등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그룹으로 묶는 것.

미국의 대다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들은 공통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상의 중첩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은 스토니브룩대학교 ‘뉴스 리터러시 센터’의 5대 핵심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Powers, 2010),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미디어·뉴스 메시지는 구성(constructed)되는 것이다.
- ②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특유의 구성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 ③ 사람들은 같은 뉴스·미디어 메시지를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 ④ 미디어·뉴스는 자신들만의 가치나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 ⑤ 대개 미디어 메시지는 이윤 창출·권력 유지와 관련된다.

3) 대표적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소개

(1) 스토니브룩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센터’

스토니브룩대학의 ‘뉴스 리터러시 센터’는 나이트재단(James L. Knight Foundation), 로버트매코믹재단, 포드재단(Ford Foundation) 등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가장 대표적인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으로, 약 1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 및 고등학생,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뉴스 리터러시를 교육하고 있다. 스토니브룩 모델의 핵심은 수강자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심어 주고, 뉴스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저널리즘 실무와 관련된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뉴스 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이정훈 · 이두황, 2012).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다(〈표 2-2〉 참조).

〈표 2-2〉 스토니브룩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내용

주차	주제	내용(예시)
1~3	뉴스에 대한 이해	뉴스 리터러시의 중요성
4~6	언론의 이해	언론과 정부 권력
7~8	뉴스 생산 과정	뉴스 생산 과정
9~10	뉴스에 대한 의견	비판적 사고, 다양한 매체
11~16	진실과 확인	언론의 진실과 확인 과정
17~18	기사 해부하기	신뢰도 평가
19~20	이미지와 소리	사진, 소리, 영상의 효과
21	텔레비전 뉴스	TV 뉴스 분석
22	언론과 윤리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23	경제와 뉴스	통계와 수치 이해
24~25	인터넷	디지털 시대의 뉴스 소비자
25	뉴스의 미래	공익과 사익, 디지털 기술

출처: <http://www.centerfornewsliteracy.org/about-us/>

〈표 2-3〉 스토니브룩의 고등학생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내용

주	주제	내용(예시)
1	뉴스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왜 뉴스가 중요한가
2	정보의 힘	정보 악용, 오용 사례
3	미국의 뉴스 미디어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4	신문의 이웃은 무엇인가	저널리즘, 광고, PR
5	뉴스란 무엇인가	뉴스 가치에 대한 학습
6	뉴스 혹은 의견	오피니언 저널리즘
7	이미지의 힘	사진, 소리의 힘
8	균형, 정의, 편견	뉴스의 균형, 정의, 편견
9	진실과 입증	저널리즘의 원리와 진실
10	뉴스 정보원 평가하기	뉴스 신뢰도와 평가
11	신문 뉴스 분해하기	뉴스의 분석과 평가
12	텔레비전 뉴스 분해하기	신문과 방송의 차이
13	소셜 미디어 분해하기	소셜 미디어의 신뢰도
14	뉴스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언론의 미래

출처: <http://www.centerfornewsliteracy.org/about-us/>

한편 ‘뉴스 리터러시 센터’에는 고등학생이 중심 대상인 “구텐베르크부터 저커버그까지(From Gutenberg to Zuckerberg)”라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2-3〉과 같이 구성돼 있다.

더불어 ‘뉴스 리터러시 센터’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담당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여름 단기 과정, 그리고 홍콩 등 해외 국가들과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2003년 45명의 공군 조종사 목숨을 앗아간 “매우 위험한 일(widow maker)”이라는 기사를 작성해 폴리처상을 받았던 기자 출신 앨런 밀러(Alan Miller)

가 2008년 나이트재단과 포드재단에서 재원을 지원받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현재 나이트, 포드재단에 이어 로버트매코믹재단이 세 번째 후원자가 되었으며, 약 1,200명의 학생들과 75명 이상의 현직 기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는 AT&T와 같은 통신사를 비롯하여 HBO, 블룸버그(Bloomberg),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등 언론사에서도 후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대도시의 7개 중·고교 교사들의 참여로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목표 하에 실제로 뉴스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실무 언론인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김광재, 2014; 최민재 외, 2013).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에서 교육을 통해 특히 강조하는 핵심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왜 우리에게 뉴스가 중요한가?
- 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수정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겪는 도전과 기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가지고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네 가지 정도다. 첫째,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실 프로젝트(Classroom Project)로서, 뉴스 리터러시에 대해 짧은 단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2~3주에 걸쳐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이긴 하나, 이용하는 사람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장기적으로 연장, 응용이 가능하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1주차에는 교사가 이끄는 기본 프로그램(original curriculum)이 진행되고, 2주차에는 저널리스트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식으로 수업이 이뤄지며, 마지막으로 3주차에는 학생이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프로젝트로 발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둘째, 디지털 프로그램(Digital Program)이 있다. 이는 교실 프로젝트에서 다뤄진 내용을 온라인 학습(e-learning) 형태로 전환하여 혼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뉴스 리터러시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5일간 지속되며, 온라인상에서 언론인 자원봉사자와 상호 대화를 나누거나 웹세미나(Webinar) 등의 형태로 타인과 교류하는 등 교실에서 학습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다.

셋째, 학생 워크숍(Student Workshop)이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스태프들이 적극적으로 학생을 도와 이들이 뉴스 리터러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특별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 기관과 연계하여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트레이너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한 뉴스 리터러시 개념을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작성하도록 독려하고,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해 준다. 이런 워크숍은 만나질 정도로 끝나는 단기 과정에서 2~3주 동안 이어지는 장기 과정까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넷째, 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클래스(Professional Development)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위한 전문인 양성 워크숍을 열고 있으며, 교사를 위해 학습활동, 도구, 자료, 전략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 양성 클래스에서는 교육자들이 뉴스 리터러시를 수업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샘플 레슨이나 가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당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상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 2-3〉 뉴스 리터러시 경진대회(The Saltzman Seven)

NAME: _____
PERIOD: _____

TITLE: _____
BY: _____

THE SALTZMAN SEVEN:

Fill in each section below AND on back with detailed observations from an example of news.

1. NUMBER OF SOURCES: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E: _____

2. TRANSPARENCY:

Where did the reporter get the information?

3. AUTHORITY:

Is it clear how the sources know the information they are providing?
Are they in a position to know?

COMPLETE THE OTHER SIDE...

이와 더불어,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는 “뉴스 리터러시 거짓말탐지 도전(News Literacy Project Lie Detector Challenge)”이라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매코믹재단의 후원을 받아 주어진 뉴스에서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는 사실확인(fact check)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월별로 경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예: 〈그림 2-3〉의 The Saltzman Seven).

(3) 포인터연구소

포인터연구소는 저널리즘, 뉴스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으로, 뉴스 리터러시 전문가, 저널리즘 교사, 관련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21세기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

인들에게도 ‘저널리즘이 무엇이며,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미디어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포인터 센스메이킹 프로젝트(Poynter’s Sense-Making Project)’가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09년 포드재단에서 받은 후원금을 토대로 대중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 및 (전통적 혹은) 현대적 의미의 다양한 뉴스 생산자들이 뉴스의 공신력 및 윤리 철학 등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둘째, ‘포인터 뉴스 대학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나이트재단에서 받은 280만 달러의 후원금을 토대로 200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멀티미디어 기술 활용에서부터 보도, 글쓰기 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저널리즘의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인터 뉴스 대학은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 및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학습에 특

〈표 2-4〉 포인터의 뉴스 대학 프로그램

주차	주제	내용(예시)
1	뉴스 감 잡기	뉴스의 기본 골조
2	정보원, 증명, 신뢰도	뉴스와 정보의 신뢰도
3	미디어 이해하기	메시지 처리와 그 원리
4	디지털 시대의 정보 정확성	정보의 오류발생과 이유
5	텔레비전 뉴스 보기	수용자의 역할
6	수정헌법에 대하여	표현, 언론의 자유
7	저널리즘 원칙과 가치	저널리즘의 기본 원리
8	인종과 민족 문제 다루기	민감한 사안 다루기

출처: <http://www.newsu.org/news-media-literacy>

화된 방식으로 발전되어 있다. 2015년 현재 뉴스 대학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0년에 들어서는데, 지금까지 약 3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였으며, 400개 이상의 강좌가 제공되었고, 7개국 언어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개설되는가 하면, 50여 개 협력사와 연계하는 등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관련 프로그램은 <표 2-4>와 같다.

셋째, ‘뉴스 트러스트(News Trust)’가 있는데, 이는 포인터연구소의 뉴스 리터러시 및 저널리즘 교육 사업 강화를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영리 뉴스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ws network services)다. 뉴스 트러스트에서는 중요한 공적 이슈에 대한 뉴스를 매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기존 뉴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저널리즘(good journalism), 뉴스 리터러시, 시민의 정치 참여 강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4) 로버트매코믹재단

로버트매코믹재단에서는 뉴스와 정보원의 신뢰성,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을 뉴스 리터러시라 명명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시민들로 하여금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의 생산자이자 보다 현명한 뉴스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본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정보 탐색 능력과 더불어 지각 있는 사고방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민이 되도록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매코믹재단은 600만 달러 규모의 ‘왜 뉴스가 중요한가(Why News Matter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시민들의 뉴스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뉴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강화하는 것.

- 뉴스 리터러시가 각 주의 중요한 이슈가 되도록 관련된 정책적 사안을 지지하는 것.
-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비판적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
- 전문가, 교사, 정보원 등이 결합된 지원 체계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 공공 정책, 교육 개혁,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뉴스 리터러시 원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

이와 함께 매코믹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미국언론연구소의 뉴스 리터러시 입문 과정(American Press Institute’s Introductory News Literacy Units)’의 경우, 중학교 학생들에게 뉴스 미디어와 현대사회의 상황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형태를 띠고 있다. 1~2주 분량의 프로그램이 각각 3개의 단원으로 진행되며, 각 단원은 뉴스의 이해 및 올바른 인지적 처리 과정에 관련된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학습하면서 정보원의 신뢰성, 뉴스 안에 포함된 편견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18주에 걸쳐 진행되는 ‘뉴스 및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News and Media Literacy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복잡한 미디어 현실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며, 동시에 다양한 미디어 도구와 기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자세한 내용은 〈표 2-5〉와 같다.

또한 매코믹재단의 후원을 받아 콜롬비아링크(Columbia Links)가 운영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원(Reliable Sources)’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뉴스 정보원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하고 신뢰성을 평가하며 뉴스 아이

〈표 2-5〉 '뉴스 및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내용

주차	내용
1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2	뉴스, 미디어 관련법
3	미디어 윤리
4	인터뷰, 조사, 자료 모으기 실습
5	4주차 수업 연장
6	뉴스와 스토리텔링
7	스토리텔링 더하기
8	뉴스와 의견
9	뉴스 편집과 스타일
10	비주얼과 디자인
11	스토리텔링과 인포그래픽
12	포토저널리즘
13	비디오와 오디오
14	13주와 동일
15	온라인과 멀티미디어
16	미디어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법
17	수용자 분석
18	소셜 미디어 이용하기

템에 대해서 믿을 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방식으로 뉴스 리터러시의 상승을 꾀하고 있다.

저널리즘교육연합(Journalism Education Association)의 ‘뉴스 리터러시 이해(Understanding News Literacy)’ 역시 매킨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표 2-6〉과 같다.

이외에도 매킨지재단은 ‘일리노이 수정헌법 제1조 센터(Illinois First Amendment Center)’, 미주리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측정방법 개발 연

〈표 2-6〉 '뉴스 리터러시 이해' 프로그램의 내용

주차	내용
1	뉴스 리터러시 이해하기
2	뉴스의 변화 따라잡기
3	디지털 시대의 사실 확인
4	편견과 오류 찾아내기
5	언론인과 언론의 자유

구 등도 지원하고 있다.

(5) 나이트재단

나이트재단은 보다 식견 있고 참여적인 공동체(informed and engaged community)를 형성해 건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미디어 혁신', '저널리즘', '관여하는 공동체(Engaged Community)', '예술 진흥(Fostering the Arts)'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나 교육기관, 개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http://www.knightfoundation.org/about/>). 현재 미국 내 약 26개 기관 및 단체에서 나이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6) 포드재단

포드재단은 커뮤니티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지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뉴스 리터러시 기관과 연구소들에 대한 재정 지원 역시 포함돼 있으며, 포드재단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기관으로는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뉴스 리터러시 센터', 포인터연구소 등이 있다 (<http://www.fordfoundation.org/about-us/mission>).

(7) 니먼재단

니먼재단(Nieman Foundation)에서도 저널리즘,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니먼장학금(Nieman Fellowship)’이며, 이는 전 세계 저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버드대학교에서 1년간 저널리즘 관련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938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개국에서 1,400여 명에 이르는 언론인들이 장학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영역으로는 뉴스의 미래와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니먼연구소(Nieman Lab)’, 최신 저널리즘 관련 이슈에 대해 논하거나 윤리, 가치, 혁신 관련 주제에서 미디어 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하여 포럼을 제공하는 ‘니먼 보고서(Nieman Reports)’, 내러티브 저널리즘, 스토리텔링의 예술성을 구현하는 웹사이트인 ‘니먼 스토리보드(Nieman Storyboard)’ 등이 있다.

(8)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미국 시라큐스대학은 교육과정에서 스토니브룩 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업의 구성 면에서 기본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차용하되 개별적으로 파악한 대학 내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뉴스, 의견, 설득커뮤니케이션 전략, 엔터테인먼트, 정치 프로파간다 등을 구별하도록 교육하며, 미디어가 범람하는 현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여 습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정훈·이두황, 2012).

브링엄대학, 콜비대학도 역시 스토니브룩 모델을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현명한 뉴스 소비자로 교육해 사회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저널리즘의 이해, 정보의 신뢰도 평가 방법 등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외에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스토니브룩 모델을 차용한 대학교는 상당히 많은데, 미국 내에만 코네티컷대학, 하와이대학, 아이다호대학, 미주리대학, 몬타나대학, 워싱턴대학을 비롯해 25개교가 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홍콩대학, 호주 퀸즐랜드대학을 포함한 다섯 곳에서 유사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4)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공통적 측면 분석

앞 절에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 주제와 관련이 깊은 연구소,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였다. 이를 종합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들이 포함하고 있는 공통적 측면들을 아홉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Powers, 2010).

(1) 뉴스는 왜 중요한가 - 뉴스의 정의, 좋은 뉴스의 조건, 민주사회에서 뉴스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뉴스는 무엇이며, 뉴스가 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포괄할 수 있는데, 우선 ‘뉴스의 정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을 뉴스로 부를 수 있는지, 뉴스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형태를 뉴스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플레밍(Fleming, 2012)에 따르면, 다른 뉴스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들이 전달될 필요가 있다.

- 뉴스는 사회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 뉴스는 보도하는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한다.

- 뉴스는 편집자가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뉴스는 사회 권력층이 당신이 모르기를 바라는 정보다.
- 뉴스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신뢰성 높고 정확한 정보다.
- 뉴스는 새로움이 생명이다.

또한 이 영역에는 좋은 뉴스는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 리터러시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뉴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정보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뉴스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학습하는 것은 핵심 영역이다. 우리사회는 21세기에 들어 다매체 환경에 놓여 있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사용해 언제든지 뉴스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지만, 설 새 없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수준과 장르의 ‘뉴스’들이 스스로에게, 혹은 공동체로서의 사회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뉴스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는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 혹은 바람직한 뉴스고, 왜 그러한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Reece & Blackall, 2007).

이와 관련하여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포터(Potter, 2010)의 경우 뉴스 편향, 객관성, 공정성 등 뉴스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매크믹재단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도 뉴스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유사하게 말릭과 동료들(Malik et al., 2013)은 뉴스란 무엇이며, 왜 뉴스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에서 뉴스가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뉴스 리터러시의 중심에 두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대중매체(신문, 방송)를 통해서 한정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뉴스를 접하던 환경이 온라인

기반의 뉴스 소비 행태로 변해 온 것을 고려할 때, 21세기 현재 과연 뉴스가 무엇이고 어떤 필수 요소를 포함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예전과는 다른 형태(포맷)의 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뉴스 전송 및 유통이 최초로 시작된 온라인 뉴스의 전달 형태였다면, 이제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저널리즘, 1인 미디어 저널리즘이 기존의 뉴스 판도를 뒤집을 만한 뉴스 전달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김사승 외, 2010).

토피플(Toepfl, 2013)은 달라지는 뉴스 환경에 대한 지식을 뉴스 수용자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해 왔다. 현재는 뉴스 형태 자체도 기존의 딱딱한 문자 위주의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감상이 가능한 영상과 음성이 포함된 뉴스를 비롯해,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카드 뉴스 등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에서 뉴스가 무엇인지 다룰 때는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의 형태와 앞으로 발전해 갈 뉴스에 대해 배우고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해 보는 과정을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살펴본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나 스톤브룩대학 ‘뉴스 리터러시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2) 정보 분류하기 - 뉴스와 뉴스 아닌 것, 사실과 주장, 증거와 추론, 뉴스와 PR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교육

우리는 온라인에 머무는 동안 스스로 원하든 그렇지 않든 다양한 정보가 혼재돼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지식·정보를 선별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를 파악하는 능력, 정보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정보 분류 및 선별적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포터(Potter, 2013)는 인간의 뇌가 미디어 메시지를 처리하는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개 우리의 뇌는 인지과부하를 막기 위해 정보 처리에서 자동적 과정(automaticity)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특별한 의식 없이 온라인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 내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 혹은 뉴스와 흡사한 정보들을 접하게 될 때, 대개 자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정보가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의식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품질이 낮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에 둘러싸이거나 혹은 도움이 되는 정보임에도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Klurfeld & Schneider, 2014).

이런 이유로 정보의 선별적 수용을 위해서는 보다 비판적이고 의식적인 미디어 노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학자들은 이와 같은 의식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스톨니브룩대학의 학장인 슈나이더(Schneider)의 주장이나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 정보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뉴스 수용자들로 하여금 뉴스와 뉴스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비롯해, 뉴스에서 의견·주장과 사실을 분리하는 방법 및 그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뉴스 트러스트 수업(The News Trust Lesson)’의 경우, 뉴스에서 특정한 주장이 제시되었을 때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제시된 내용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인지 혹은 추론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뉴스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정보들을 뉴스와 구분하는 것이다. 뉴스와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은 PR(Public Relations)라고 하겠는데, 뉴스와 외적으로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가 많아서 뉴스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은 PR와 뉴스의 차이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빠르게 구분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의 직접적 전달이 목표인 뉴스와는 달리, PR는 특정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하는 별도의 커뮤니케이터(발신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홍보대행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홍보대행사는 뉴스화를 목적으로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디어에서 다뤄줄 만한 이벤트(예: 캠페인이나 가짜 이벤트, pseudo-event)를 만들어 미디어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파나지오토와 테오도시아도(Panagiotou & Theodosiadou, 2014)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그 메시지가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가 작성됐는지, 이것은 뉴스가 맞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사람들이 뉴스와 흡사한 형태를 띤 메시지를 사용하는 PR 전략을 알아차리도록 돕고(예: 신문 기사와 PR 구분하기), 뉴스를 통해서도 제3자와 사전에 합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예: PR대행사를 통해 제약회사가 언론사에 미리 언질을 주어 방송 뉴스를 통해 신약 개발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다. 이로써 뉴스 소비자들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혹은 뉴스와 흡사한 형태를 띤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예상하는 저널리즘의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생산·전달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뉴스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비판적인 눈으로 미디어와 뉴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말릭 등(Malik et al., 2013)은 뉴스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내고, 확인하는 비판적인 인지적 태도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반드시 함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스톤브룩대학의 ‘뉴스 리터러시 센

터’에서도 뉴스와 선전, 사실과 의견, 주장과 추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신문기사나 방송뉴스, 나아가 온라인 뉴스를 접할 때 주체적으로 이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행간의 의미를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 뉴스 생산자에 대한 학습,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뉴스 내용 이해하기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 중 하나는 뉴스 생산자에 대한 학습 및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학습이다. 이는 저널리즘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배양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 미국 이타카대학에서 진행 중인 ‘날카롭게 바라보기 프로젝트(Project Look Sharp)’는 뉴스 소비자로서 자신이 읽고 있는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되는지 이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지식을 통해 수용자들이 ① 뉴스가 절대적인 진실을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②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에 대해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뉴스 소비자들이 하여금 숨겨졌던 행간의 의미를 읽는 능력을 키우게 하면 보다 비판적이고 성숙한 뉴스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뉴스 제작 현장에는 뉴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존재한다. 프로페셔널리즘(전문직주의), 조직 관행, 정치·경제·기술적 환경, 취재원과의 관계 등은 저널리즘 연구에서 조직적 차원으로 접근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부분이다. 조직적 접근 방식은 ‘뉴스 생산은 대부분 언론사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뉴스 생산자가 정기적으로 기사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생산의 관행이 존재함’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즉, 뉴스의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기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적인 행위의 산물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관료적인 생산 관행 속에서 간부와외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되는 조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김사승 외, 2010).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수용자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에는 뉴스생산 과정에서의 선택과 통제,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Powers, 2010).

뉴스 생산에서 언론인 개인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동시에 조직 차원의 개입 및 통제도 함께 존재한다. 물론 이 같은 조직 차원의 선택과 통제는 언론인 한 명에게 뉴스를 독자적으로 만들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차단하고, 여러 단계의 확인을 거침으로써 객관성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간주관적(inter-subjective)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저널리즘적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론사와 미디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가 크고 빠르며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최대한 효율성에 집중한 조직구조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 조직 차원의 통제를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뉴스는 한 사람의 기자가 자신이 판단한 뉴스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유롭게 생산해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정기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통제를 더 강하게 받는 조직의 산물이며, 이러한 사실은 뉴스 수용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달될 필요가 있다.

뉴스 수용자가 뉴스 생산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뉴스의 실제 작성자와 조직 간 상호작용, 타협, 갈등의 극복을 통해서 뉴스가 생산·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언론사의 목적이나 경향성에 따라 기자가 작성한 최초 원고가 간부 및 편집국을 거치면서 변형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여러 번의 수정과 개조를 거쳐 만들어진 최종 기사는 언론사라는 조직이 얹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언론사의 내·외적 갈등구조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뉴스의 내용을 접할 때 그 행간이 가지는 숨겨진 의미에 대해 추측해 보거나, 뉴스의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등, 수용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최민재 외, 2013).

이와 관련해 여러 학자들이 비슷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딜레브코(Dilevko, 1998)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비판적으로 뉴스 생산자를 바라보는 힘을 키울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여러 뉴스 정보원이 제작한 뉴스의 차이를 분석하게 함으로써, 뉴스 생산 과정에 포함된 사회적인 맥락,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읽게 하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인 뉴스 수용자를 키울 수 있다고 보았다. 파워스(Powers, 2010) 또한 뉴스에 내포돼 있는 편견의 가능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뉴스 리터러시의 영역이라고 제시했다. 즉, 뉴스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왜곡의 가능성을 배움으로써 뉴스가 100% 객관적인 진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그리고 더 나아가 뉴스 조직의 선택과 통제라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 복합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주체적으로 뉴스 안에 포함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말릭 등(Malik et al., 2013)이나 밀러(Miller, 2010)는 일반 뉴스 수용자도 ‘언론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뉴스가 어떻게 제작되고 최종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지 스스로 체험하고 학습하게 되면, 뉴스에 대한 고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단순히 뉴스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벗어나 보다 수준 높은 영역의 뉴스 리터러시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했다. 파나지오토와 데오도시아도(Panagiotou & Theodosiadou, 2014) 역시 메시지 생산에 관련된 정보를 교육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본 학자들이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뉴스 수용자들이 ‘왜’ 다른 메시지가 아닌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주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메시지 전달자에 대한 이해, 메시지의 전달 과정과 최종 목적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학습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이들은 뉴스 메시지의 생산과 전달 과정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으면 비판적인 뉴스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위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면, 수용자들은 뉴스 생산 과정에서 정보나 관점의 왜곡이나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뉴스 리터러시 교육 결과로 자신이 원하는, 혹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분석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메시지 생산과 수용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미국언론연구소(American Press Institute, 2013)의 ‘뉴스 리터러시 입문(Introductory News Literacy)’은 뉴스의 핵심 요소를 학습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뉴스의 편향에 대한 학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밀러(Miller, 2010)의 주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미디어 안에서 편향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이 저널리즘에 기초한 뉴스 리터러시의 기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와 관련된 편향에는 인지부조화를 피하고자 하는 수용자 쪽에서의 편향⁶⁾도 있지만, 제작 및 생산에 관련된 내재적 편향도 존재한다. 뉴스 생산 영역의 편향은 뉴스 제작 과정이나 뉴스를 제작하는 집단의 특징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서, 해당 집단이 표방하는 특정한 태도나 입장 내지 편향적인 사고가 메시지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뉴스 수용자들에게 이와 같은 편향이 미디어와 뉴스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나아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여 분석적인

6)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에 반대되는 메시지에 노출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인지적 불편함을 피하고자 그러한 메시지를 피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을 하거나, 그 메시지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를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눈으로 편견을 찾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4)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로 바뀌는 세상 - 디지털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인한 저널리즘 및 뉴스 수용자의 변화에 대한 교육

초기에 미디어 연구자들은 수용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미디어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수용자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뉴스 영역에서도 초창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강요과론과 일치되게, 하나의 뉴스 메시지를 수신하는 동질적인 수신자 개념을 가정했었다. 그러나 뉴스의 유통과 소비가 매스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대인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수용자들 또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질적 하위 집단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반복된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수동적인 의미의 ‘수신자’와는 조금 다른 ‘수용자’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가 대두되기 이전에는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신문, 방송)를 통해 뉴스가 송신자에서 수신자 쪽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뉴스가 제공하는 사회·정치·경제 등의 주제에 대한 토론은 미디어 채널과 완전히 분리된 채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McQuail, 1997).

이용과 충족 접근에 의해 제시된 능동적 수용자 개념은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진화해 가고 있다. 최근 수용자 개념은 미디어 선택과 식별 능력, 미디어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능동적 해석과 의미부여 능력, 미디어 경험과 사용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른 구분 등 기존 미디어 이론에서 파악하던 ‘수동적인 수용자’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주제가 되었다(김사승 외, 2010).

특히 뉴스 수용자의 진화와 관계가 깊은 디지털 저널리즘은 상호 연결성 측면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일대일 개념에서 벗어나 개별 수신자(혹은 집단)와 다른 개별 수신자(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로 연결성이 확장되고, 모든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용자들의 입지와 위상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뉴스 소비 환경에서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쉽게 분리되지 않으며, 비동시적인 정보의 수용과 소비가 가능해지고(김양은·안정임, 2004), 이 모든 요소들이 링크나 하이퍼텍스트 등 기술적 기반에 힘입어 개방적 구조 속에서 확장됨에 따라, 뉴스의 전달과 수용을 지배하던 일방적이고 선형적 관계가 탈중심성, 혹은 분권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불과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뉴스 수용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수용자는 시공을 초월해 뉴스를 소비, 이용, 변환, 공유, 제작,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매체 수와 채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널리즘의 의미 자체가 확장돼 가는 것은 물론이요,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되고 정보 전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뉴스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이정훈·이두환, 2011). 뉴스 소비에서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뉴스 콘텐츠가 개인의 상황에 맞춰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으로 수용되면서 공시성이 해체될 뿐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세분화되고 개인화되고 전문화된 뉴스 수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면서 뉴스 소비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들이 이를 대변한다(Mihailidis, 2012). 사람들은 이제 뉴스를 보면서 SNS의 정치 토론에 참가하기도 하고,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를 검색해 즉시 타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는 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댓글, 메일, 블로그 등을 통해 뉴스 내용에 대한 찬성 혹은 반

박하는 주장을 제시하고 타인과 의견을 토론하면서 이를 유통시킬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이제 단순히 거대 뉴스 공급원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에 100% 의존하는 대신, 유사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의 공통점을 찾아 분석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심도 깊게 찾아볼 수도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러한 자유로운 뉴스 이용은 결국 뉴스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정보 통제력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과 저널리즘의 변화, 그에 따른 수용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달라진 내용들을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Potter, 2013).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널리즘의 변화는 뉴스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이는 한편으로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 수용자들에게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자신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도 하다(Hobbs, 2010a).

(5) 수정헌법/사회적 참여 - (미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역사, 시민 참여,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학습

미국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수정헌법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돼 왔는지,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관해 체계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하나의 학습목표로 삼고 있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에서는 개인과 언론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면서 저널리즘이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동력이기에 뉴스 수용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18세기 자유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하며 모

든 관련 주장을 듣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발상에 근본을 두고, 각 개인의 생각과 표현, 나아가 언론에 최대한의 법적 자유를 허용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는 “미국 의회는 국교를 설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의사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또는 평화롭게 집회를 열 수 있는 권리와 불만 사항 시정을 정부에 청원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겠지만, 1960년 이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큰 흐름상 최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절대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정헌법상에 표현된 언론의 자유를 절대주의 원칙(absolutism)으로 해석하는 것에 가까우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개인과 언론에 예외 없이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장주영, 2015).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수정헌법은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측에 기대어 출판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연후에 자신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즉 사후 책임론적 사고를 반영한다. 또한 수정헌법은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열린 공간에서 나타나는 토론 결과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신뢰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개인 혹은 언론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특히 공적 인사 혹은 정책관련) 명예 보호보다 우선시하는 판결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비록 개인의 명예를 일부 훼손하더라도 그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투표권 행사 전에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에 따른 판결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1988년 공무원과 공적 인물의 풍자에 대한 렌퀴스트 판사의 “히슬러 대 폴웰 사건” 판결문). 이와 같은 판결은 미

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도록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는 미국 사회가 민주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다수 지배에 따른 독재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막으면서 어렵게 일궈낸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사고를 내포한다. 수정헌법 제1조는 “올바른 결론은 권위자에 의해서 내려지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의 총합에 의해서 내려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인이 개인적인 명예 훼손 가능성을 구실로 공적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무의 방기라고 규정하고 있다(Lewis, 2007/2010).

나아가 수정헌법은 언론이 피지배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지배층을 위해 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언론은 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감시 및 폭로, 정부가 가진 비밀을 파헤쳐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로운 표현은 법적으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정헌법은 설사 국가가 관련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이는 상당히 강한 수준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의미하는데,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미국 성조기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 등이 아닌 이상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국민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 높은 표현의 자유가 처음부터 인정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처벌받았던 기록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금의 형태로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단체인 ‘뉴지

엄(Newseum)’의 ‘학교에서 말할 수 없는 것(You Can’t Say That in School)’이나 ‘투표하는 아동(Kids Voting USA)’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시민사회 참여와 언론, 수정헌법과 관련한 위와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미국 수정헌법의 역사와 그 내용은 표현의 자유, 언론 및 결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방향이다. 실제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이들 가치를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키고 가꾸어 왔다. ‘뉴스 리터러시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의 ‘프런트라인(Frontline)’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인과 헌법(Journalists and the Constitution)’ 프로그램은, 이러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와 관련해 최근 들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는 언론의 규제와 언론 자유의 보장은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역사적,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서(Gay, 2002), 국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적용할 때는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강조하는 국가이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말 그대로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 눈과 귀와 입을 막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 통제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다. 실제로 언론 통제는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독재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언론 통제가 명백히 존재했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동안의 신문 강제 폐간, 등록허가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시기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언론(인)은 암묵적으로 경제적 혹은 법적 불이익을 받았었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 상황
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강내원 외, 2014). 이렇게 미국과는 다른 경험을 지
닌 우리 국민들은, 언론이 정부를 견제하는 감시견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
가를 홍보하는 프로파간다, 나팔수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배경
적 요소를 이해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 다루지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정부로부터) 언론의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능력이다. 사실 정치권력으
로부터의 자유가 자본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권
력에서 거의 완벽하게 자유를 얻은 미국의 언론은 대신 완전한 상업화를
이루었으며, 언론과 미디어는 정부의 나팔수가 되는 대신 기업의 나팔수,
힘 있는 자, 자본의 논리를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McChesney, 1999; 2004). 실제로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의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국에서 빠르게 발달한 이유 중 하나
도 절대적으로 자본주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업 미디어 수용자
인 ‘힘없는 개인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보다 분석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판
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자신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고, 나아가 다
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
한 다수의 위기의식 덕분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Potter, 2012; 2013).

실제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과 언론 사주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고, 두 개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영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공익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비교적 도덕주의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성립되어 있어 미국보다 정도는 덜
할 수 있겠으나, 무한경쟁에 몰린 방송과 미디어, 언론이 점차 상업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서 정부와 언론, 뉴스 미디어 사이의 관계를 논함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언론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이해가 가능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Thoman & Jolls, 2008).

(6) 미디어 소유구조 - 미디어 재벌에 대한 이해, 미디어 독과점과 관련된 산업구조에 대한 교육

미디어 소유구조에 대한 교육은 비단 뉴스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돼 온 내용이다. 크리스트와 포터(Christ & Potter, 1998)는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특정한 읽기, 쓰기 기술만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관련된 지식, 특히 미디어 산업, 콘텐츠의 패턴,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학습하고 제반 영역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목표임을 밝힌 바 있다.

미디어의 소유구조는 실질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 및 저널리즘의 내용과 형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업주의를 근간으로 한 미디어(특히 미국의 미디어) 시스템의 경우, 근본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뉴스의 내용과 관점의 다양성에서 한계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McChesney, 1999). 관점의 불균형성을 비롯해 선정적인 주제의 뉴스 생산, 품질 좋은 경성 뉴스 생산 및 소비 저하, 연예오락 뉴스를 포함한 연성 뉴스 소비 증가 등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미디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언론의 상업주의와 밀접히 연관된다 하겠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자극적인 ‘낚시성’ 기사 제목의 범람, 기사 어뷰징(동일 기사 재전송) 등의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잘 알려져 있듯 민주주의에는 자유, 언론의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적 교양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춘(well-informed) 시민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Hobbs, 2010a; Loth, 2012), 미디어의 상업화는 많은 적든 간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하

겠다(Waldman, 2009).

다이슨(Dyson, 1998)의 주장에 따르면,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특정 회사가 어떤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단순한 위계질서를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식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언론 검열의 의미,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열과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기업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사회적·문화적 결과물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보다 복합적이고 심도 깊은 내용이다(Silverblatt, 2001).

뉴스 리터러시, 그리고 일부 미디어 리터러시 학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지 취향이 고급한 미디어 소비자를 양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품격과 교양을 갖춘 민주사회의 시민(sophisticated citizen)이 될 수 있도록 저널리즘, 미디어 효과, 미디어 생산과 배포 등에 관련된 폭넓고 깊은 지식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Lewis & Jhally, 1998). 이런 의미에서 뉴스 리터러시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여겨진다. 미디어, 특히 뉴스에 관련된 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나아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미디어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메시지 생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그 안에 숨겨진 뜻과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otter, 2013). 이와 같은 관점에서 뉴스 리터러시 학습은 뉴스 소비자로 하여금 일종의 지적 도전과제를 수행하도록 돕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 미디어에 만연해 있는 상업주의에 대응하는 인지 기반의 방어적 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Mihailidis, 2012).

일각에서는 인지적인 방어벽을 강화해 내적으로 상업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다소 이상적이고,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

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몇몇 학자들(예: Ashley, Poepse, & Willis, 2013; Maksl, Ashley, & Craft, 2015)은 학교에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뉴스는 누군가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사실,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를 바꾸기 위한 ‘진보적인 행위’와 동등한 정치적 의미를 띠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을 가르친다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많은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는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킨다. 학자들 역시 뉴스를 생산하는 미디어 회사의 소유 구조 및 이들의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현명한 미디어 소비자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McChesney 1999; 2004; Silverblatt 2001; Potter, 2010). 애슐리와 동료들(Ashley et al., 2013)은 뉴스 생산의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 미디어 소유구조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사람들의 뉴스 신뢰도 평가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짧은 시간이라 해도 이처럼 정보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습 과정에 노출된 경우 뉴스 미디어의 진실성, 피상성, 정확성, 완결성 등 신뢰도에 관련된 각 요인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보다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서는 미디어 회사들의 소유구조 요인이 ‘무엇이’ 뉴스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뉴스로 가공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저널리즘의 요소”라는 장에서는 무엇을 뉴스로 만들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존재하는 편집국(뉴스의 생산을 담당)과 사업국(이윤 창출 담당) 간 보이지 않는 벽과 경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소수의 강력한 미디어 재벌들(media conglomerates)이 많은 신문사, 잡지사, 텔레비전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을 선점하는 독과점 상태가 생성·지속될 때, 이것이 뉴스 제작과 뉴스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과정이 프로그램에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7)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 언론에 대한 불신의 이유 및 대처방안, 뉴스 메시지의 비판적 분해 능력 학습

언론에 대한 불신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통 미디어 채널 중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가 여전히 가장 신뢰할 만한 매체로 한국인들에게 인지되고 있긴 하지만(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신문은 저조한 구독률과 낮은 신뢰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실시한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행동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마크로 밀엠브레인, 2015),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뉴스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답했고(동의 64.5% vs 비동의 17.1%), 뉴스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응답한 사람은 6.8%에 불과했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은 정보에 대한 일상적인 의심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사람들이 기존 매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이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수정돼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는 “왜 사람들이 기성 언론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뉴스 미디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견, 오류, 실수 등을 발견하게 하고, 뉴스가 전달하는 내용 중 왜 이런 점이 나타나게 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는 뉴스에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오류, 의사 전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견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뉴스는 간주관적인 객관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진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뉴스는 언론사에서 기획, 제작, 생산되며 뉴스관행이라고 불리는 제작 관련 환경, 불가항력, 업계 관례 등의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김사승 외, 2010). 기사 작성에서도 마감시간, 지역적 한계, 자원의 한계 등이 제작의 제한점으로 작용하며, 조직 내에서 통용되는 마케팅적 관점, 조직구조, 소유구조, 상업주의적 성향 등이 제작 환경이라는 명목하에 기사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Potter, 2013). 이와 같은 조건은 기사 안에서 발견되는 편향성과 관련이 있으며,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오류나 잘못이 이와 같은 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Fleming, 2012).

업계 관례 역시 기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오류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기자들은 취재원에게서 많은 기사 소스를 얻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가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관에 따른 기사 작성, 수용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기자들의 편집과 기사 작성 역시 비슷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뉴스가 물리적 한계, 제작환경의 한계, 업계 관례에서 오는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산물이라고 할 때, 이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취재나 기사작성 상의 편의성 등)과 함께 독자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뉴스 소재나 스토리에 대한 경직되고 편향된 시각, 사건을 전달하는 내러티브에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Potter, 2012; 2013).

내용 조작(fabrication), 의도적인 사실 왜곡 및 중요한 사실 누락, 특정한 정치 성향에 대한 편향된 진술 등 기자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 저해 요인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업주의, 오락 추구, 피상성으로 대표되는 미디어의 전반적인 구조적 편

향, 양쪽의 주장에 같은 무게를 신지 않는 불균형성(imbalance),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의 왜곡, 편향적 기사 작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곡해의 여지가 없는 단순 사실만 나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맥적 정보 부족 등도 뉴스 수용자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찾아내야 하는 문제점으로서 학습을 통해 깨우쳐야 할 것들이다(Patterson & Wilkins, 2013).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미디어 산업 체계가 바뀌면서 미디어 융합이 발생하고 이와 함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 혹은 붕괴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기존 언론 수용자 규모의 축소에 따른 광고수익의 감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Potter, 2013). 과거에 비해 전통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뉴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뉴스 소비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뉴스 수용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들의 수준 높은 뉴스 소비와 저널리즘에 대한 높은 기대치는 앞으로 저널리즘의 진화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Hobbs, 2010b; 최민재 외, 2013).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뉴스 소비의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식견 있는 비판자로서 뉴스 수용자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김사승 외, 2010; Mihailidis, 2008).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자로 기능하는 뉴스 수용자들은 더 이상 뉴스에서 전달된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만은 안 되며,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탐구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수정과 확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뉴스 트러스트’ 프로그램에서는 “뉴스 사냥 (News Hunts)”이라는 수업을 마련해 학생들로 하여금 기존 매체에서 다뤄진 뉴스기사와 사실을 온라인 미디어, 1인 미디어가 다루는 것과 비교·분석해 보고 현직 언론인, 교육자, 일반 시민들과 함께 토론 및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았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성 언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오류와 대안 미디

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오류를 비교해 분석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실제 뉴스 생산자, 연구자들과 얼마나 다른지 혹은 같은지 확인하며 그 차이를 학습할 수 있다. 동시에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접하는 복잡한 뉴스 생태계에 놓여 있는 소비자로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뉴스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

뉴스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및 분석과 관련해 뉴스 리터러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또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스 관점(news perspective)’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뉴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한다(Patterson & Wilkinson, 2013). 또한 뉴스와 관련된 문맥적 정보(contextual information)에 대한 탐색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뉴스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뉴스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의성, 객관성 등의 규범적 뉴스가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안적인 정보원을 찾도록 훈련함으로써 문맥적인 지식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Powers, 2014). 한편, 뉴스의 이해와 분석, 평가에서 학생들이 통계나 수치를 오해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성도 있다. 통계는 여론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치 않게 여론을 생성하거나 때로는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뉴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뉴스를 회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강조하고, 더불어 뉴스와 저널리즘에 대한 회의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뉴스, 더 다양한 뉴스를 읽도록 장려해야 한다(Potter, 2013).

(8) 바람직한 정보의 생산자 되기 - 책임감 있는 뉴스 소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좋은 뉴스 메시지 생산 및 공유의 중요성 학습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에는 뉴스 수용자들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뉴스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이는 수용자들이 단순히 소비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인 생비자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하겠다(김사승 외, 2010). 생비자로서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만의 전문 영역이나 쟁점에 관련된 정보 및 분석에 관련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타인과의 논쟁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기술을 수용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게 된다.

블러드(Blood, 2002)는 미디어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욕망이 ‘쓰기’ 행위로 발현된다고 보았다. 블로그나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는 수용자(생비자)들의 행위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기제이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과 확인, 인정에서 오는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링크를 활용해 자신이 쓴 글을 연결시키고, 네트워크상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이 쓴 글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외부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 상호 간의 인정, 수용, 평가의 과정으로써 타인과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일은 뉴미디어를 통한 뉴스 수용과 저널리즘의 진화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뉴스 수용자들이 뉴스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저널리스트 정도의 수준 높은 글쓰기나 직접적인 뉴스 생산만이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는 아니다.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수준에 대해 논한 메이필드(Mayfield, 2006)에 따르면, 참여 용이성을 기준으로 읽기, 태그, 코멘트,

공유 등도 진입장벽이 낮은 참여 방식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참여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장애는 없으나 상호 간에 소통이 적으며 네트워크의 긴밀도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단순히 축적적인 지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 수용자들은 낮은 수준의 참여를 위해 뉴스를 읽고, 뉴스 사이트나 뉴스 블로그를 즐겨찾기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어서 태그를 하거나, 뉴스에 코멘트(댓글)를 달고, 회원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보다 약간 더 적극적인 형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에 자신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주제의 기사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적극적인 수준의 뉴스 생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뉴스 소비에 대해 알리면서 동시에 뉴스 읽기를 권할 수 있는 21세기형 뉴스 소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뉴스 수용자들이 뉴스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은 협력적 지성(collaborative intelligence)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뉴스와 관련된 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것(쓰기), 내용에 대한 지속적 수정, 그리고 해당 과정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잘못된 뉴스 정보가 전달되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교정하면서 동시에 양 집단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행위, 더 나아가 타인과 행동을 함께 하는 행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뉴스 생산 참여 행동은 높은 수준의 관여를 요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적지만 대체로 질적 수준이 높은 참여로 분류된다. 특히 적극적 참여는 네트워크상에서 뉴스 소비자들의 긴밀한 연결 및 협력으로 이뤄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참여라고 볼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21세기 뉴스 수용자들이 뉴스 생산 참여 과정을

경험하면서 책임감 있는 뉴스 소비자로 거듭나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새로운 저널리즘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Fleming, 2012; Powers, 2014). 비록 낮은 수준의 관여이긴 하지만 ‘좋아요’, ‘추천’, ‘공유’ 등을 통해 반영되는 자신의 참여가 저널리즘 현실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이 작성한 글이 타인에게 전달 및 공유되는 관여 수준이 높은 참여를 직접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교육 경험을 통해 뉴스 수용자들이 책임감 있는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양질의 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와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9) NIE - 뉴스를 활용해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뉴스 리터러시와 NIE의 관계는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뉴스 리터러시를 미디어교육의 소주제로 넣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NIE의 확장으로 보기도 하지만(황유선 · 박진우 · 김위근, 2011),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에서 NIE는 뉴스 리터러시의 하위 항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Powers, 2014). NIE 프로그램 중에는 특정한 계층의 사회화와 독해 능력 향상이 목적인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미국신문협회재단(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 Foundation)이 제시한 ‘하이파이브: 중학교 학생을 위한 문예와 저널리즘(High Five: An Integrated Language Arts and Journalism Curriculum for Middle School Students)’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위해 개발된 3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간지를 교재로 활용한다. 2005년 미국의 전국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가 내놓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독해 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문을 이용해 독해 능력과 쓰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리터러시’의 효용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 그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에서는 신문을 교육용 텍스트로 이용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는 언론사들의 노력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의 언론사들은 NIE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교와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자신들이 생산한 신문을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어린 학생들의 신문 노출을 증가시켜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화를 돕는다는 명분을 얻고,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양성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뉴욕타임스는 NIE 프로그램을 통해 종이·온라인 신문을 배포하며 미국 내 2500개에 이르는 학교(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문사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언론사가 중심이 된 NIE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 내에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게 된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NIE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제공되던 프로그램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NI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언론인들의 숫자도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Powers, 2010).

전술하였듯, 미국 사회에서 NIE는 신문을 하나의 주교재로 이용하면서 학생들(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개발하자는 것이 기본 목표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를 넘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요구되는 능력, 즉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자신이 접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능력과 더불어 뉴스 리터러시 영역(뉴스의 중요성과 가치, 다양한 메시지에 접하는 것의 중요성 등)까지 동시에 키워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NIE의

영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NIE를 별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기보다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에 하나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돼 온 NIE 활용 방식 중 뉴스에 대한 교양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역들, 즉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적 효과의 상승(예: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제고)이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정보 해독 능력 향상과 같은 목적에서 뉴스를 제재로 활용하는 교육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는 별도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문 내지 뉴스 활용 교육에 해당하는 NIE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려면, 뉴스에 포함되는 주제 영역이 엄청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핵심 교육과정 요소를 뽑아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가 NIE의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① 뉴스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초적인 역량을 키워줌과 동시에, ② 뉴스의 본질, 저널리즘의 이해, 정보 선별의 중요성 등을 다루면서, 더 나아가 ③ 질 좋은 뉴스를 선택해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진취적인 태도를 훈련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이 다양한 뉴스의 활용을 통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NIE를 하위 영역으로 포함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탐색하는 능력과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가려내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지식 체계(knowledge structure; Potter, 2013)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뉴스에서 정보를 얻고 정리하고 구조화하며, 자신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등 뉴스 '사용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직업 선택의 효율성과 적절성 상승, 자아 성장과 발전, 사회

문화적 교양의 습득 등 다양한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법을 익혀 진로를 포함한 자신의 관심사를 확장하며, 공동체, 사회, 더 넓게는 세계 차원의 현안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4. 소결

현재까지의 연구를 살펴볼 때,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발전한 영역, 혹은 그 하위 분야(Mihailidis, 2012; Powers, 2010)로 보는 경우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뉴스라는 특정한 장르에 적용되는 것을 일컬어 뉴스 리터러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뉴스 리터러시라는 학문 영역은 비교적 그 경계가 유연한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기대고 있는 만큼, 현재 완벽하게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차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괄하는 열린 영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뉴스 리터러시를 굳이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다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차원으로 출발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뉴스 리터러시만이 가지는 독자적 영역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즉,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출발하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하지 못하는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화’, ‘융합’과 같은 키워드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라는 콘텐츠 영역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 등의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스 리터러시는 기존에 논의되던 리터러시 일반을 비롯해,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시민 리터러시 등의 개념과 각각 일부 영역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각 개념의 핵심 영역을 관통하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그림 2-1〉 참조). 뉴스 리터러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인접 영역들이 가지는 핵심 요소들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서로 관련이 깊음에도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지는 않았던 시민성,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이용 능력 등 다양한 부분들을 이어 주는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뉴스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 및 여타 리터러시와의 교집합에 바탕을 두면서 저널리즘, 시민성, 뉴스와 관련된 미디어 기술의 발달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이며, 해당 독립 영역들에 대한 지식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기에 유사 개념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향에서도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Mihailidis, 2012).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가 다뤄야 할 필요 요소들에는 ① 뉴스 메시지에 대한 접근, 이해, 분석, 평가 능력, ② 비판적 태도로 메시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능력, ③ 뉴스의 생산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④ 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⑤ 뉴스 수용자로서 책임 및 시민성 함양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론적·개념적 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들이 강조하는 핵심적 교육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우선,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① 뉴스 내용의 비판적 해독 능력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뉴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배포되며 누구를 목표대상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지식으로서, 뉴스 관련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뉴스가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영향력·기능 등에 대한 지식, 더불어 뉴스가 무엇이며

좋은 뉴스를 이루는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뉴스 내적인 지식과 이해가 합쳐진 복합적인 영역이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인지적 미디어 리터러시 모델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며, 동시에 뉴스 리터러시의 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제시한 비판적 해독 및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정보의 홍수, 뉴스와 뉴스 아닌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② 자신의 능력으로 신뢰성 있는 뉴스를 선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도록 해야 한다. 뉴스 선택과 수용에서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고, 어떤 근거에 입각해 믿을 만한 뉴스를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③ 뉴스 이용 과정에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④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기본자세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저널리즘 및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면서 뉴스 수용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⑤ 품질 좋은 뉴스, 품질 좋은 정보, 올바른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뉴스 리터러시에 대해 교육을 받은 교양 있는 뉴스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언론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고, 그 결과 뉴스 생태계를 변화시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절차와 과정은 ⑥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공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게 만들고, 나아가 주요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길러 줄 수 있으며, 이런 ‘시민성 함양’이 모든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라 하겠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요소

는 ① 비판적, 분석적 사고에 기초한 뉴스의 선택과 이해, ② 뉴스의 중요성, 정보원의 품질, 뉴스 생산과정과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뉴스(및 그 안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종합적 평가 능력, 마지막으로 ③ 책임감 있는 뉴스 소비자 겸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라 정리할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에 관련된 기존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뉴스의 선별 능력을 위한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배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고, 최종 목표는 이를 통한 ‘민주시민의 소양을 강화’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었다.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문헌들이 앞에 제시한 요소들 중 두 가지 혹은 전체를 논하고 있었으며, 비록 개념을 정의하는 데 모든 부분을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위에 언급한 1~3차 목표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선행 연구 검토와 기존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학습 단계를 도출하였고, 이 내용은 한국형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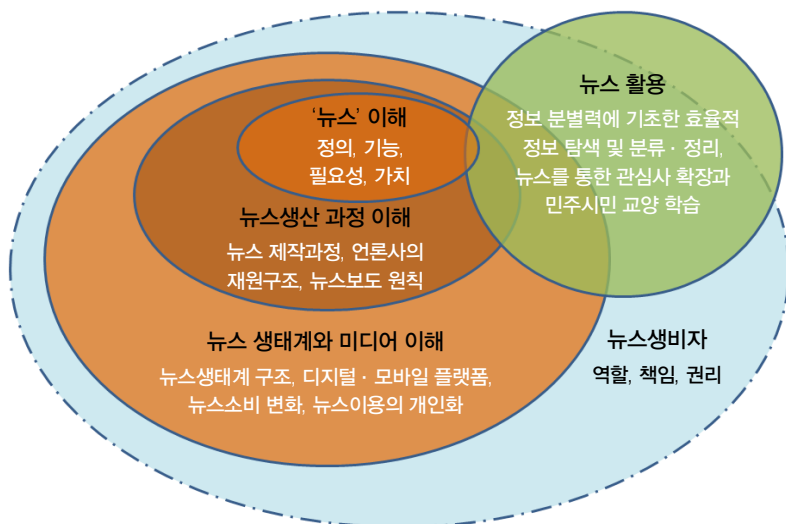
- 1단계: 뉴스 자체에 대한 지식, 뉴스의 이해 · 분석 · 적용 · 종합 · 평가를 위한 지적인 기술(intellectual skill) 습득
- 2단계: 뉴스의 본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21세기 뉴스 소비자의 역할, 뉴스 생산 과정에 관련된 역할에 대한 이해,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뉴스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언론의 역할과 책임, 민주 시민으로서 뉴스 수용자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 이해
- 3단계: 뉴스 수용자로서 습득한 지식을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이용, 뉴스의 다양한 활용, 책임감 있는 메시지 생산 및 공유

정리하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목표로 하는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뉴스와 뉴스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뉴스 생산 구조와 유통 전반에 대한 이해가 형성돼 뉴스 정보에 대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뉴스를 선택하고 그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 나름의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1차적). 나아가 뉴스가 가진 사회적인 책무와 역할, 중요성을 인지하고,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의 오류와 왜곡 가능성을 이해하며, 뉴스 수용자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과 의무,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2차적). 최종적으로, 이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뉴스 소비와 생산, 공유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하게 된다(3차적).

이상 살펴본 기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리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이루는 영역들과 그 핵심적 구성 요소들을 범주화해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2-4>와 같은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4>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 및 핵심 구성 요소들



03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구성

1.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배경

지식이나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지닌 대표적 특성 중 하나다. 이러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보와 지식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처리 및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교육 정책에서 핵심 과제로 수립하고 그 실행에 힘쓰고 있다. 북미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호주 등지에서는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를 국가 교육과정의 편제 안에서 비중 있게 다룬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집권기였던 2000년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협동 능력, 멀티미디어 소통 능력을 교과목 전반에 걸쳐 구현하고자 공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또 다른 예로, 호주에서도 공통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일반 역량으로 리터러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가 아닌데, 교육 체계 안에

서 지식 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한 능력을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으로 대거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하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칭)에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교과 공통 핵심 역량으로 ‘자기관리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심미적 감성 능력’이 제시되었다. 이에 기초해 국어과에서는 ‘자기성찰·계발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화 향유 능력’을, 사회과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한 핵심 역량이 강조된 바 있다. 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처럼 핵심 역량이 전면에 부각되며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제안된 것은 아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교육에서 길러야 할 핵심 역량 10가지를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표 3-1>에서 확인할 수

<표 3-1>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인적 역량	자기관리 능력, 기초 학습 능력, 진로 개발 능력
	사회적 역량	의사소통 능력, 시민 의식, 국제사회·문화 이해, 대인관계 능력
	학습역량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능력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공통 핵심역량	자기관리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심미적 감성 능력
	국어과 교과역량	자기성찰·계발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화 향유 능력
	사회과 교과역량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은 교육과정 체계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도출해 제시한 것임.

있듯이, 사회적 역량으로 ‘의사소통 능력’, ‘시민 의식’, ‘국제사회 · 문화 이해’, ‘대인관계 능력’이, 학습 역량으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이 제안되었다.

뉴스는 현대사회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대중 정보 유형이며, 특히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수인 (정치를 포함한) 공적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정보이기도 하다. 뉴스를 분별 있게 선택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그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은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대다수 핵심 역량의 함양에 직 ·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해당하고, 정보 처리 및 활용 능력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며, 이 외에도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비롯한 여러 역량들이 뉴스 리터러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 38개⁷⁾가 포함돼 있는데, 이 중에는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교육’이 포함돼 있다. 이 범교과 학습 주제들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해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교육이 결합된 형태이며, 이 외에도 소비자(뉴스 소비 관련), 정보화 및 정보윤리, 지적재산권을 함께

7) 민주시민, 인성, 환경, 경제, 에너지, 근로정신 함양, 보건, 안전, 성, 소비자, 진로, 통일, 한국 정체성, 국제 이해, 해양, 정보화 및 정보 윤리, 반부패, 물 보호, 지속가능 발전, 양성평등, 장애인 이해, 인권, 안전 · 재해 대비,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여가 활용, 호국 · 보훈, 효도 · 경로 · 전통윤리, 아동 · 청소년 보호, 다문화, 문화 예술, 농업 · 농촌 이해, 지적재산권, 미디어, 의사소통 · 토론 중심, 논술, 한국 문화사, 한자, 녹색 교육

다루는 교육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 처리 및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핵심 역량으로 제시된 시민 의식, 공동체 의식,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함양하는 데는 뉴스 리터러시 및 미디어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의 뉴스 리터러시·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뉴스 및 뉴스 매체와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으며, 그 결과는 <표 3-2>에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뉴스’가 직접적으로 등장한 경우는 초등학교 5~6학년군 국어과 ‘듣기·말하기’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 리터러시에서 다루는 영역을 ‘미디어’로 확장해 보면, 여러 국어과 과목들의 성취 기준에 ‘매체’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미디어가 대체로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수단의 의미를 띠고 있을 뿐 미디어나 뉴스에 대한 교양 교육에 해당하거나 뉴스 그 자체에 초점을 둔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표 3-2> 2009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뉴스 리터러시 관련 교육 내용

교과	내용 체계	세부 내용(성취 기준) 사례
초등·중등 국어 (공통교육 과정)	지식, 기능, 태도, 실제의 4 영역 중 실제 부분에 ‘듣기·말하기와 매체’, ‘읽기와 매체’, ‘쓰기와 매체’, ‘다양한 매체와 국어자료’, ‘다양한 매체와 문학’ 항목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5~6학년군 듣기·말하기] 뉴스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 [초등학교 5~6학년군 쓰기]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 • [중학교 1~3학년군 읽기]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 [중학교 1~3학년군 쓰기]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교과	내용 체계	세부 내용(성취 기준) 사례
고등국어 I (선택교육 과정)	'뉴스'나 '매체'가 직접 언급 돼 있지 않음.	• [작문]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 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고등국어 II (선택교육 과정)	화법에 '매체 자료의 활용', 독서에 '매체 자료의 분석 과 비판적 태도', 작문에 '매 체의 특성과 글쓰기 원리' 가 포함돼 있음.	• [화법]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듣기의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이해하고, 상대 의 주장을 평가하며 듣는다. • [화법] 매체 자료의 유형과 기능을 이해하고,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 [독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 며 읽는다. • [작문] 글의 전달과 사회적 파급력과 연관된 매체의 효과 와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책임감 있게 인터넷상의 글쓰기를 한다.
고등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에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이 포함돼 있음.	•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 다양한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 시각 자료를 해석하여 핵심 정보 로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 [정보 전달을 위한 작문]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고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하여 글을 쓴다.
고등 독서와 문법	'뉴스'나 '매체'가 직접 언급 돼 있지 않음.	• [독서의 방법] (광고문, 정치담화문, 시사평론, 신문기사 등의 글에서)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 [독서의 실제와 국어 자료의 탐구]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독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읽는다. • [국어 자료의 탐구] 다매체 사회에서 인터넷 등 다양한 경 로를 통해 독서에 관한 정보를 얻고 활용한다.
고등 문학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 '문 학과 매체' 항목이 있음.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표현 방 식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스 리터러시를 현대 지식정보 사회의 인재가 갖
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특히 정보 처리 및 활용 능력 측면에서) 중 하나
로 간주하고,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 제
공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핵심 역량 신장에 실질적으
로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커리큘럼을 활용해 교육할 경우 시민 의식

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건전하고 참여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1장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은 중등교육과정(중·고등학교)과 고등교육과정(대학교)에서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따라서 중등교육용 커리큘럼 시안과 대학 강좌용 강의 계획 시안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초등교육 수준에 맞는 시안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연구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할 적절한 시기가 중등교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째,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읽기·쓰기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 뉴스를 학습과정에서 제재로 활용하는 교육은 권장되지만, 뉴스의 본질 및 뉴스 생태계, 뉴스의 사회적 의미·기능과 같이 뉴스 및 뉴스미디어 자체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둘째, 뉴스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자들 또한 중·고등학교가 관련 교육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제안하고 있다(예: Klibanoff, 2012; Powers, 2010). 이들은 (꼭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중등교육과정에 뉴스 리터러시를 포함시키는 것은 곧 ‘대중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 대상이 자연스럽게 전체 인구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에서도 주교육 대상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관 두 곳에서 각각 중·고등학생(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과 대학생 및 교사·언론인(스토니브룩대학의 뉴스 리터러시 센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뉴스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뉴스 이용 습관을 형성하고 이것이 꾸준히 지속되도록 하려면 청소년기 동안의 경험 및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다. 최신 사례 중 20~30대 청년층의 뉴스 콘텐츠 이용 양상을 포

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분석한 심미선과 송현주·김유정(2015)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논술 시험이나 취업 준비 등 당장의 필요에 의해 뉴스를 보기 시작하는 청년·청소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돼 30대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뉴스 보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정된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는 뉴스를 접하는 습관을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 중학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2. 교육과정 개발 과정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문헌 및 자료를 검토·분석 및 종합해서 영역(대단원), 하위 영역(중단원), 교육목표, 성취기준, 내용요소 등을 대략적으로 추출한 교육과정 초안을 연구진이 준비했다. 그 후 자문회의를 총 6차례 갖고 교육과정 구성을 보완 및 정교화해 나갔다. 자문단은 자문회의에 참석해 1차적으로 구두로 의견을 주고, 자신이 발언했던 내용과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다음 자문회의 전까지 서면 의견서를 연구진에게 전달했다. 자문회의가 한 차례씩 끝날 때마다 연구진이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커리큘럼을 수정하고, 다음 자문단 회의에서 업데이트된 구성안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⁸⁾

자문회의는 총 3단계로 진행됐는데, 1단계(1~3차)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으로, 9명의 자문단 모두가 참여해 교육과정 구성과 방향성에

8) 자문회의에서 교육과정 구성 외에, 다음 장에서 다루는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데도 일부 시간을 할애했다.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2단계(4~5차)는 자문단 중 미디어교육 관련 교재 집필 경험이 풍부한 교사 2인(각각 중학교 국어과와 고등학교 사회과)과 언론인 출신 교수 1인, 현직 언론인이면서 교육학 분야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기자 1인, 이렇게 네 사람으로 자문단을 간추려서 교육과정의 세부적 조율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 6차 회의에서는 2단계에 참여했던 자문단 중 교사 2인이 커리큘럼에 쓰인 단어나 문장 등의 표현을 다듬고, 언론학 분야 비전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3단계 자문회의까지 모두 참여한 두 명의 교사는 이후에 연구진이 집필한 교육과정 개발 배경, 내용 해설 및 유의 사항 부분의 원고를 추가로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및 정교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대략적인 정보는 <표 3-3>에 제시하였다. 자문단을 선정하

<표 3-3>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자문단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비고
교사	원기중	신광여고	국어과, 신문방송학 석사
	강용철	경희여중	국어과, 미디어교육 관련 교재 다수 집필
	박한철	덕성여고	사회과, 미디어교육 관련 교재 다수 집필
기자	최상희	경향신문/인하대학교	교육학박사, 겸임교수, NIE 전문 (관련 교재 다수 집필)
학자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저널리즘 전공, 기자 경력
	김성해	대구대학교	저널리즘 전공, 언론재단 연구위원 경력
	이숙정	중앙대학교	청소년 연구
미디어교육 강사	김현경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경력 13년
	조진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경력 12년

주: 자문단 중 성명에 배경색이 들어간 4인은 2단계 자문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며, 그중 배경색이 더 짙은 교사 2인은 마지막 3단계 자문회의까지 참여했음. 배경색이 없는 5인의 자문단은 1단계 회의까지만 참여했음.

는 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적용하고자 했다. 첫째,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언론학 분야 학자,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언론인 등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둘째, 교사의 경우 미디어 교육 관련 경험 및 활동이 풍부한 사람을 섭외한다. 셋째, 연구진 3인(책임 및 공동연구원) 모두가 언론학·커뮤니케이션학 분야 전공자인 만큼, 학자들은 뉴스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되 연구진과 세부 전공 및 이력에서 중복이 적은 사람을 선택한다. 넷째, 언론인도 NIE나 미디어교육 관련 경험이 일정 정도 있는 사람을 찾는다. 다섯째, 미디어교육 강사는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을 섭외한다.

이상의 요건들을 기준으로 먼저 3배수 정도의 자문단 후보군 명단을 만들었다. 언론학자들은 연구진이 아이디어 회의를 열어 후보를 결정했고, 교사와 미디어교육 강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팀 실무자들에게서 후보를 추천받았다. 현직 언론인 자문단 후보에는 NIE 관련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여러 경로로 찾아 후보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구성된 자문단 후보들을 놓고 연구진이 회의를 거쳐 전문성, 후보 간 유사성 등을 고려해 9명을 최종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과목군 또한 뉴스 리터러시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회과와 국어과 담당 교사를 구분해 섭외했다. 학자들 3인은 모두 뉴스와 관련된 전공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대신, 각각 언론인 출신, 언론재단 연구위원 출신(미디어교육 및 뉴스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 청소년 연구 전문가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다.

3. 중·고등학생용 교육과정 시안

1) 총괄 목표와 핵심 성취 기준

앞장에서 관련 문헌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검토한 결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핵심 목표는 ‘시민성’ 함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을 시민성 함양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시민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민으로서 자질로 풀이되는 시민성은 시민의 자격 및 품격을 지칭하며,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이행을 전제한다(정문성 외, 2008). 그런데 시민성의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가 가능하다.

김우미(2009)에 따르면, 사회과 교육에서 추구해 온 시민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는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좋은 시민(good citizen)’으로,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상을 추구하고 애국심, 시민 의식과 같은 가치가 강조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둘째 ‘현명한 시민(informed citizen)’의 경우 시민의 지적 능력 및 지식 습득이 핵심이 되며, 사회과학적인 지식이나 탐구방법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시민(rational citizen)’은 성찰적 자세와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적이고 숙의적인 소통을 중요시한다. 조금 단순화해 정리하면, 이러한 세 가지 접근은 시민성의 차원들 중 각각 가치·태도, 지식, 기능 측면에 중심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식, 기능, 태도는 교육에서 모두 중요한 차원인 만큼,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도 이 세 가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일반적인 사회과 교과목들과는 달리 ‘뉴스’라는 공공적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지식과 기능 측면에서는 시민성이라는 일반적 개념보다는 뉴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학습목표가 필요하리

라 판단된다. 그러한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태도 차원에서 ‘참여적(participating)’이고 ‘관여적(engaging)’인 시민상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총괄 학습 목표를 “뉴스의 본질을 이해하고(지식 차원) 뉴스를 현명하게 소비(및 생산)하며(기능 차원), 이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사회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의 태도를 갖는다(태도 차원)”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 4개의 핵심 성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뉴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습관을 지닌다”, 둘째 “뉴스와 미디어 정보 속에 담긴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셋째 “뉴스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뉴스 유통·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민주시민으로서 뉴스가 다루는 사회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총괄 목표

- 뉴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뉴스를 현명하게 소비(및 생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사회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의 태도를 갖는다.

• 핵심 성취 기준

- 뉴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습관을 지닌다.
 - 뉴스와 미디어 정보 속에 담긴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뉴스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뉴스 유통·생산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 민주시민으로서 뉴스가 다루는 사회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조직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이 대표적이다(정현선·옥현진, 2010). 계속성은 중요한 요소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당 요소를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 배치하는 것이다. 계열성은 단순 반복을 넘어서서 시간이 흐를수록 수준이 높아지며 내용이 넓고 깊어지게끔 단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통합성은 한 교과 내용 요소들이 다른 교과 내용 요소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타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교과 내용에 반영하거나 반대로 해당 교과의 내용 요소를 학습하면 타 교과에 적용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다. 뉴스 리터러시는 사회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어과와도 연관성이 높은 범교과적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내용을 조직하는 데 적어도 통합성 요인은 일부러 신경써서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두 요인들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했다.

내용 체계를 조직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영역들을 선행 연구 및 기존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 추출하였다. 뉴스 이해,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뉴스 활용,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이렇게 총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교육과정의 대단원에 해당한다. 영역의 순서를 구성하는 데 계열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 뉴스 자체를 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단원 1에서 출발해 뉴스가 생산·유통·소비되는 전체 지형을 의미하는 뉴스 생태계, 그리고 이용자와 뉴스 콘텐츠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뉴스 미디어에 대한 이해에 관한 대단원 2, 뉴스의 내용과 뉴스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대단원 3, 끝으로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뉴스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인 대단원 4로 이어진다.

각 영역을 통해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개념과 지식, 지녀야 할 가치와

〈표 3-4〉 대단원별 핵심 내용 요소와 길러야 할 능력

영역	핵심 내용 요소	길러야 할 능력
뉴스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의 정의 • 뉴스의 필요성 • 뉴스 가치 • 뉴스 생산 과정 • 뉴스 보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의 정의 파악하기 • 뉴스의 필요성 인식하기 • 뉴스를 (안)보는 이유 조사하기 • 뉴스 가치 설명하기 • 뉴스와 유사 정보 구별하기 • 뉴스 생산 과정 조사하기 • 뉴스 보도 원칙 설명하기 • 좋은 뉴스의 조건 토의하기 • 뉴스의 품질 평가하기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생태계 구조 •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 뉴스 소비 심리 • 뉴스 이용의 개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생태계 구조 파악하기 • 뉴스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 인식하기 • 인터넷이 뉴스 생태계에 미친 영향 설명하기 • 포털·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 성찰하기 • '많이 보는 뉴스'와 '필요한 뉴스' 비교하기 • '낚시성' 제목의 기사 분석하기 • 뉴스 이용의 개인화 원인 분석하기 • 선택적 뉴스 노출 직접 관찰하기
뉴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와 내 관심사 • 뉴스와 내 미래 • 뉴스로 보는 사회 • 뉴스로 보는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시간 내 효율적 정보 탐색하기 • 탐색 정보의 사실성 확인·판단하기 •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분류·정리하기 • 뉴스를 통해 관심사 확장하기 • 뉴스를 통해 진로 탐색하기 •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 참여하기 • 글로벌 이슈로 관심 분야를 확장하고 참여 방법 모색하기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시민의 뉴스생산 참여 • 책임 있는 뉴스 소비자 • 뉴스와 개인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인과 일반 시민 작성 뉴스 비교하기 •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에서 드러난 문제점 성찰하기 • 뉴스 저작권 인식하기 • 댓글 예절 탐구하기 • 뉴스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조사·분류하기 •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토의하기 • 언론 피해 구제 절차 조사하기

태도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 요소들을 3~5개 뽑아냈다. 이들을 내용상의 계열성을 고려해 순서를 배치하고 각 대단원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대단원인 ‘뉴스 이해’에는 뉴스의 정의, 뉴스의 필요성, 뉴스 가치(news value), 뉴스 생산 과정, 뉴스 보도 원칙이라는 5개 하위 영역이 포함되고, 대단원 2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의 이해’는 뉴스 생태계 구조,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뉴스 소비 심리, 뉴스 이용의 개인화를 하위 영역으로 두고 있다. 대단원 3 ‘뉴스 활용’은 뉴스에서 내 관심사를 찾는 것에서 시작해 나의 미래(진로), 우리 사회, 세계로 그 차원을 확장하는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 단원인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책임 있는 뉴스 소비자, 뉴스와 개인의 권리라는 4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표 3-4〉에 제시된 ‘길러야 할 능력’은 각 영역별로 핵심 내용 요소들을 학습했을 때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관련 능력을 기능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를테면 ‘뉴스 이해’ 단원을 학습하면서는 뉴스의 정의 파악, 뉴스의 필요성 인식, 뉴스를 (안)보는 이유 조사, 뉴스 가치 설명, 뉴스와 유사 정보 구별, 뉴스 생산 과정 조사, 뉴스 보도 원칙 설명, 좋은 뉴스의 조건 토의, 뉴스의 품질 평가라는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야 하며, 또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기능들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시안 내용 - 학습목표, 내용요소, 학습활동 예시

이상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조직에서 ‘계열화’ 작업이었다면, 이하 내용은 ‘범주화’ 및 ‘세분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각 대단원별 핵심 내용 요소를 중단원으로 설정하고, 해당 중단원 주제를 학습하면서 습득해야 할 개념 및 지식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 요소들을 3~4개씩 추출하였다. 이러한 지식 습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학습목표를 기능 및 가

치·태도 차원에서 수립하였으며, 학습목표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자 학습과정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세부적인 능력에 해당하는 학습활동들을 예시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범주화해서 구성함에 있어 내용요소들의 계열성뿐만 아니라 계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시민성 함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요소로서 두 번째 중단원인 ‘뉴스의 필요성’에 ‘민주주의와 뉴스’를, 열한 번째 중단원 ‘뉴스로 보는 사회’에 ‘뉴스를 통한 사회문제 인식’ 및 ‘뉴스와 사회참여’를 포함시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참여적이고 관여적인 시민의 태도를 갖추는 데 기여코자 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총 16개의 중단원을 지식(내용요소), 기능 및 태도(학습목표 및 학습활동) 차원에서 범주화해 구성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시안을 완성했으며, 그 결과물은 <표 3-5>에 제시하였다. 이 커리큘럼은 총 17주로 구성된 중·고등학교 수업에서 한 주에 한 단원씩 진도가 나가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 34차시, 혹은 블록수업 17차시에서 주 2시간 혹은 축약해서 1시간씩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17주에서 남은 한 주는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정리하는 마무리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3-5〉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시안

1. 뉴스 이해

중단원	학습목표	내용(요소)	학습활동 예시
1. 뉴스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의 정의 • 뉴스 이용실태 • 뉴스 주제와 형식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생각하는 '뉴스'가 무엇인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 토의법, 연상법으로 확인해보는 뉴스에 관한 다양한 경험들(내가 뉴스를 보는/안보는 이유, 뉴스를 접하는 방식, 뉴스를 통해 얻게 되는 것, 기억에 남는 뉴스 등) •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뉴스 체험해보고 느낌 말하기
2. 뉴스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를 내 삶과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가 지니는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삶과 뉴스의 관계 • 뉴스의 사회적 중요성과 역할 • 민주주의와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이슈 찾아보기 •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이유와 안 보는 이유를 조사해보기 • 뉴스가 없는 세상을 가정해보고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론하기
3. 뉴스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뉴스와 뉴스유사정보를 분별할 수 있다. • 사람들이 같은 뉴스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가치 • 뉴스유사정보 • 이용자 편향에 따른 뉴스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와 뉴스유사정보 구별하기 • 같은 주제로 뉴스와 뉴스유사정보 메시지 각각 만들어보기 • 뉴스가치에 따라 신문1면(혹은 방송사 메인뉴스, 포털뉴스 메인페이지) 구성하기 • 뉴스기사의 핵심을 파악하고 다른 모둠과 비교하기
4. 뉴스 생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가 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미디어의 특성이 뉴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생산 과정 •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뉴스생산 •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뉴스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와의 대화(혹은 '언론사의 하루')를 통해 기자의 역할과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파악하기 • 동일한 이슈를 다룬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가능한 한 많이 검색해서 유사점과 차이점 찾아보기 • 수익구조 유형이 서로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내용 비교분석해보기 • 글만 있는 뉴스와 시각자료(사진/동영상)가 함께 있는 뉴스를 차례로 보고 차이점 말해보기
5. 뉴스 보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뉴스가 추구해야 할 기준들을 설명할 수 있다. • 뉴스 내용을 평가해 좋은 뉴스와 좋지 않은 뉴스를 분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의 규범적 원칙 •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내용과 그 문제점 • 탐사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뉴스기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뉴스와 가장 좋지 않은 뉴스를 각각 1개씩 뽑아서 그 이유 말해보기 • 객관적인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 좋은 뉴스의 조건 토의하기 • 뉴스의 품질 평가하기(정보원 평가 포함) • 좋은 탐사보도 기사를 찾아서 그것이 왜 훌륭한 기사인지 소개하기

II.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중단원	학습목표	내용(요소)	학습활동 예시
6. 뉴스 생태계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생태계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어뷰징 기사를 능동적으로 분별하여 이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생태계 구조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 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와 기사 어뷰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매체로서 인터넷포털, SNS 같은 새로운 플랫폼과 언론새(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아내기 같은 기사가 PC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에서 얼마나 다른 형식으로 제시되는지 비교해 차이점 찾아내기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로써 기사를 어뷰징한 사례를 찾아보고 유사성 비교하기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가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하기
7.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의 등장이가 저온 뉴스생태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뉴스 이용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이 가져온 뉴스의 양적 확대 전통 뉴스매체와 인터넷 뉴스매체의 차이 '가벼운' 뉴스소비 증가 뉴스이용자의 역할과 위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이신문과 언론사닷컴의 기사 양과 배치 방식 비교해서 차이점 말해보기 중이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과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의 뉴스 이용 비교해보기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 중 어떤 원칙이 더 중요한지 토론하기 포털과 모바일 중심의 '가벼운' 뉴스소비가 가져온 문제점에 대해 생각 나누기 뉴스이용자들이 뉴스생산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기
8. 뉴스 소비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의 차이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연성뉴스와 경성뉴스를 균형 있게 소비하는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털과 SNS의 뉴스 편집 뉴스 제목의 중요성 확대와 '낱시성' 제목 문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연성뉴스)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경성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털에서 여러 형태로 추천된 뉴스를 찾아서 내 관심사와 일치도 비교해보기 제목만 보고 기사 내용 상상해보고 후 실제 기사 내용과 비교해보기 기사 내용 보고 제목 뽑아보기 '낱시성' 제목이 붙은 기사 찾아서 올바른 제목 붙여보기 경성뉴스와 연성뉴스 기사를 각각 찾아서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기
9. 뉴스 이용의 개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이용의 개인화 원인을 현재의 뉴스환경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뉴스이용의 개인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맞춤형 뉴스서비스 뉴스 큐레이션 선택적 뉴스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과 모둠의 SNS 타임라인을 비교해보고 SNS 뉴스의 특성 파악하기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하나를 이용해보고 포털뉴스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기 하나의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쓴 기사들 중 각자 마음에 드는 기사를 선택해보고 그 이유를 말하게(태도, 입장 등에 따라 기사 선택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 뉴스이용이 점차 개인화 되는 것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기

III. 뉴스 활용

중단원	학습목표	내용(요소)	학습활동 예시
10. 뉴스와 내 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를 통해 관심사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를 활용한 관심사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분야 선정 후 자신이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가능한 형태로 정리해보기 주어진 키워드에 대해 뉴스를 검색, 스크랩하여 강사가 제시한 질문에 답하기 평소 관심이 적었던 영역에 관련된 양질의 기사를 선택해서 읽고, 배운 것을 요약하기
11. 뉴스와 내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를 통해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련 정보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 정보서치 및 스크랩 기술 정보 탐색에서 사실확인의 중요성과 방법 검색된 정보의 분류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를 활용한 진로 탐색 평소 흥미를 갖고 있는 직업, 그와 관련된 업체나 그 직업 종사자에 관한 뉴스를 찾아서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하기 롤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선택해 자료를 모아 스크랩하고, 롤모델로 삼은 이유 이야기하기 뉴스에서 전공분야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서 분류 및 정리해보기
12. 뉴스로 보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를 통한 사회이슈 인식 뉴스에서 지역사회의 이슈를 찾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뉴스기사에 제시된 갈등을 담은 사회이슈에 대한 해결책 평가하기 뉴스에 나타난 공인(정치인, 공무원)의 모습을 찾아내고 평가하기 뉴스에 나타난 우리나라 정치·사회제도에 대해 공부한 후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13. 뉴스로 보는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각종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계시민(global citizen)으로서의 바람직한 의식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와 글로벌 이슈 신문의 국제면 혹은 인터넷 뉴스사이트의 국제 섹션에서 기사별 대상국, 주제, 공급원을 찾아서 집계해보기 뉴스를 통해 환경, 빈부격차, 에너지, 전쟁과 테러 등 전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찾아보고 참여방법 생각해보기 법자구적 참여를 이끌어낸 캠페인 사례에 관한 정보를 찾아 성공 이유 분석하기

IV.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중단원	학습목표	내용(요소)	학습활동 예시
14.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민들의 뉴스생산 참여 확대가 주는 사회적 의미와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 뉴스소비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뉴스참여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소양을 함양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참여 저널리즘 일반시민의 뉴스생산 참여 확대 뉴스 공유 및 전파의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민이 쓴 뉴스(블로그, SNS 등)를 찾아서 평가하고 전문 언론인이 작성한 기사와 차이점 비교하기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가지는 장점과 위험성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 SNS상에서 잘못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정된(혹은 되지 못한) 경우를 찾아보기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뉴스를 공유하고 타인과 토론하기
15. 책임 있는 뉴스 생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의 이용, 공유, 전파, 생산 과정에서 책임과 예절을 익히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 공유/전파/작성 전 사실확인의 중요성 뉴스 저작권 뉴스댓글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를 2차적으로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저작권 준수 여부를 판단해보기 뉴스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사례(기사전문 게재 등)와 잘 지킨 사례 찾아보기 악플과 좋은 댓글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토론해보고, 각각의 사례들을 찾아보기 악플 때문에 생긴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유형별로 특징 파악하기 책임 있는 뉴스생비자로서 뉴스 이용, 공유, 전파, 생산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보기
16. 뉴스와 개인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에서 어떻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뉴스로부터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상에서 개인 정보/프라이버시 침해 개인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기자 윤리강령, 재난 보도준칙 등 권리 침해시 대처 방안: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를 통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사례 찾아보기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서로 충돌하는지에 대해 생각 나누기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언론피해 유형 및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 찾아서 내용 정리해보기

4) 교사 및 교재 개발자를 위한 교육과정 내용 해설 및 유의 사항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교육과정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재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내용 해설을 제공하고,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내용에 대한 해설은 중단원별로 이뤄졌으며,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습목표, 내용 요소, 학습활동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은 대단원 단위로 구성해 각 대단원에 포함된 중단원별 내용 해설이 끝나는 위치에 배치했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은 대단원이나 중단원이 아닌 전체 교육과정용으로 고안했고, 4개 대단원의 내용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다음에 따로 소절로 구성했다. 각 중단원별 내용 해설에 포함된 개념이나 용어는 목록만 제시하고(내용 설명이 위치한 페이지 번호 포함),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해) 소개와 함께 뒤에 독립된 절로 배치했다.

(1)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내용 해설

1. 대단원 1: 뉴스 이해

1. 뉴스의 정의

- 학습목표: 뉴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요소: 뉴스의 정의, 뉴스 이용실태, 뉴스 주제와 형식의 다양성

이 단원은 본 학습이 시작되기 전 준비단계로, 학생들이 뉴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딱딱함, 무거움, 진지함, 엄숙함, 재미없음 등)을 깨고 뉴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를 북돋아주려는 목적에서 구성되었다.

우선 ‘뉴스’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뉴스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습활동 예시로 제시돼 있듯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뉴스의 개념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친구들과 비교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뉴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 뉴스라는 개념의 정의, 뉴스의 범위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뉴스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이때 ‘뉴스’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스포츠와 같은 분야 말고도, 뉴스에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둔다(이는 ‘뉴스의 정의’와도 ‘뉴스 주제의 다양성’과도 관련이 있음).

학습한 뉴스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과 친구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사례 분석 중심의 토의 방식(생선가시토의법, 마인드맵 등)으로써 알아보게 한다. 자신이 뉴스를 보는 혹은 보지 않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후 청소년, 나아가 일반 시민들이 뉴스를 얼마나,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있는 최신 자료를 보여 주는 것으로 뉴스 이용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뉴스 주제와 형식의 다양성’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최신의 뉴스 트렌드(뉴스 게임, 인터랙티브 뉴스, 로봇 저널리즘, 카드 뉴스 등)를 간략히 소개해 주고 그중 일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뉴스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51~155쪽) : ‘뉴스’에 대한 정의, ‘뉴스’의 주제 범위, 뉴스 이용 실태, 뉴스 게임(news game), 인터랙티브 뉴스(interactive news), 로봇 저널리즘(robot journalism), 카드 뉴스(card news)

2. 뉴스의 필요성

- 학습목표
- 뉴스를 내 삶과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가 지니는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내 삶과 뉴스의 관계, 뉴스의 사회적 중요성과 역할, 민주주의와 뉴스

이 단원은 뉴스가 개인과 사회 둘 다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보 유형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구성되었다.

일차적으로, 뉴스가 자신의 삶과 매우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하게 한다. 중·고등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슈(예: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교폭력, 진학 및 진로)를 다룬 뉴스 기사를 보여 주고, 이러한 보도로 인해 사람들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에서 나아가 관련 정책 마련 등 구체적인 변화가 발생한 정황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⁹⁾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이슈를 뉴스 속에서 직접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관련성이 높은 문제들이 뉴스 보도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뉴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사해 오도록 독려)에게 뉴스를 보는 이유와 잘 보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게 하는 것은 수업 활동보다는 과제 활동으로 더 적절하다. 뉴스가 어떤 필요와 목적 때문에 소비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뉴스가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알고자 하며(정보 추구 욕구), 뉴스라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그러한 환경 감시 기능에서 핵심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9) 이러한 사례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 홍성일(2014)을 참조하기 바란다. 오장풍 교사 사건(19~24쪽)과 알바 잔혹사(26~27쪽) 등이 소개돼 있다.

환경 감시 외에 언론 및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들(감시견/제4부¹⁰⁾, 사회 통합, 상관조정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라는 ‘공적 정보’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우리 사회의 정치 제도인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특성상(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 간접적인 통치가 이뤄짐) 정치 및 정치인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또 제대로 제공받는 것이 필수이며,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언론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뉴스가 없는 세상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뉴스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학생들의 뉴스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학습활동은 수업의 초반부보다는 뉴스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고 난 후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55~156쪽): 환경 감시 기능, 감시견 및 제4부, 사회 통합 기능, 상관조정 기능

3. 뉴스 가치(news value)

- 학습목표
 - 뉴스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뉴스와 뉴스 유사 정보를 분별할 수 있다.
 - 사람들이 같은 뉴스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뉴스 가치, 뉴스 유사 정보, 이용자 편향에 따른 뉴스 수용

10) 언론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은 제4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용어다.

이 단원을 통해서 뉴스의 다른 정보 유형들과 구별되게 해 주는 뉴스 가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스를 유사 정보로부터 가려내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스 가치는 보통 뉴스 생산자들(언론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뉴스 소비자들도 또한 나름의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뉴스를 수용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같은 뉴스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수많은 정보들 중 어떤 것이 뉴스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들, 즉 뉴스 가치를 구성하는 요인들로 뉴스의 보편적 가치 속성들(영향성,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신기성, 갈등성 등), 언론사 내부의 저널리즘적 판단, 수용자에 대한 고려, 이윤과 경쟁 등에 관해 설명한다.

광고, 선전, 홍보, 보도 자료, 엔터테인먼트 정보, 비공개 정보 등 뉴스와 유사해 보일 수 있는 정보 장르들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뉴스와 구분되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준다. 이를테면, 홍보 문건의 경우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홍보하려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뉴스기사, 홍보 자료, 보도 자료 등을 준비해 학생들이 하여금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뉴스와 뉴스 유사 정보를 구별하는 연습 기회를 갖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뉴스 기사와 홍보성 문건의 메시지를 각각 짧게 작성해 보게 하는 것도 정보 분별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보도와 광고·홍보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티브 광고(native ad), 브랜드 저널리즘(brand journalism), 스폰서 콘텐츠(sponsor content) 등의 사례를 찾아 보여 주면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뉴스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한 것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성격이 매우 다른(주제 분야, 주요 관련 인물 등의 측면에서) 기사들을 몇

개 준비해 신문 1면 혹은 방송사 메인 뉴스나 포털 뉴스 메인 페이지를 구경해 보는 실습을 권장한다. 이러한 활동에서 나온 결과물을 모둠과 비교해보게 함으로써 개인마다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몇 개의 뉴스기사에 대한 핵심 내용을 파악해 모둠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통해 수용자 편향(audience bias)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57~159쪽): 뉴스 가치, 보도 자료, 네이티브 광고, 브랜드 저널리즘, 스폰서 콘텐츠, 수용자 편향

4. 뉴스 생산 과정

- 학습목표
 - 뉴스가 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미디어의 특성이 뉴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뉴스 생산 과정,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뉴스 생산,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뉴스 구성

이 단원은 언론(인)이 뉴스를 생산하는 세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뉴스에 더욱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직업인으로서 언론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에서 구성되었다. 더불어 언론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이 뉴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즉,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뉴스 생산)을 인식하고,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뉴스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이다.

언론사의 뉴스 생산 과정은 한마디로 ‘게이트키퍼(gate-keeping)’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파악할 수 있도록 현직 기자를 초청해 ‘기자의 하루 들여다보기’, 기자 초청이 어렵다면 언론사의 하루 일정을 흥미롭게 구성해 보여 주는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기자 초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언론인이 직접 작성한 기사 몇 개를 사례로, 해당 기사가 어떤 단계를 통해 최종 보도에 이르렀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게이트키퍼를 이해하는 데는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에는 유력 정치 인사(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부 기관, 대기업 홍보 담당자와 같이 전통적으로 언론의 주요한 정보원 역할을 해 온 주체들, 언론사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요 광고주들 등이 포함된다.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주체들의 힘을 의식해 언론사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는 등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뉴스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 보도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한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뉴스 생산을 위해 언론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재 관행들(출입처 제도, 보도 자료, 뉴스통신사 활용)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게이트키퍼 과정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면서 뉴스의 생산은 기사를 쓴 기자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취재기자과 데스크,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의사 결정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보도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동일한 이슈를 다룬 여러 언론사의 기사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검색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보도 방향이 같거나 달라지는 현상을 직접 확인하게 한다.

언론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광고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언론사의 수익구조가 보도, 나아가 광고 형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익구조에 따라 언론사들을 유형화해 보여 준 후(예: 수신료 기반 공영방송 KBS, 민영방송 SBS, 신문방송 겸영 조선일보·TV조선, 국민주 신문 한겨레, 협동조합 언론사 프레시안 등), 그중 대표적인 언론사 몇 개를 선정해 이들이 동일한 이슈에 대해 보도한 기사들을 학생들에게 주고 비교 분석해 보게 한다. 더불어 앞 단원에서 살펴본 광고·홍보와 콘텐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예: 네이티브 광고, 브랜드 저널리즘, 스폰서 콘텐츠 등)이 언론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악화된 광고수익을 만회하기 위한方便임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뉴스 생산 과정에서 뉴스가 전달되는 매체(예: 텍스트 기반의 신문, 시청각 매체인 TV 등)의 고유한 속성에 따라서 뉴스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고,¹¹⁾ 특히 시각 자료가 지니는 강력한 힘을 학생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학습활동 사례로 제시돼 있듯이, 텍스트와 더불어 사진, 동영상 같은 시각 자료가 함께 있는 뉴스 기사를 준비해 텍스트 부분을 먼저 보여 준 뒤 시각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게 하고, 두 조건의 차이를 비교해서 말하게 하는 활동이 추천할 만하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다른 사람의 멘트를 통한 전달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효과가 있는 만큼 흔히 진실에 더 가깝다고 인식되곤 하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조작된 사진, 동영상으로 보도 내용을 왜곡한 사례를

11) 홍성일(2014)은 TV와 신문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뉴스 구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TV는 화재 실상과 소방관의 분투 모습을 보여 주는 화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신문은 화재가 발생한 원인,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기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치인 인터뷰를 기사화할 때 TV에서는 표정, 몸짓, 말투 등이 부각될 여지가 많은데 비해, 신문은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고 해석하는 데 주력할 확률이 높다.

찾아서 보여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60~163쪽): 게이트키퍼, 위축 효과, 출입처 제도, 뉴스통신사, 데스크,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국민주 언론사, 협동조합 언론사

5. 뉴스 보도 원칙

- 학습목표
 - 바람직한 뉴스가 추구해야 할 기준들을 설명할 수 있다.
 - 뉴스 내용을 평가해 좋은 뉴스와 좋지 않은 뉴스를 분별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뉴스의 규범적 원칙,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내용과 그 문제점, 탐사보도

이 단원을 통해서는 바람직한 뉴스 보도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차원의 가치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뉴스기사의 내용을 평가해 좋은 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한다.

이러한 규범적 원칙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안돼 왔으나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등이 대표적인 원칙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를 간략히 소개해 주고, 해당 가치를 잘 준수하고 있는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사례로 보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다.

뉴스 보도의 규범적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포장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몸을 사리는 전략적 선택에 해당하는 객관주의 저널리즘, 기계적 중립성의 의미와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객관적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 토론하기, 좋은 뉴스의 조건 토의하기와 같은 학습활동을 통해 규범적 뉴스 보도 원칙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몇 개의 뉴스기사들을 준비해 가장 좋다고 생

각되는 뉴스와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뉴스를 하나씩 선택해 그 이유를 말해 보게 함으로써 보도 규범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 더해 원칙의 실질적인 적용 훈련 기회로 활용한다.

뉴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는 앞서 제시된 규범적 원칙들 외에도 정보원·취재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원 평가 기준들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준 후 이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 몇 개를 주고 정보원 평가를 포함한 뉴스 품질 평가를 학생들 스스로 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는 ‘시의성’이 중요한 정보 유형이라는 점에서 ‘속보성’의 가치가 매우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심층성’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다. 언론사 간 속보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심층 보도가 선호되고 있지 않으나, 뉴스의 품질 측면에서 보면 심층성을 갖춘 보도야말로 바람직한 보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심층 보도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탐사보도’를 사례와 함께 소개하되, 특히 이러한 탐사보도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 주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로 하여금 품질 높은 탐사보도 기사를 직접 찾아 그것이 왜 훌륭한 기사인지를 소개하게 하는 것도 탐사보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관련 개념 및 용어 (163~165쪽):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객관주의, 저널리즘, 기계적 중립성, 정보원 평가 기준, 탐사보도

〈대단원 1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 사항〉

대단원 1은 뉴스 자체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다른 대단원들에 비해 다루는 내용 또한 많은 편이다. 이 단원을 학습하는 동안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흥미를 갖지 못하면 이후 진행될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주요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념의 설명에는 반드시 사례를 풍부하게 들고, 가능한 한 시각 자료를 많이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스마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 중단원 1의 새로운 형식의 뉴스(예: 인터랙티브 뉴스, 뉴스 게임, 카드 뉴스) 체험해 보기와 같은 활동에는 스마트 기기가 필수다. 이때, 단순히 최신 뉴스 형식을 보여 줘 흥미를 끄는 데만 그치지 말고, 왜 이런 포맷의 뉴스가 등장했으며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또한 다양한 활동 중심 교수학습방법 및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학습활동의 주제에 맞는 뉴스 기사를 찾아 선별하고 평가하는 데 직소 모듬 활동을 하거나, 모듬별로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마인드맵 그리기 또는 개념도 그리기 활동과 연계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하는 활동의 경우(예: 뉴스를 보는/안 보는 이유), 생선가시토의법, 마인드맵 등의 사례 분석 중심 토의 방식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는 발표 학습으로 이어지게 한다.

중단원 2의 내용 요소들 중 ‘민주주의와 뉴스’는 교사의 강의가 주가 되고 학습활동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때문에 뉴스가 없는 세상을 가정해 보고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 마무리 활동에서 뉴스가 없다면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학생들이 성찰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단원 4의 뉴스생산 과정의 경우, ‘기자와의 대화’ 혹은 ‘언론사의 하루’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역할극과 같은 형식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단원 4에서 언론사의 수익구조가 뉴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면서, 자칫 언론사들이 수익에 대한 편향성과 의존성이 너무 강해 뉴스 자체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구조가 유사한 언론사들 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수익구조 외에도 다양한 층위의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뉴스가 생산되기 때문에 수익구조는 그저 하나의 영향 요인일 뿐이라는 점, 언론인들에게는 ‘윤리강령’이 있고 소명의식 또한 강하다는 점 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단원 5에서 객관주의 저널리즘, 기계적 중립성의 의미와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 특히 중학생 수준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쉽고 명확한 예를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¹²⁾

II. 대단원 2: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6. 뉴스 생태계 구조

- 학습목표
 - 뉴스 생태계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어뷰징(abusing) 기사를 능동적으로 분별하여 이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요소: 뉴스 생태계 구조,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 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와 기사 어뷰징

12) 국어과 7차 교육과정에 중학교 3학년용으로 ‘신문과 진실’이라는 글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는 고도의 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 연구의 교육과정 개발에 자문을 담당한 경희여중 강용철 교사가 실제 이것을 가르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경험을 연구진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 단원의 목표는 오늘날의 뉴스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이 부상하게 된 원인과 그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플랫폼 중심의 뉴스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인 기사 어뷰징의 실체를 인식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뉴스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전체 공간을 의미하는 뉴스 생태계에서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생산과 유통의 분리라 할 수 있다. 과거 언론사들은 뉴스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직접 담당했던 반면, 현재는 뉴스 유통의 많은 부분을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플랫폼이 맡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포털이며, 적어도 국내에서는 포털이 뉴스 유통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SNS 또한 새로운 뉴스 유통 및 소비 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이다. 결국 기존 언론사들은 포털이나 SNS 같은 지배적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 뉴스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뉴스 생태계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학생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예(네이버, 페이스북 등에 대한 의존도 증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뉴스 매체로서 포털, SNS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지닌 특성을 기존 언론사(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와 비교해 보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한 뉴스 플랫폼의 역할 및 위상 변화와 함께 오늘날 뉴스 환경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뉴스를 접하는 단말로서 모바일 기기의 부상이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모바일로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이제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를 넘어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나아가 ‘모바일 온리(mobile only)’로 뉴스룸이 변화하는 추세다. 이처럼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뉴스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동일한 기사가 PC와 모바일 인터넷에서 얼마나 다

른 형식으로 제시되는지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통해 모바일 뉴스가 갖는 특성을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기사 어뷰징(동일 기사 재전송)을 들 수 있다. 검색을 통해 기사에 노출하는 비중이 높고 페이지뷰를 기준으로 광고단가가 결정되는 온라인 뉴스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언론사들이 기사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주제(즉,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해 뉴스 기사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거의 동일한 기사를 제목만 살짝 바꿔서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어뷰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털은 기사 클러스터링(clustering)과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어뷰징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 어뷰징의 의미와 실체를 사례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실시간 검색어를 포털에 입력해 실제 어뷰징 사례를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한다. 단순한 실태 확인을 넘어서서 포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뉴스를 포함한) 콘텐츠 유통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검색어’가 필요한지 토론을 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66~168쪽): 뉴스 생태계, 뉴스 플랫폼,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와 모바일 온리, 뉴스룸, 기사 어뷰징, 기사 클러스터링

7.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 학습목표
 - 인터넷의 등장이 가져온 뉴스 생태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인터넷 시대에 뉴스이용자의 역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인터넷이 가져온 뉴스의 양적 확대, 전통 뉴스 매체와 인터넷

뉴스 매체의 차이, ‘가벼운’ 뉴스 소비 증가, 뉴스 이용자의 역할과 위상 변화

이 단원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한 뉴스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같은 맥락에서 뉴스 이용자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발생한 뉴스 생태계의 변화는 뉴스의 양적 팽창이다. 신문, 방송과 같이 시·공간의 제약이 두드러진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공간에는 뉴스 기사를 무제한에 가깝게 업로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등장 이후 언론사의 개수가 폭증했을 뿐만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기사의 양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다. 기존 언론사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판(언론사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의 양적 팽창은 곧 정보 과부하나 정보 홍수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인터넷 등장 이후에 벌어진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사실 전달 차원에서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인터넷이 가져온 뉴스 매체의 변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통 뉴스 매체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 뉴스 매체가 지닌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종이 신문과 그 인터넷판인 언론사닷컴의 기사 양과 배치 방식을 비교해 차이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한다. 종이 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과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의 뉴스 이용 패턴을 조사해 비교해 보는 과제 활동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스 환경의 변화는 언론사 간 속보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이기도 하다.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전이더라도 일단 확인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써서 게재하고,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이전 기사를 업데이트하거나 후속 기사를 작성해 보완하는 방식의 보도 관행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오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규범적 보도 원칙의 핵심으로 간주돼 온 정확성(정확한 정보)이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부상한 속보성(빠른 정보)과 경쟁을 하게 된 상황에서(즉, 정확성과 속보성의 패러독스), 둘 중 어떤 가치가 뉴스 보도에서 더 중요한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한 뉴스의 양적 증가, 속보성 가치의 부상이 스마트폰 확산과 맞물리면서 뉴스보기는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활동이 아닌 자투리 시간 활용 활동으로 점차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 별도로 시간을 내 뉴스를 보더라도 한 언론사의 기사를 집중해 보거나 개별 기사 하나 하나를 찬찬히 보기보다는 여기저기 내지 이 기사 저 기사를 옮겨 다니며 대략 훑어보는 뉴스 보기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유목형’ 뉴스 읽기, 또 앞서 언급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뉴스읽기는 곧 뉴스 이용의 파편화와 피상화를 의미한다. 이렇듯 ‘가벼운’ 뉴스 소비의 증가가 어떤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토론 활동을 권장한다.

인터넷으로 인해 뉴스 영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뉴스 이용자의 역할과 위상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 몇몇 언론사와 그에 소속된 언론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뉴스 생산 및 유통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기술적 환경에서는 원하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물론 가능한 것과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일반인들이 직업 언론인들만큼 뉴스를 전문적으로 많이 생산한다는 의미는 아님). 즉, 뉴스 이용자는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뉴스 생비자로 입지가 바뀐 것이다. 일반인들의 뉴스 생산 및 유통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단원 14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이 단원에서는 인터넷 기반 뉴스 생태계에서 이용자의 역할이 어떻게 또 얼마나 확대됐는지, 그리고 이들이 뉴스생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가 탐구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68~170쪽): 정보 과부하와 정보 홍수, 언론사 닷컴, 정확성과 속보성의 패러독스, 유목형 뉴스 읽기, 뉴스 생비자

8. 뉴스 소비 심리

- 학습목표:

-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의 차이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를 균형 있게 소비하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요소: 포털과 SNS의 뉴스 편집, 뉴스 제목의 중요성 확대와 낱시성 제목 문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연성 뉴스)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경성 뉴스)

이 단원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가 오늘날의 뉴스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러한 뉴스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고, 나아가 이 둘을 균형 있게 소비하는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해 구성되었다.

중단원 6에서 다뤘듯이 오늘날에는 포털과 SNS가 뉴스 유통 및 소비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정보를 정렬해 제시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추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했거나(‘많이 본 뉴스’), 댓글이 많거나(‘댓글 많은 뉴스’), 추천이나 공유 내지 공감 표현을 많이 했거나(‘추천 많이 한 뉴스’, ‘좋아요’ 누르기, 리트윗) 하는 뉴스기사들은 이용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채 제시됨으로써(직· 간접적 추천) 결과적으로 더 많은 클릭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개인

이용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뉴스기사 선택(그리고 공유)이 이제는 자신의 뉴스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특히 정보 과부하가 특징인 오늘날의 뉴스 환경을 고려해 보건대, 이러한 방식의 집합적 추천은 이용자들이 어떤 뉴스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꽤 편리하고 유용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의 이용에 기반을 둔 뉴스 추천은 언론인이 아닌 일반 뉴스 소비자들의 행동 결과로 뉴스에 읽을 가치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제 설정자 역할이 언론인에게서 일반인들에게 일부나마 전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포털이나 SNS에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형태로 추천되는 뉴스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주제보다는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포털과 SNS 뉴스 편집 방식의 기본 메커니즘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집합적 뉴스 추천이 갖는 양면적 의미를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돕는 활동으로, 포털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추천된 뉴스(‘많이 본 뉴스’, ‘추천 많이 한 뉴스’, ‘댓글 많은 뉴스’ 등)를 찾아서 자신의 관심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보고, 또 얼마나 흥미 위주의 소재로 구성돼 있는지 분석해 보게 한다.

하이퍼텍스트 내지 하이퍼미디어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서는 뉴스의 제목과 본문이 서로 다른 페이지에 위치하게 된다(종이 신문의 경우 같은 면에 제목과 내용이 함께 제시됨). 뉴스 사이트의 시작 페이지에는 헤드라인만 목록으로 제시돼 있고, 기사 내용은 해당 헤드라인을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구성이다. 인터넷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인터넷 환경이 가져온 정보량 급증, 그리고 페이지뷰 중심의 온라인뉴스 시장구조가 맞물리면서 오늘날에는 뉴스의 제목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중요해졌다. 뉴스 제목이 이용자의 클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되면서 클

릭 유도를 위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선정적 헤드라인을 붙이는 ‘낚시성’ 제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로 앞 단원에서 다룬 ‘가벼운’ 뉴스 소비에 해당하는 ‘제목 소비자(headline shopper)’의 증가 또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뉴스 제목의 중요성과 낚시성 제목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쉽게 설명한 뒤, 학습활동 사례로 제시된 제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습들, 즉 제목만 보고 기사 내용을 먼저 상상해 본 후 실제 기사 내용과 비교해 보기, 기사 내용을 보고 제목 뽑아 보기, 낚시성 제목이 붙은 기사를 찾아올바른 제목 붙여보기와 같은 활동을 하게 한다. 이 외에도, 자신이 낚시성 제목의 뉴스를 실제로 접한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등의 활동도 흥미로울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뉴스는 인간적 흥미를 다룬 연성 뉴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경성 뉴스는 사회적 중요성은 높는데 비해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은 유형은 아니다(용어·개념 설명 중 1단원의 ‘뉴스 이용 실태’ 참조). 그러나 정치나 경제, 국제와 같은 주제를 포괄하는 경성 뉴스의 경우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임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좋아하는 뉴스(연성 뉴스)를 보는 것 자체는 잘못되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만 좋아하는 뉴스와 함께 필요한 뉴스(경성 뉴스)를 균형 있게 소비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로 하여금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 기사를 각각 찾아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게 함으로써 두 뉴스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성 뉴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70~173쪽): 의제설정,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

어, ‘낱시성’ 제목, 제목소비자,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

9. 뉴스 이용의 개인화

• 학습목표

- 뉴스 이용의 개인화 원인을 현재의 뉴스 환경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뉴스 이용의 개인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개인 맞춤형 뉴스 서비스, 뉴스 큐레이션(curation), 선택적 뉴스 노출

이 단원에서는 뉴스 이용이 점차 개인화(혹은 개인맞춤화) 되고 있는 현상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현재의 뉴스 환경이 지니는 특성과 연계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뉴스 이용의 개인화 경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과거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신문과 방송 중심의 소수 언론사들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뉴스를 제공했었다. 예를 들어, KBS <9시뉴스> ○월 ○일 자 뉴스는 해당 날짜에 TV를 켜서 KBS1 TV를 틀어야만 볼 수 있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제 생산된 모든 뉴스는 포맷(텍스트,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에 관계없이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형 기기를 통해 시공간 의 구애 또한 받지 않고 접근이 가능해졌다.

기술의 발달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필터링 및 개인맞춤형 정보노출 장치들(이메일 뉴스레터, RSS 피드, 팔로잉·팔로어, 뉴스스탠드 등)을 탄생시켰는데, 이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뉴스만을 선별해 받아볼 수 있도록 사전에 쉽게 설정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도적 설정과는 별개로, 뉴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도 특정 이용자의 이전 기사 선택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그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기사를 자동 추천하거나, 그의 온라인상 관계

망(대표적으로 SNS) 속 사람들이 선택 내지 선호하는(‘좋아요’ 표시와 같은 형태로) 기사를 보여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뉴스 이용 및 그와 관계된 유사 이용자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맞춤형 뉴스 이용 현상과 그 원인을 사례(가능하면 시각 자료 활용)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로 인해 동일한 서비스(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의 채널 등)를 이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콘텐츠에 노출하게 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과 모둠의 SNS 타임라인을 비교·분석하게 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때 자신의 SNS 타임라인(혹은 이메일 뉴스레터, RSS 피드, 뉴스스탠드 등의 개인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을 분석하면서 좋아하는 뉴스만 선택적으로 받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뉴스 주제·분야 편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스스로 점검하는 활동을 함께할 것을 권장한다.

뉴스 큐레이션 또한 개인맞춤형 뉴스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큐레이션이란 수많은 콘텐츠를 수집해 일정한 기준으로 선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재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후 제공하는 고도의 편집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 개인별로 다른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예: 뉴스페퍼민트, 뉴스퀘어)의 경우,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보다는 강력한 의제설정 내지 게이트키퍼 기능이 중심이 된다. 이에 비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매거진 형태로 직접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립보드, 이용자가 설정한 관심 영역 가운데서 정보를 추천하고 자신의 취향대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핀터레스트와 같은 대표적 큐레이션 서비스들은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의 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몇 개의 사례를 보여 주고, 학생들이 이 큐레이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선택해 이용해 보게 한 후 지

배적 뉴스 플랫폼인 포털 뉴스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게 하는 활동을 추천한다.

사람들이 하나의 이슈나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선택을 할 때는 이념적으로 균형 잡힌 노출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존 태도나 성향, 가치관 등에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편향이 있으며, 이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라 불려 왔다. 지금의 뉴스 환경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선택적 뉴스 노출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에게 선택적 노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학습활동으로 먼저 체험하게 하는 것이 개념 이해에 있어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즉, 하나의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쓴 몇 개의 기사들을 주고 각자 마음에 드는 기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후 그 이유를 말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개인의 입장, 태도에 따라 기사 선택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뉴스 이용의 개인화 경향과 그것을 용이하게 하는 기제들에 관한 학습을 바탕으로, 이러한 개인화된 뉴스 이용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가장 핵심적 문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정보에 노출할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임). 이때 학생들의 원활한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개인맞춤형 뉴스 소비의 부작용인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같은 개념 소개가 도움이 될 것이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73~175쪽): RSS, 팔로잉(following)과 팔로어(follower), 뉴스스탠드, 뉴스 큐레이션, 선택적 노출, 필터버블

〈대단원 2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 사항〉

대단원 2는 뉴스와 이용자가 만나는 접점인 ‘미디어’, 좀 더 나아가 뉴스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포털, SNS, 모바일과 같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심리적 저항감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에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면의 특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까지 알아야만 현명하고 합리적인 미디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 포함된 학습활동에는 평소 자신의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경험에 근거해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이다(예: 포털 ‘실시간 검색어’의 필요성 토론, 포털과 모바일 중심의 가벼운 뉴스소비의 문제점 토론, 포털 추천 뉴스와 내 관심도 비교, 자신과 모둠의 SNS 타임라인 비교). 이때 관련 경험이 없거나 적은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예를 들어, 포털사이트, SNS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 이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탭, 주요 SNS의 메뉴구성과 특성 등을 시각 자료로 준비해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단원에는 또한 뉴스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찰적 토론 활동들이 많이 배치돼 있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필요성,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 원칙 비교, 포털·모바일 중심의 가벼운 뉴스 소비의 문제점, 뉴스 이용의 개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생들에게 다

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피상적 토론에 그치게 될 위험이 있다.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하려면 우선 관련 내용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강의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토론 과정 동안 학생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 교사가 적절한 키워드나 질문을 제시해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단원 1과 마찬가지로 이 단원에서도 활동 중심의 여러 가지 교수학습방법 및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직소 모듬 활동, 모듬별 프로젝트 학습 등은 특히 토론에 적합하며, 그 결과물으로써 마인드맵이나 개념도를 그려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1단원에서처럼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하는 활동(예: 종이 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과 모바일·PC로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의 뉴스 이용 비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 후 포털 뉴스와 비교)은 사례분석 중심 토의방식으로써 결과물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 학습과 연계한다.

Ⅲ. 대단원 3: 뉴스 활용

- 공통 내용 요소: 효율적 정보 서치 및 스크랩 기술, 정보 탐색에서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방법, 검색된 정보의 분류와 정리

본 대단원은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국내 미디어교육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온 NIE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관심사에서 시작해 글로벌 이슈로까지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뉴스의 내용을 통해 여러 층위의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북돋아주는 것이 이 대단원 전체의 1차적 목표다.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 미디어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익히고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단위이기도 하다. 요컨대, 본 대단원을 통해서 뉴스 콘텐츠와 뉴스 미디어 활용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대단원의 특성상 4개 중단원의 수업은 공통적으로 위에 제시된 세 가지 내용 요소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학습활동 위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보관(스크랩)하는 기술, 검색된 정보의 분류와 정리의 경우, 기존에 출간된 NIE 관련 교재 등을 참조해 교사가 자신만의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정보 서치 및 정리에는 훌륭한 교육 자료만큼이나 실습을 많이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점을 엄두에 두고, 가능하면 학생들 스스로 많이 찾아보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시행착오를 통해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게끔 이끌어 준다.

정보를 검색할 때 검색엔진(포털 사이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 주고, 다양한 정보원을 찾아보는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찾은 내용은 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검색 결과의 상위에 랭크된 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띤 스폰서 콘텐츠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 검색엔진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단일 검색으로 그치지 말고 검색 질문을 2개 이상으로 늘려 검색 결과를 확인해 비교하기, 둘째 서로 다른 검색엔진에 동일 검색어를 입력해 결과 비교해 보기, 셋째 검색 결과를 확인함에 있어 첫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들까지 함께 살펴 보기 등이다 (McManus, 2012). 이에 더해 검색엔진 안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미지 결과(개인 블로그나 각종 연결 링크 결과 등)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정보의 원래 출처를 찾아(예: 원 정보를 담고 있는 기관·조직·단체의 홈페이지 등)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이는 아래에 기술한 정보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이기도 함).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일은 콘텐츠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다. 따라서 사실에 기반을 둔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찾은 정보의 내용을 다른 정보원을 통해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이러한 교차 검증(cross-check)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주력한다. 설사 인지도가 매우 높고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한 유명 정보원이 내놓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100%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능하다면 유명 정보원이 틀린 정보를 유통시킨 사례를 찾아 직접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교차 검증의 대표적 유형인 삼각검증(triangulating)을 소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삼각검증이란 서로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보원 3개의 내용을 비교해 가며 검증하는 방식이다.

10. 뉴스와 내 관심사

- 학습목표: 뉴스를 통해 관심사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요소: 뉴스를 활용한 관심사 확장

이 단원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나 분야가 모두 뉴스를 통해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뉴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뉴스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관심사에 깊이를 더하는 한편, 이전에 흥미를 갖지 않았던 분야들로 관심사 자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자신의 관심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없다고 답하는 무관심 유형의 학생들이 있다면, 또래 학생들의 관심이 매

우 높은 주제들(아이돌스타, 온라인 게임, IT 기기, 웹툰, 먹거리, 아르바이트 등)을 예로 들어주며 관심을 끌어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습활동 사례들 중 관심 분야를 선정해 양질의 정보를 수집,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보게 하는 것은 관심사에 깊이를 더하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나머지 2개의 활동은 관심 분야 자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키워드를 주고 뉴스를 검색해 스크랩한 후 강사가 제시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비교적 소극적 방식이라면, 평소 관심이 적었던 영역을 스스로 선택해서 양질의 기사를 찾아 읽고 배운 내용을 요약하게 하는 활동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11. 뉴스와 내 미래

- 학습목표: 뉴스를 통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관련 정보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요소: 뉴스를 활용한 진로 탐색

이 단원은 뉴스 콘텐츠 내용 가운데는 각종 직업이나 산업 유형별 정보, 전공 분야에 관한 정보도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는 한편, 앞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구성되었다.

중등교육과정에서 진로 교육은 보통 ‘자아 인식-진로 탐색-진로 설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과정에 뉴스를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 연계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진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진로 탐색은 한두 시간의 수업을 통해 완료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 내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 수업 시간에는

뉴스를 활용해 진로 탐색을 시작하도록 물꼬를 터주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뉴스에 소개된 흥미로워 보이는 전공 영역이나 직업 유형들을 몇 개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유도한다. 이른 나이에 진로를 결정해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 유형에 관해 정보를 접해보고 고민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번 결정한 진로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동시에 너무 잦은 진로 결정 변경으로 인해 준비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의를 상기시킨다.

첫 번째 학습활동 사례는 관심 있는 직업 유형을 중심으로 진로 관련 탐색을 하는 활동인 데 비해, 두 번째 사례는 자신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형태다. 둘 중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학생 스스로 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뉴스에서 전공 분야 정보를 찾아 분류·정리하는 활동은 진학에 있어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실습이다. 최근의 진로 교육 트렌드는 체험 중심, 현장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뉴스를 통한 진로 탐색 후 실제 체험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해 보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단순히 멋져 보이거나 화려해 보인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특정 직업이나 전공 분야를 선택(이를테면, 연예인이 되기 위해 연극영화과나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겠다는 계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직업이나 전공 영역에서 필요한 자질, 준비해야 할 사항들, 그 직업 종사자들의 평균적인 삶의 모습 내지 만족도 등과 같이 깊이 있는 정보까지 찾을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12. 뉴스로 보는 사회

- 학습목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 내용 요소: 뉴스를 통한 사회 이슈 인식, 뉴스를 통한 사회참여

이 단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 알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공공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 및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공동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최신 뉴스 중 인간적 흥미를 끌 만한 사회 이슈를 몇 개 선정해 사례로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해당 이슈에 대해 단순히 재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그 사건이 지닌 사회적 의미,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칠 파급효과, 가능하다면 학생 자신이나 가까운 지인(가족, 친구 등)과의 관련성 등을 짚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원의 궁극적 목적은 뉴스를 활용해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참여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사회문제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사도 인지해야 하고 학생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지 않는 데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득이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겠지만,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없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사례들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 사안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정치 관련 이슈를 포함해 여러 사회 현안들에 관한 정보를 뉴스에서 직접 찾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평가하게 하는 활동들로 구성돼 있다. 뉴스 미디어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

해 줌으로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출발점으로 삼고, 활동 과정에서 공공 문제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교사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13. 뉴스로 보는 세계

- 학습목표: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각종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계시민(global citizen)으로서 바람직한 의식을 가진다.
- 내용 요소: 뉴스와 글로벌 이슈

이 단원은 학생들이 평소 잘 보지 않는 국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처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할 방안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신과 가족, 학교, 국내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던 관심사를 국제 문제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우선, 국제 뉴스의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언론사가 글로벌 뉴스를 다루는 방식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주류 언론사들의 경우 세계 주요 지역에 특파원을 파견해 취재를 하고 있으나 자체 취재로 세계 전역을 다 커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나마도 작은 규모의 언론사들은 특파원 파견을 통한 자체 취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때문에 국내 언론 전반을 놓고 보면 국제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소위 '세계 4대 통신사'라 불리는 AP, AFP, UPI, 로이터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즉, 대부분의 국제 뉴스를 글로벌 통신사로부터 공급받아 전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글로벌 뉴스통신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줌으로써 국제 뉴스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 4대 통신사를 비롯한 국제적인 정보의 생산 및 유

통망을 소유한 일부 선진국이 국제적 뉴스 흐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해 국제 뉴스 중 선진국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개발도상국은 매우 단편적으로 다뤄진다거나 부정적 내용 위주로 보도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문의 국제면이나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국제 섹션을 살펴보고 뉴스기사의 대상 국가, 주제, 공급원 등을 찾아 집계해 보는 학습활동을 실시한다. 더불어 유사한 뉴스 주제를 보도하는 데 선진국과 비선진국이 어떻게 다르게 다루지는지를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영상자료 등을 준비해 보여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환경, 빈부 격차, 에너지, 전쟁과 테러, 질병 등 온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구체적 현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뉴스를 통해 정보를 찾아보게 하는 학습활동은 세계시민으로서 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히 정보를 탐색,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국제뉴스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진 현상도 이야기할 수 있다. 최근 아랍혁명(소위 ‘아랍의봄’)처럼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더라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자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용이해졌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정보망 덕분에 과거와는 달리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다른 나라에 정보를 전파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정보를 접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범지구적 참여를 이끌어 낸 ‘아이스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와 같은 캠페인 사례를 소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 예를 포함해 성공적인 전 지구적 캠페인 사례에 관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왜 성공했

는지를 분석하는 활동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세계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준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75~177쪽): 글로벌 통신사, 아랍의봄, 아이스버킷 챌린지

〈대단원 3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 사항〉

대단원 3은 앞서 공통 내용 요소 해설에서 밝혔듯이 뉴스 콘텐츠와 뉴스 미디어 활용 교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이 핵심이다.

공통 내용 요소들(효율적 정보 서치 및 스크랩 기술, 정보 탐색에서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방법, 검색된 정보의 분류와 정리)은 대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중단원 4개를 학습하는 내내 적절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강의와 실습이 병행된 형태로 전달돼야 하는데, 뒤로 갈수록 강의의 비율이 줄고 실습이 더 늘어나는 구성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뉴스 콘텐츠와 뉴스 미디어 활용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활동을 한정된 수업 시간에 그치게 하지 말고, 수업 동안 개시한 활동을 과제로 이어서 할 뿐만 아니라, 수업과 무관하게 평소에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대단원의 특성상 뉴스에서 자료를 찾고 분류해서 정리하는 활동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형태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해 나가게끔 유도한다.

‘뉴스와 내 미래’ 단원은, 내용 해설에도 기술했듯이 뉴스를 통한 진로 탐색을 다른 진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단원이 다뤄지기 전에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방법들에 대해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뉴스와 내 미래’ 단원이 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향과 전략을 수립한다.

‘뉴스로 보는 세계’는 실습이 주가 되는 다른 세 중단원들과 달리 주요 개념들에 대한 학습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글로벌 이슈 자체가 학생들의 평소 관심사에서 매우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제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이 단원을 학습하면서 만든 포트폴리오 등의 결과물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상호 평가할 수 있도록 발표 학습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IV. 대단원 4: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14.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 학습목표:
 - 일반 시민들의 뉴스 생산 참여 확대가 주는 사회적 의미와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소극적 뉴스 소비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뉴스 참여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소양을 함양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요소: 시민참여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¹³⁾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확대, 뉴스 공유 및 전파의 일상화

13) ‘Citizen journalism’을 ‘시민 저널리즘’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 저널리즘’으로 쓰려 한다. 시민 저널리즘으로 번역하면 ‘공공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과 같은 의미를 띠는 ‘civic journalism’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 저널리즘 혹은 시민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공공 참여 확대와 합리적 토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가 중심인 시민참여 저널리즘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이 단위에서는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및 유통 참여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소극적인 뉴스 소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뉴스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언론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뉴스 생산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일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인 매스미디어 시대에도 존재했었다. 시민참여 저널리즘 혹은 참여형 저널리즘으로 불리며, 기성 언론사의 뉴스 생산 과정에 시민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서부터 시민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직업 언론인과 같이 취재 및 기사 작성에 매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로 나타났다. 어떤 형태이든지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근간에는 기성 언론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매우 적극적인 성향을 지닌 일부 시민들에 한정된 현상이었다면, 오늘날은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힘입어 누구나 뉴스를 생산·공유·전파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용을 추가·변형·가공하는 것 또한 손쉽게 가능하다. 뉴스기사에 댓글을 작성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도, 나아가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좁은 의미의 뉴스 생산, 즉 일반 시민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오늘날에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발생하고 있다. 뉴스 내용을 나름의 방식으로 가공해서 제시하는 재생산(단순 짜깁기에서 큐레이팅에 이르기까지) 활동이 증가하는 점, 특히 뉴스의 유통 및 확산에서 이용자 참여의 형태(스크랩, 링크, 리트윗, 이메일,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직접 전송 등)와 역할 비중이 대폭 늘었다는 점이 과거와 차별화되는 특성이다.

오늘날 뉴스 생태계에서 시민 참여 확대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집단지성,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과 같이 다수의 협력적 활동

을 통한 기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방·참여·공유·협력 등이 중심 키워드가 되는 웹의 속성 및 기술적 특성을 전제로 하는 현상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고 사례로 제시된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함께 해 보면서 일반 시민들의 뉴스 생산 참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적극적인 뉴스 생태계 참여자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먼저 블로그나 SNS 등에서 일반 시민이 작성한 게시글과, 같은 주제로써 언론인이 작성한 뉴스 기사를 찾아 비교·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기성 저널리즘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지니는 장점(예: 기성 언론의 뉴스 생산 관행에서 벗어난 신선한 소재 발굴 및 접근)과 위험성(예: 미확인 정보의 무분별한 양산)에 대해 성찰해 보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SNS에서 잘못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잡힌(혹은 바로잡히지 못한) 사례를 찾아보게 하는 활동은 집단지성이 가진 힘과 한계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뉴스를 공유하고 토론해 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뉴스는 다소 소극적으로만 소비하던 학생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뉴스 보기 자체를 하지 않던 학생들에게는 뉴스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교육 대상이 중학생인 경우, 뉴스나 미디어에 대한 이전 교육 경험 등이 전무하거나 부족하다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좀 더 쉬운 활동들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중학생인 나도 뉴스 생산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만들 수 있는 뉴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 만든다면 어떤 주제로 만들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토론하기, 실제 학생들이 생산한 뉴스(학생기자 작성 기사 등)를 찾아보고 그에 대해 평가해보기와 같은 활동들이 가능할 것이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77~178쪽): 시민참여 저널리즘, 집단지성, 크라우드 소싱

15. 책임 있는 뉴스 소비자

- 학습목표: 뉴스의 이용, 공유, 전파, 생산 과정에서 책임과 예절을 익히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요소: 뉴스 공유 · 전파 · 작성 전 사실 확인의 중요성, 뉴스 저작권, 뉴스 댓글 예절

이 단원을 통해서는 뉴스를 이용 · 공유 · 전파하고, 나아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책임 있는 뉴스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기존 뉴스를 공유 및 전파, 뉴스를 재가공해서 게시, 직접 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뉴스 관련 활동들에는 내용의 진위성 확인과 저작권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뉴스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그 내용에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다른 누군가에게 단순 전달만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설사 법적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까지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 SNS의 경우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SNS에 작성한 글 또한 공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표(publish)’ 활동의 일종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의 사실 검증에 관한 방법 등은 바로 앞 대단원에서 충분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공유하거나 직접 뉴스 게시물을 작성할 때도 앞서 학습한 방식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뉴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대표적인 뉴스 저작권 위반 유형으로, 뉴스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나 SNS 등으로 가져와 게시했다면(일부든 전문이든 관계없이) 설사 작성자와 출처 정보를 명확히 밝혔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를 보여 주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해당 뉴스 기사를 내 공간에 가져와 공유하고 싶다면 기사의 헤드라인이나 리드(lead) 정도만 보이게 하고 기사 내용은 URL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돼서 볼 수 있게 하는 링크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가장 안전한 공유 방법은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임베드(embed) 방식의 퍼가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게시물 또한 임베드 기능을 통해 원래 게시된 형태로부터 변형 없이 다른 웹페이지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이미 SNS에 게재된 사진이 ‘저작물’이라는 판결이 나왔고(아이티 지진 참사 사진을 일부 언론사가 작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져다 쓴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라는 판결), 국내에서도 기자들이 타인의 SNS 게시물 내용으로써 작성자의 사전 동의 없이 기사를 작성해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피키캐스트가 저작권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 주면서, (뉴스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내지 그 내용)을 동의 없이 공표하는 행위는 법적 혹은 윤리적 책임 소지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뉴스를 2차적으로 활용한 여러 형태의 사례들을 사전에 준비해 저작권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활동, 뉴스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사례(및 잘 지킨 사례)를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뉴스 저작권의 개념과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프라인 뉴스 매체와는 달리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댓글’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소수지만(대략 전체 이용자의 5%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작성된 댓글은 해당 기사와 함께 많은 이용자들에게 읽히며, 일부 사람들은 흥미롭다는 이유 등으로 기사 내용보다 댓글을 더 관심 있게 보기도 한다. 댓글 기능은 완전한 상호작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뉴스 생산자 쪽에서 이용자에게로 흐르는 일방적 정보의 흐름이 지닌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주고, 뉴스가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용자들 간 의견 교환과 토론, 나아가 여론형성에도 기여하며, 댓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사 내용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특히 기사에 포함된 잘못된 표기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 등이 댓글에서 지적돼 수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이 제공하는 익명성을 악용해 소위 ‘악플’이라 불리는 악성 댓글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유명인인 경우에 이런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데, 일반인과 기사를 쓴 기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악플 외에 댓글 예절에 어긋나는 유형들로는 기사 내용과 무관한 댓글(특히 똑같은 댓글을 여러 기사 밑에 남기는 것), 저급한 언어 사용,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나 다른 댓글 작성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의 댓글 예절 준수를 위해 강조해서 알려 줘야 할 댓글 작성 시 꼭 고려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추천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댓글 및 그 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한 후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댓글의 사회적 중요성과 댓글 예절을

익힐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악플과 선플(선한 댓글)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을 통해 이끌어 낸 후 그 기준으로써 각각의 사례를 찾아보게 하는 활동은 수업 시간 중에, 악플로 생긴 피해 사례를 조사해 그 유형별로 특징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활동은 과제로 적합하다.

수업 마무리에 책임 있는 뉴스 소비자로서 뉴스 이용, 공유, 전파, 생산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 보게 하는 활동을 배치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건전한 뉴스 생태계 참여자로서의 태도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78~180쪽): 명예훼손, 리드, 임베드, 상호작용성

16. 뉴스와 개인의 권리

- 학습목표: 뉴스에서 어떻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뉴스로부터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뉴스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개인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기자윤리강령, 재난보도 준칙 등), 권리 침해 시 대처 방안(반론 보도, 정정 보도 등)

이 단원을 통해서는 뉴스의 생산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시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아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배운다.

뉴스와 관련된 개인 권리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등이 있다(명예훼손은 앞 단원 내용에 포함돼 있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공익적 목적과 같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사생활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¹⁴⁾ 언론은 본질적으로 사건이나 이슈를 파헤쳐 취재·보도하는 속성을 띠고 있고, 사생활권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¹⁵⁾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취재나 보도 과정 중에 사생활 침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은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는 상호 간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가치이다 보니,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개인 권리 침해로도, 반대로 알 권리를 빙자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패삼아 개인 권리 침해만을 일삼는 것은 아니다. 기자들에게는 윤리강령이 존재한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는 사생활 보호, 취재원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윤리강령에도 국민의 명예와 취재원 보호 조항이 있다. 개인의 권리는 국가적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쉽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신문협회,

14) 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알 권리(right to know)’의 개념은 1945년 미국 통신사 AP의 켄트 쿠퍼(Kent Cooper)의 강연에서 처음 등장했고, 1956년에 그가 동명의 저서를 출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이 알 권리가 헌법이나 실정법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나라는 별로 없으며, 국가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주로 구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부터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좀계는 헌법상의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있다. 이 법률의 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정보수집권, 정보수령권 등이 알 권리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등 5개 언론 단체가 재난 상황에서의 언론사 취재 및 보도 원칙을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준칙에도 피해자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총 6개 포함돼 있다. 이처럼 언론(인)들은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만들어 개인 권리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윤리강령들은 말 그대로 ‘윤리’ 강령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의 형식으로 전달하되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률이나 강령 등은 실제 조항을 찾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고, 적절한 사례 연구(case study)를 찾아 그 내용을 소개해 줄 것을 권장한다. 또한 뉴스 보도상의 사생활·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의 논리가 대립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실제 사례를 찾아 보여 주는 것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뉴스를 통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사례와 명예훼손 사례를 찾아보는 학습활동은 실제 피해 양상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다. 더불어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서로 충돌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뉴스와 관련한 개인 권리 보호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개인이 뉴스와 관련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강의 형식의 설명보다는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 보도와 관련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알려 주고,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언론 피해 유형들과 각 유형별 구제 절차(정정 보도, 반론 보도 등)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찾아서 정리해 보게 하는 활동이 적절할 것이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80~182쪽): 기자윤리강령, 재난보도준칙, 언론중

〈대단원 4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 사항〉

대단원 4는 뉴스의 ‘이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공유’, ‘전파’, ‘생산’에 이르는 적극적 뉴스 생태계 참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뉴스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때문에 다른 대단원들에 비해 학습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책임과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이 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갖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의 사례를 들어가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올바른 행동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반드시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저작권을 피해 뉴스를 이용하는 방어적 방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잘 지킨 사례를 같이 보여 주고 저작권 준수가 왜 중요한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단원에는 저작권, 알 권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한 법률의 존재를 학생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실제 법조항을 자료로 준비해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률용어는 그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풀어쓴 자료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 활동으로 제안된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장점과 위험성,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의 충돌과 같은 주제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들이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이러한 논쟁적 주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중점을 뒀야 할 부분은 학생들이 양측의 주장과 논리를 가능한 한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쪽 입장에 관해 충

분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숙의적 토론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2)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앞서 제안한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아래의 원칙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목표 중심 평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학습목표의 달성 여부일 것이다. 가르치는 내용과 평가하는 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교과와 총괄 목표와 각 중단원별 학습목표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평가 전략을 수립한다.

② 참여 유도형 평가

범교과적 성격의 참여형 교육과정이라는 점에 걸맞게 학습활동에 있어 친구들과의 협업,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발표 포함)을 독려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이론적 지식 습득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 풀기와 같은 방식으로 점점 및 평가한다.

③ 과정 평가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과제 활동 모두 결과물을 평가하는 데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과제의 경우 교사가 그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과물을 얻게 됐는지를 짧은 보고서 형태로 과제와 함께 제출하게 한다.

④ 종합 평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활동과 과제 활동으로 작성 내지 산출한 모든 성과물들에 대해 나름의 분류 기준을 스스로 수립하게 하고, 그에 맞춰 유형별로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한다. 단발성 평가보다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재 집필 시 유의 사항

본 연구에서 구성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재를 집필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재에 쓰이는 뉴스 사례 등의 자료로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도, 상업성이 드러나는 내용도 배제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비윤리적인 내용 또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둘째, 가능한 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선택·활용하되, 학습자의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뉴스 리터러시 교재는 뉴스가 가장 중요한 제재가 된다는 점에서 교재가 만들어진 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내용상의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재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너무 오래된 뉴스를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뉴스 가치, 내용의 정확성, 논란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너무 최신의 뉴스를 이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습활동 사례에는 학생들이 직접 뉴스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들 또한 수업 자료를 직접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교과라는 점을 감안해, 교재에는 ‘최신 자료’보다는 ‘검증된 자료’ 위주로 선별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들이 수업자료로 활용할 최신 기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재에서 선택 기준과 관련된 지침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3-6〉 교재 집필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명, 단원명 예시

중·고등학생을 위한 뉴스 사용 설명서	
대단원	중단원
Ⅰ. 뉴스, 너의 정체를 밝혀라	1. 뉴스란 무엇일까
	2. 뉴스가 왜 필요할까
	3. 무엇이 뉴스가 될까
	4. 뉴스는 누가 어떻게 만들까
	5.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일까
Ⅱ. 뉴스 소비, 이렇게 달라졌다	6. 우리는 뉴스를 어디서 어떻게 볼까
	7. 인터넷은 뉴스를 어떻게 바꿔 놔을까
	8.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볼까
	9. 내가 보는 뉴스를 다른 사람들도 볼까
Ⅲ. 뉴스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10. 뉴스에는 내 관심사가 있다
	11. 뉴스를 통해 내 미래를 엿볼 수 있다
	12.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가 보인다
	13. 뉴스를 보면 세계가 보인다
Ⅳ. 지킬 것은 지킨다	14. 누구나 뉴스를 만들 수 있다
	15. 뉴스에도 책임과 예절이 필요하다
	16. 뉴스로부터 내 권리를 어떻게 지킬까

넷째, ‘뉴스 가치’, ‘뉴스 생산 과정’과 같이 제작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한 단원의 경우 현직 언론인에게 집필을 의뢰하거나, 최소한 그들의 검수라도 거쳐 내용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교재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제목부터 각 단원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실제 교육 대상(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조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명 및 단원명의 예시를 〈표 3-6〉에 제시하였다.

4. 대학 교양 강좌용 강의 계획 시안

뉴스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대학 교양강좌용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용으로 만든 커리큘럼을 대학생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학 강좌 16주 코스에 맞춰 재구성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요소들은 중·고등학생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앞 절에 제시된 단위별 내용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대학 강좌의 경우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개발해 널리 활용하기보다는 강사가 자체적으로 강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서에서 제안하는 강의 계획 시안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적절히 수정한 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시안 내용을 참조해 강사가 새로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진이 구성한 대학 교양 강좌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나 감수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3명의 연구진 모두가 언론학 전공자이며 뉴스 및 저널리즘에 대한 교양과 전공 강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는 사실이다. 둘째, 중·고등학생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꾸려진 자문단에는 저널리즘을 전공한 3인의 교수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친 결과물이 대학 강좌용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표 3-7〉은 연구진이 개발한 뉴스 리터러시 대학 교양 강좌용 강의 계획의 핵심 부분을 담고 있다. 강좌의 소개에 해당하는 ‘과목 개요’, 강좌 이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16주 코스에 맞게 구성한 ‘주별 강의 계획’이 그 내용이다. 실습이나 과제,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은 뒤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에서 중·고등학생용 커리큘럼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뉴스 활용’ 파트가 ‘뉴스 이해’ 다음 자리로 이동했고 수업 시수가 반

〈표 3-7〉 대학 교양 강좌용 강의 계획 시안

구분	내용	
과목 개요 (Course Overview)	본 강좌는 현대 지식 기반 사회에서 뉴스 및 정보를 분별 있게 선택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그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인 뉴스 리터러시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년세대가 건전한 뉴스 소비(이용)자,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강좌에서는 뉴스 및 뉴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 뉴스 콘텐츠와 뉴스 미디어 활용,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편, 다양한 실습 및 과제 활동을 마련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뉴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끌어내고자 한다.	
목표 (Goals)	<p>본 강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정보 분별 능력 제고: 정보 과잉·정보 과부하 시대에 정보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고품질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고품질 뉴스 소비 증가: 뉴스·정보 분별력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뉴스에 대한 수요 및 소비를 확대한다. 이러한 고품질 뉴스에 대한 소비 증가가 생산 영역에서의 뉴스 품질 제고 노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에 기여한다. •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는 뉴스 소비자: 뉴스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낸다. • 참여적 시민상: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공공 사안에 대한 관심 및 관여 수준을 향상시켜 그러한 공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한다. 	
주별 강의계획 (Course Schedule)	뉴스 이해	<p>1주 - 뉴스의 정의 뉴스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뉴스 주제의 범위와 유형, 뉴스 형식의 다양성(새로이 등장한 뉴스포맷을 포함), 뉴스 이용 실태</p> <p>2주 - 뉴스의 사회적 기능과 필요성 인간의 정보 추구 욕구, 공공재로서의 뉴스(민주주의의 필수요소로서의 뉴스), 뉴스의 사회적 기능(환경 감시, 감시견 및 제4부, 사회 통합, 상관조정 등)</p> <p>3주 - 뉴스 가치 뉴스의 보편적 가치 속성들, 뉴스와 뉴스 유사 정보(정보 유형 간 경계 붕괴 포함), 이용자의 주관적 뉴스 가치(이용자 편향)</p> <p>4주 - 뉴스 생산 과정 게이트키퍼(gate-keeping), 뉴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개인적 차원부터 이데올로기적 차원까지),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뉴스 생산,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뉴스 구성</p> <p>5주 - 뉴스 보도 원칙 규범적 보도 원칙(정확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등), 전략적 보도 원칙(객관주의 저널리즘, 기계적 중립성, 사실과 의견의 분리 등), 심층성과 탐사보도</p>

구분	내용	
주별 강의계획 (Course Schedule)	뉴스 활용	<p>6주 - 뉴스와 개인적 관심사 뉴스 미디어 활용: 정보 탐색 시 검색엔진의 올바른 활용법과 사실 확인의 중요성 및 방법, 뉴스 콘텐츠 활용: 관심사 확장과 진로 탐색</p> <p>7주 - 뉴스와 세상 뉴스를 통한 사회이슈의 공론화, 글로벌 통신사 중심의 국제 뉴스 흐름과 그 문제점, 인류 공동의 이슈와 범지구적 캠페인</p>
	8주 - 중간고사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p>9주 - 뉴스 생태계 구조 뉴스 생태계 구조,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 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 뉴스 룸의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와 기사 어뷰징</p> <p>10주 -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인터넷이 가져온 뉴스의 양적 확대, 전통 뉴스 매체와 인터넷 뉴스 매체의 차이, '가벼운' 뉴스 소비(유목형 뉴스 읽기, 제목소비자⁶⁾ 등) 증가, 뉴스 이용자의 역할과 위상 변화(뉴스 생비자)</p> <p>11주 - 뉴스 소비 심리 포털과 SNS의 '인기 기반' 뉴스 편집, 다양한 뉴스추천 기제들, 뉴스 제목의 중요성 확대와 '낚시성' 제목 문제,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p> <p>12주 - 뉴스 이용의 개인화 개인맞춤형 뉴스 서비스와 필터버블 현상, 뉴스 큐레이션, 선택적 뉴스노출(확증 편향¹⁷⁾)</p>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p>13주 -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시민참여 저널리즘(참여형 저널리즘), 일반인의 뉴스 생산 참여 확대(크라우드 소싱, 집단지성 포함), 뉴스 공유 및 전파의 일상화</p> <p>14주 - 책임 있는 뉴스 생비자 뉴스 공유 · 전파 · 작성 전 사실 확인의 중요성, 뉴스 저작권, 뉴스 댓글 예절</p> <p>15주 - 뉴스와 개인의 권리 뉴스상에서 개인정보 ·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기자 윤리강령, 재난보도준칙 등), 권리 침해 시 대처 방안(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 보도, 정정 보도, 피해보상 청구 등)</p>
	16주 - 기말고사	

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뉴스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들의 경우 뉴스 및 관련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현재 구성된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의 내용 이해도를 높이고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뉴스 활용’은 뉴스 콘텐츠 및 뉴스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뉴스 활용 교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어디에 배치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파트는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매우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뉴스에서 다루지는 콘텐츠의 주제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점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강좌 전체를 뉴스를 활용한 교육으로 채울 수도 있고, 2~3회 정도로 매우 핵심적이라 판단되는 부분만 선별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뉴스 리터러시를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성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수업에서는 뉴스 활용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뉴스 및 관련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뉴스 활용 부분만을 추려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대학 강좌의 경우 통상 주별 강의 계획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이 포함되므로 16주 가운데 실질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주는 14주다. 따라서 총 16개 단원으로 구성된 중·고등학생용 교육과정과 대학 교양 강좌용 프로그램의 구성이 동일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중등교육용에서 4

16) 중·고등학생용 교육과정에서는 ‘제목 소비자’를 “8. 뉴스소비 심리” 단원 가운데 뉴스제목의 중요성 확대 맥락에서 다룰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중단원 8 내용 해설 참조), 대학생용 프로그램에는 그보다 먼저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단원의 ‘가벼운’ 뉴스 소비와 관련해 소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7) 선택적 노출은 기존에 갖고 있던 태도를 확증하는 방향으로 메시지 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불리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기존 태도에 부합하는 메시지에 대한 편향성이 관찰된다는 점 때문에 ‘일치편향(congeniality bias)’이라고도 불린다.

개 단원이었던 ‘뉴스 활용’ 부분을 2주 수업으로 축소했다. 첫 번째 뉴스 활용 수업은 뉴스를 통해 진로를 포함한 개인적 관심사를 확장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국내사회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뉴스 활용’ 파트를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에서처럼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다음 순서가 아니라 ‘뉴스 이해’ 뒤로 배치한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 즉 학기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7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을 경우 ‘뉴스 활용’ 파트의 순서를 통째로 이동시켜도 관계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 하나라도 치르지 않으면 생기게 되는 공백은 ‘뉴스 활용’ 파트 내용을 추가로 구성하거나, 학생들의 과제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강좌의 성격상 수업 시간을 강의로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실습이나 토론 활동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주제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의 외에 할 수 있는 실습, 토론, 과제 활동의 예시를 4개 주제 군별로 나누어 <표 3-8>에 정리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중·고등학생용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습활동 예시와 유사하지만, 대학생 수준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을 거쳤다.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 요소들의 점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의 재량이겠으나 실습과 토론, 과제를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되는 수업인 만큼, 개별 활동에 더해 팀별 활동이 더 적절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수업과 관련된 각 활동마다 새로 팀을 꾸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학기 초에 팀을 구성해 학기 내내 유지하거나 4개 주제 파트가 바뀔 때마다 팀을 새로 편성하는 방식의 운영이 적합하다. 팀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팀원 모두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포

〈표 3-8〉 대학 교양 강좌용 실습, 토론, 과제 활동 예시

	실습	토론	과제
뉴스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와 뉴스유사정보 구분 • 같은 주제로 뉴스와 뉴스 유사 정보 메시지 작성 • 뉴스 가치에 따라 신문 1면 등 편집 • '기자와의 대화'를 통한 언론인의 역할과 뉴스 생산 과정 파악 • 뉴스 품질 평가하기(정보원 평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에서 시각자료의 영향력과 파급력 • 객관적인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에 대한 토론 • 좋은 뉴스의 조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뉴스 이용 행동 분석 (뉴스를 보는/안보는 이유, 뉴스를 접하는 방식, 선호하는 뉴스 주제 등) • 새로운 뉴스 포맷 사례 조사 후 특성 분석 •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이유와 안 보는 이유 조사 • 수익구조가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 비교 분석 • 세상을 변화시킨 탐사보도 사례 찾아 내용 분석
뉴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기사에 제시된 사회문제 해결책 평가 • 신문 국제면 혹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 국제 섹션의 기사별 대상국, 주제, 공급원 집계 • 뉴스를 통해 인류 공동의 문제 사례를 찾아보고 참여 방법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쟁적인 사회이슈를 찾아 찬반 입장에서 토론 • 범지구적 참여를 이끌어낸 캠페인 사례의 성공 이유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분야 선정 후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 • 관심 있는 직업, 직종, 관련 업체, 그 직업 종사자 정보 수집 및 정리 •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을 선정해 자료를 수집 및 정리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기사의 PC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버전 형식 비교 •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기사 어뷰징 사례 찾아 유사성 비교 • 포털의 다양한 뉴스 추천과 자신의 관심사 일치도 비교 • 기사 내용 보고 제목 붙여보기 • '뉴스상' 기사 제목 올바르게 수정 • 자신과 팀원들의 SNS 타임라인 비교를 통한 SNS 뉴스 특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 '실시간 검색어'의 필요성 • 정확성 대 속보성의 가치 • 포털과 모바일 중심 '가벼운' 뉴스 소비의 문제점 •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생산 참여 방식 및 유형 • 뉴스 이용의 개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매체로서 인터넷 포털, SNS 등의 새로운 플랫폼과 언론사의 공통점·차이점 분석 • 종이 신문과 언론사 닷컴 기사 양과 배치 방식 비교 •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의 사례 찾아 그 특성 비교·분석 •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 후 포털 뉴스와 비교

	실습	토론	과제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시민 작성 뉴스와 언론인 작성 기사 비교 • 뉴스를 2차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보고 저작권 준수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장점과 위험성 • 악플과 좋은 댓글의 구분 기준 • 댓글의 영향력 • 알 권리 대 사생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에서 잘못된 정보가 일정 시간 경과 후 정정된(혹은 정정되지 못한) 사례 조사 • 뉴스 저작권을 잘 준수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조사 • 악플 피해 사례 조사 및 유형별 특징 정리 • 뉴스를 통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사례 조사 • 언론 피해 유형 및 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 탐색 및 정리

함한 모든 팀원들의 팀 과제물에 대한 기여도를 무기명으로 평가하게 하여 여러 팀원들에게서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를 받은 학생은 감점을 할 필요가 있다. 꾸려진 팀이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 팀원들의 자체 상호 평가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하면 팀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과제로 주어지는 활동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토론은 수업 시간 안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과도한 과제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한다. 토론의 과정은 강사가 지켜볼 수 있지만,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론 결과물을 1~2페이지 정도 짧게 정리해 토론이 진행된 당일 내에 이메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토론 활동을 합리적이고 숙의적인 토론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양비론·양시론을 지양하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토론 예절을 지키고, 토론 과정을 통해 입장 차를 점점 좁혀 반드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결과물 또한 토론 과정에 대한 기술(description) 보고 형태보다는, 토론에서 도출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을 추가해 간략하게 구성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준다.

교재의 경우 현재 국내에 출간된 단행본 중에는 강의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 전문 서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각 단원마다 적합한 읽을거리(북 챗터, 논문, 보고서 일부, 인터넷 자료 등)를 찾아 리딩패킷 형태로 구성해 이용하는 것이 추천할 만하다. 혹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다년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물로서 이 연구서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출간될 예정인 시리즈 도서 2권의 내용 가운데 뉴스 리터러시 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될 것이므로, 그 파트를 주교재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PDF로 만들어 이클래스(e-class) 등의 수업용 웹페이지에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다.

5. 관련 개념 · 용어 설명 및 참고 자료 소개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된 중 · 고등학생용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내용 해설에 포함된 개념 및 용어에 대한 해설을 단원별로 제공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시하였다. 총 16개 중단원들 중 10단원에서 12단원까지는 내용 구성상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 및 용어에 대한 해설은 13개 단원에 한해 이뤄졌다. 교수자가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학습자들에게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학습이 시작되기 전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1단원의 경우 관련 개념 · 용어 해설이 다른 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상세한 것들이 몇 개 포함돼 있다.

1) 1단원: 뉴스의 정의

• ‘뉴스’에 대한 정의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합의된 개념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뉴스를 정의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 및 차원들이 있기에, 뉴스의 가장 핵심적 속성(property) 내지 요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의내리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이를테면, 뉴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건으로 ① 특정한 개인이 아닌 공공(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이익과 관련됨, ② 미디어를 통해 전달 혹은 유통됨, ③ 시의성, 즉 현재 시점의 상황이나 문제와 관련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뉴스를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시의성 있는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직업인으로서 언론인이 전문적으로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생산한 정보 또한 뉴스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전자는 ‘뉴스기사’라 따로 구분해서 칭할 수 있고, 따라서 ‘뉴스’와 ‘뉴스기사’는 그 범위가 다르다.

뉴스를 전달 내지 유통하는 미디어에는 ①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언론(언론사 닷컴, 인터넷 전용 언론)과 같이 뉴스를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언론사, ② 주요 뉴스 유통 플랫폼인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 ③ 각종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④ 블로그,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SNS,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소셜 미디어·개인 미디어 등이 포함된다.

말릭과 동료들(Malik et al., 2013)은 뉴스를 정의하는 접근법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인류학적’ 접근으로, 뉴스를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의 환경 감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최근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뉴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규범적 정의로, 시민의 사회 및 민주주의 과정 참여에 도움을 주는 공적 정보가 곧 뉴스라는 것이다. 셋째, 개인마다 뉴스가 무엇인지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뉴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말릭 등은 청소년과 관련해서 뉴스를 논할 때는 규범적 정의뿐만 아니라 인류학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어떤 접근법으로 뉴스를 정의하든 간에, 시민성 함양이라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뉴스 개념이 교육과정에서 핵심이 될 필요가 있다.

• ‘뉴스’의 주제 범위

뉴스의 주제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연예, 스포츠와 같은 전통적으로 언론사들이 많이 다뤄 온 분야들 외에도, 건강·여행·취미·음식 등과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를 비롯해 일기예보와 같은 일상 정보 또한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요즘 대세로 떠오른 ‘요리’나 ‘음식’은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다. 단적으로,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문지면에 소개된 요리 레시피 1만 5,000개 이상을 정리해 “쿠킹(Cooking)”이라는 요리·음식 사이트(cooking.nytimes.com)를 만들어 운영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생산된 기사들, 그중에서도 시의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의 경우, 약간의 재가공을 거쳐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절히 배치하면 이용자들의 관심과 소비를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에버그린(evergreen) 콘텐츠’로 활용 가능하다.

• 뉴스 이용 실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84년부터 전국의 뉴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 수용자 인식 조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뉴스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를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들이 표나 그래프와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국내 뉴스 소비자들의 이용 실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양상까지도 함께 보여 줄 수 있다.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특히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의 2014년 조사 결과에는 총 19개 뉴스 분야들에 대한 관심도 결과가 포함돼 있는데(2015년 조사에도 동일 항목 포함), 응답자들의 관심에 따른 순위를 보면 1위 건강, 2위 취미·레저·여행, 3위 사회(사건, 사고), 4위 연예·스포츠, 5위 날씨 순으로, 생활밀착형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제 영역인 사회, 연예·스포츠보다 건강이나 취미에 대한 뉴스가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뉴스는 딱딱한 시사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의 행복과 안녕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 뉴스 게임

뉴스에 비디오게임의 형식을 적용한 것으로, 사회 이슈를 게임 형태로 만들어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에 참여하면서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뉴스 게임의 사례로 2015년 초에 BBC가 공개한 ‘시리안 저니(Syrian Journey)’가 있다. 이 게임은 시리아를 떠난 난민들이 유럽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어드벤처 형식으로 구성했다. 게임 개발사 더픽셀헌트(The Pixel Hunt)가 개발한 ‘아이티의 재건(Rebuilding Haiti)’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세계신문협회 사이트의 “Trends in Newsrooms: Gaming the news”(http://blog.wan-iffra.org/2015/06/23/trends-in-newsrooms-gaming-the-news)

• 인터랙티브 뉴스

텍스트 위주의 기존 온라인 뉴스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편집하고 스크롤, 클릭, 링크 등을 활용해 독자의 행위에 반응하도록 웹 페이지를 구현하는 새로운 형식의 뉴스로, 한마디로 보는 뉴스가 아니라 체험하는 뉴스라 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뉴스의 가장 선구적인 사례로는 뉴욕타임스가 2012년에 제작한 ‘스노폴(Snow Fall)’이 꼽힌다. 스노폴은 눈사태로 인한 사고를 다룬 긴 기사를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읽게끔 만들까 하는 고민에서 기획되었으며, 사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했고 총 6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350만 이상의 페이지뷰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보도·문학·음악상인 풀리처상의 2012년 수상작이기도 하다.

• 로봇 저널리즘

그 명칭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이 기자 대신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로봇 저널리즘의 ‘로봇’은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뜻한다. 알고리즘을 활용해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대량의 데이터 및 정보를 정교하게 가공해서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여기까지는 ‘데이터 저널리즘’과 같음)하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프로그래밍이 완료된 후에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 스스로 자료를 검색하고 기사를 작성한다.

로봇 저널리즘의 선두 주자로 LA타임스의 ‘퀘이크봇’[지진을 뜻하는 일스퀘이크(earthquake)와 로봇의 합성어]이라는 이름의 로봇은 하루 24시간 내내 지진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데이터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면 이를 기사로 작성하거나 편집국에 알린다.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의 로봇은 일주일 동안 《가디언》과 《옵저버》(《가디언》 자매지)에 게재된 기

사들 중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이 많은 반응을 보였던 것들을 골라내 이를 편집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그 결과물은 《더롱굿리드(The Long Good Read)》란 주간지에 실린다.

참고 자료: 블로터닷넷의 “[미디어@미래] 로봇, 저널리즘을 넘보다” (<http://www.bloter.net/archives/232289>)

• 카드 뉴스

하나의 이슈나 사건을 10~15장 정도의 이미지 컷에 간략한 텍스트를 추가해 옆으로 밀어보게 만든 새로운 뉴스 형식이다. 보통은 기존에 취재한 내용을 카드 형식으로 재가공해서 쓰기 때문에 제작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모바일 맞춤형 콘텐츠라는 점에서 SNS에서 많이 유통·소비되고 있다.

SBS, 조선일보, JTBC 등의 주류 언론사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들예: 인물 스토리텔링 블로그 ‘사람바이러스(Saramvirus)’도 카드 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2) 2단원: 뉴스의 필요성

• 환경 감시 기능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환경 감시(surveillance of environment)는 사회 환경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 제공 기능을 의미한다.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많은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라스웰(Lasswell, 1948)이 제안한 미디어의 3대 사회적 기능에는 환경 감시와 함께 상관계정과 문화 전수가 포함된다. 여기에 라이트(Wright,

1960)는 오락 기능을 추가해 4대 기능을 제안한 바 있다.

- 감시견 및 제4부

언론이 정부, 정치인과 같은 정치권력, 기업 등의 경제권력, 여타 사회지도층 등을 견제하고 그들의 비리나 부정부패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사회에서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감시견(watchdog)’이라 칭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견제 및 감시하는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언론을 3부(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 부르기도 한다.

- 사회 통합 기능

미디어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 관습, 제도 등을 전하고 사회구성원들은 이를 공유해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한다. 매스미디어는 다수의 불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기 때문에 소수의 취향이나 의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미디어가 사회 통합 및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 상관조정 기능

환경 감시가 정보 전달이 중심이 되는 기능이라면, 상관조정(correlation of environmental parts)은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해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환경 감시는 언론의 보도 기능에, 상관조정은 논평 및 해설 기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3단원: 뉴스 가치

• 뉴스 가치

말 그대로 뉴스로서의 가치, 즉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뉴스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뉴스 가치를 결정하는 속성으로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제시돼 왔으나, 미주리그룹(The Missouri Group, 2005)이 제안한 6개 기준들, 즉 시의성(timeliness), 영향성(impact), 저명성(prominence), 갈등성(conflict), 근접성(proximity), 신기성(novelty) 정도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뉴스 가치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일수록(시의성),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거나 영향력의 크기가 클수록(영향성), 사건 당사자가 유명할수록(저명성),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많은 사건일수록(갈등성), 지리적(나아가 정치적·문화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근접성), 평범하지 않은 사건일수록(신기성) 뉴스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 보도 자료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를 말한다. 매일 기사를 생산하고 마감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이 모든 기사 내용을 직접 취재해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나 각종 기관, 기업, 이익단체 등이 보도용으로 작성해 배포하는 자료를 기사 작성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도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보도 자료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도 있다.

보도 자료는 기자에게는 취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료 제공자에게는 보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가 작성되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네이티브 광고

웹사이트에서 광고가 콘텐츠와 구별되는 다른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예: 배너 광고)이 아니라, 메인 콘텐츠와 거의 동일한 형태(예: 언론사 웹사이트라면 기사의 형태)로 만들어져 제공되는 광고를 일컫는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사 등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고 광고 내용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기획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웹사이트 운영자 측이 부분적으로 내지 전반적으로 참여한다.

광고이기 때문에 홍보 목적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 콘텐츠로서의 가치 또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사형 광고’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네이티브 광고에는 특정 협찬사로부터 제작비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속임수’를 동원한 광고 기법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 브랜드 저널리즘

기업을 홍보하는 과정에 저널리즘적 수단, 전략, 형식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적으로, 저널리즘처럼 신뢰도가 확보된 콘텐츠로써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이 용어는 맥도날드의 마케팅을 총괄했던 래리 라이트(Larry Light)가 2004년 ‘브랜드 저널리즘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브랜드 저널리즘에서는 전통적인 뉴스 생산 및 확산 과정, 즉 기사 제작·편집·유통 단계를 마케팅 목적의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적용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토리를 생산 및 관리한다. 때문에 기존의 광고 매체 중심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블로그, SNS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브랜드 스토리를 파급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그 과정에서 언론사

에 속한 저널리스트들이 브랜드 마케팅에 일정 부분 참여하기도 하고, 특정 브랜드(기업)가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광고·홍보와 저널리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 스폰서 콘텐츠

앞서 살펴본 네이티브 광고, 브랜드 저널리즘의 사례에서처럼, 언론사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이 제작해 제공하는 콘텐츠 중 협찬(스폰서)이 있는 콘텐츠를 지칭한다. 콘텐츠 제작비의 일부를 스폰서에서 협찬받기도 하고 모두를 협찬받기도 한다. 협찬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콘텐츠 제작과정에 협찬사가 깊이 관여할 수도 있고 협찬만 제공하고 콘텐츠에는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수용자 편향

뉴스 수용자가 뉴스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이 지닌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로 인해 선호하는 뉴스가 서로 달라지고, 같은 뉴스에 노출하더라도 그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뉴스 수용 과정에서의 이러한 개인차를 수용자 편향이라 칭한다. 수용자 편향의 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비롯해 개인의 성격 특성(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등), 이념 성향(진보·보수), 배경지식(스키마),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¹⁸⁾ 등 다양한 개인차 속성들이 포함될 수 있다.

18) 인지욕구란 사고(thinking)와 같이 인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즐기는 개인이 지닌 비교적 항상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4) 4단원: 뉴스 생산 과정

- 게이트키퍼

보도할 아이템의 선정 단계부터 기사를 배치하는 최종 편집단계에 이르기까지 뉴스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의미한다.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언론인 개인 차원(언론인의 인구학적 속성, 태도·가치·신념, 직업윤리, 동료 언론인 등)에서부터, 미디어 관행(뉴스 가치, 출입처·엠바고,¹⁹⁾ 오프더레코드²⁰⁾ 등의 취재 관행), 조직(고용주, 소유권 구조, 조직 편제 등), 미디어 외적 영향(정보원, 이익단체, 타 언론사, 광고주, 수용자, 정부 등), 이데올로기적 차원(사회의 가치관과 규범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 걸쳐 있다(Shoemaker & Reese, 1996).

- 위축 효과

엄격한 규제나 통제로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언론인이 권력 주체의 영향력을 인식해 자기검열을 함으로써 관련 사건이나 이슈를 보도하지 않는 행위,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을 축소하거나 긍정적으로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 출입처 제도

기자가 취재를 함에 있어 아무데나 무작위로 다녀서는 뉴스가 될 만한 사

19) 엠바고(embargo)란 언론이 취재원(정보원)과 사전에 합의해 보도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내용의 보도가 그 시점에 이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이 너무 크다고 예상될 때 취재원 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란 취재원이 비보도를 전제로 언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지칭한다. 오프더레코드로 제공된 정보의 경우 기자가 사건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만 이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취재원의 신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언론 보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건을 발견하기 어렵다. 때문에 취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청와대, 국회, 경찰서, 법원, 대기업 등)을 고정적으로 출입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출입처 제도라 칭한다.

출입처 입장에서는 언론 노출을 통한 홍보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고 언론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출입처에는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 및 송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출입처 제도가 기자들에게 취재 보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출입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조직들에 관한 보도 건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 뉴스통신사

개별 언론사가 전국, 나아가 세계 각지의 뉴스를 다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규모가 작은 언론사일수록 더 그러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뉴스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정도 뉴스를 공급받아 자사 지면이나 웹사이트 등에 전재하고 있다. 뉴스통신사란 독자적으로 취재 조직을 꾸려 언론사 등을 대신해 뉴스 및 기사 자료를 수집해서 배포하는 조직으로, 일종의 ‘뉴스 도매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민영 통신사인 뉴시스와 뉴스1 등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AP, AFP, UPI, 로이터(세계 4대 통신사)가 대표적이다.

• 데스크

신문사 편집국 혹은 방송사 보도국에서 일선 취재기자들의 취재를 지휘 및 감독하고 취재된 내용의 보도 여부, 편집 방향 등을 결정하는 직위 혹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저널리즘 용어다. 데스크의 역할은 보통 각 부서(사회부, 국제부, 문화부 등)의 부장이 담당하며, 차장이 부장의 데

스킹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은 방송사의 재원이 공공 기금으로 조성돼 공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 지상파 3사 중 KBS와 MBC는 공영방송, SBS는 민영방송이다.

두 공영방송사 중 KBS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가 주요 재원 중 하나(특히 KBS1 채널), 국가에서 직접 재정을 관리 및 통제하는 국영방송과 달리 정부로부터 독립돼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에 해당한다.

MBC의 경우 재원에 수신료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공기관이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공 기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으로 분류되고 있다.

SBS는 (주)SBS미디어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대주주인 민영방송이다.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 및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회사 형태로,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불린다.

- 국민주 언론사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대주주가 존재하고, 따라서 언론사의 운영이나 보도 방향에 몇몇 대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에 비해 국민주 언론사는 일반 국민들이 소액의 기금을 모아 창간하고, 다수의 소액 주주들과 사원 주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국내에는 한겨레가 유일한 국민주 언론사다. 한겨레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끝난 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7만여 명의 국민이 기금을 모아 설립한 언론사다.

- 협동조합 언론사

조합원들의 출자로 언론 법인을 설립하고, 언론사 운영에서도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대신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일정액을 재원으로 삼는다. 때문에 협동조합 언론사의 조합원은 사주로서의 지위와 뉴스 이용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협동조합 언론사가 기존 주식회사 형태의 언론사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출자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대주주와 같이 권력을 지닌 부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최초 협동조합 언론사는 프레시안이며, 이외에도 국민TV, 느티나무통신(충북 괴산), 순천광장신문 등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

5) 5단원: 뉴스 보도 원칙

- 정확성

뉴스 보도에서 정확성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의미한다. 사실로 밝혀진 정보만을 뉴스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확성의 원칙이므로, 사실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정보를 속보의 목적으로 보도한다거나 추측성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공정성

뉴스가 공정하다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해 한쪽 입장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입장이나 주장 또한 함께 다룬다는 의미다. 예컨대 어떤 정치인의 비리 혐의를 파헤쳐 보도하는 경우, 그 비리를 입증할 증거나 증언만으로 기사를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 해당 정치인이나 그 측근에게 혐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반론 기회를 제공한 후 그 내용까지(취재를 거부해 반론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면 취재 거부 사실을 명시) 함께 다뤄야만 보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 독립성

보도의 독립성은 넓게는 언론사 사주, 광고주,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기사 내용이나 보도 방향이 영향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는 언론사 내부에서 사업 영역(광고 등의 수익사업)으로부터 편집부(뉴스제작부)가 완전히 독립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투명성

보도가 투명하다는 것은 취재 과정, 취재원, 인용된 자료의 출처 등이 명확히 밝혀질 때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형태의 저널리즘 가치는 인터넷 시대에 부상했다. 기사에 인용된 각종 자료에 대해 그 원자료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높아진 투명성이 과거에 지배적인 가치였던 객관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 객관주의 저널리즘

보도에서 객관성은 말 그대로 기자의 주관에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 시각에서 기사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이런 규범적 가치와는 조금 다르다. 초기의 신문은 특정한 정파성이나 이념을 지닌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문이 대중화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한쪽 입장을 강하게 내세울 경우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이고 비정파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관행 또한 외적으로 비쳐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요컨대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신문이 정파지에서 대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기계적 중립성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완전한 보도를 위해 중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논란에 휘말리거나 특정 진영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으로, 양쪽 입장을 50 대 50 비율로 다루려 하는 것을 기계적 중립성이라 칭한다. ‘계량적 객관성’ 또한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다. 양적으로 중립성을 추구하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심층적 보도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권력을 견제 및 감시하는 언론의 원래 기능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정보원 평가 기준

보도에 인용된 정보원·취재원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대표 기관 중 하나인 스톤이브룩대학 ‘뉴스 리터러시 센터’에서 제안한 6가지 기준(IMVA/IN)을 소개한다. ① 정보원이 독립적인가(independent), ② 복수의 정보원을 인용했는가(multiple), ③ 검증된 정보원인가(verified), ④ 정보원이 권위가 있는가(authoritative), ⑤ 정보원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informed), ⑥ 정보원이 누구(혹은 어느 단체)인지 밝혀져 있는가(named).

• 탐사보도

탐사보도는 심층 보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초점을 둔 보도 형태다. 언론과 언론인이 마치 수사기관 및 수사관과 같이(정치 혹은 경제) 권력의 비리나 범죄 등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깊이 있게 파헤쳐 기사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취재가 이뤄진다.

6) 6단원: 뉴스 생태계 구조

• 뉴스 생태계

뉴스가 생산·유통·소비되는 전체 지형을 일컫는 학술 용어다. 생물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의미하는 ‘생태계’를 뉴스와 결합해 만든 합성어로, 뉴스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학계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미디어 업계에서도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 뉴스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와 관련해 쓰일 때는 이용자와 미디어 콘텐츠가 만나는 접점의 의미를 띠고 있다. 때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콘텐츠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디바이스(단말기)에도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뉴스 플랫폼은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뉴스 노출에 이용되는 디바이스 둘 다를 포괄할 수 있다. 서비스 기반 뉴스 플랫폼의 예로는 포털 뉴스, SNS, 뉴스 큐레이션 사이트 등을 들 수 있고, 디바이스 기준으로는 PC 기반 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프린트 등이 포함된다.

• 디지털 퍼스트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인쇄판 발행이 중심이 되고, 온라인판이 부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이 신문 발간 일정에 맞춰 기사 취재와 편집이 이뤄지고 그렇게 생산된 기사들이 인쇄판에 실리지 못한 다른 기사들과 함께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다. 그런데 뉴스 소비 및 유통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쇄 버전보다 온라인 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사를 생산하고 그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일컫는 용어가 디지털 퍼스트다. 일부 언론사들은 모든 기사를 디지털 버전에 적합하게 생산해 일차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고, 그중 일부를 골

라 인쇄 버전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바일 퍼스트와 모바일 온리

뉴스 이용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모바일의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 프린트보다 온라인을 우선시하는 디지털 퍼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 플랫폼용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생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모바일 퍼스트라 칭한다. 모바일 온리는 다른 포맷이나 플랫폼 유형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말한다.

- 뉴스룸

언론사나 뉴스 서비스사의 조직 내에서 뉴스를 생산하고 편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및 그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다. 신문사의 편집국, 방송사의 보도국이 대표적인 뉴스룸 유형이다. 국내에서는 오프라인용(종이 신문, 방송 등) 뉴스룸과 온라인용(인터넷, 모바일, SNS 등) 뉴스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데, 효율적인 뉴스 생산 및 뉴스 콘텐츠의 다차원적 활용을 목적으로 뉴스룸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온·오프라인 뉴스룸 조직이 합쳐진 것을 통합 뉴스룸이라 부른다.

- 기사 어뷰징

‘어뷰징(abusing)’은 원래 오용, 남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다. 뉴스와 관련해 쓰일 때는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약간만 수정해서 반복적으로 재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뉴스소비가 주로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함에 따라 언론사들이 포털에서 기사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악용하는 방법이다. 포털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기사를 찾을 때 이렇게 동일 기사를 반복 재전송하게 되면 클릭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

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에서 이러한 어부징이 주로 발생하는데, 실시간 검색어로 어떤 것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많다. 또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실시간 상위 검색어들을 기사 말미에 삽입해 검색 결과에 해당 기사가 걸리게 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 기사 클러스터링

기사 어부징 및 타 언론사 기사를 베껴 쓰는 관행 방지를 위해 네이버나 다 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검색 결과에서 내용 유사도가 높은 기사들을 한꺼번에 묶어 보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러스터(cluster)’는 원래 유사성이 높은 집단이나 군집을 의미하는 용어다.

7) 7단원: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 정보 과부하와 정보 홍수

정보 과부하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보다 많은 정보가 주어져 정보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인지적으로 피로함을 겪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정보 홍수는 대량의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와 개인이나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을 물이 넘쳐나는 홍수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두 용어 모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뉴스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정보들이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분별 있게 선택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정보량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진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곤 한다.

- 언론사 닷컴

인터넷에서 기업에 부여되는 도메인인 닷컴(.com)을 ‘언론사’와 붙여 만

든 합성어로, 신문·방송 등 오프라인 언론 매체들이 인터넷 등장 이후 온라인에 만든 웹사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다.

• 정확성과 속보성의 패러독스

뉴스 보도의 대표적 규범원칙인 정확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거친 후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주요 뉴스 가치 중 하나인 시의성을 높이고 다른 언론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속보성 또한 언론사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정확성을 높이려 하면 속보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크고, 반대로 속보성에 치중하다 보면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둘 사이의 모순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 정확성과 속보성의 패러독스다.

전통적 오프라인 매체들이 한 번 뉴스를 내보내면 수정이 어려웠던 것과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수시로 수정과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요즘은 그 시점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우선 기사를 써서 업로드하고 이후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해 기사를 업데이트하거나 후속 기사를 작성하는 관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음의 보고서에서 정확성과 속보성의 패러독스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전통적 저널리즘 원칙들의 준수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참고 자료: 양정애·김선호·박대민(역). (2015).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 정확성, 독립성, 불편부당성』. 한국언론진흥재단(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유목형’ 뉴스 읽기

뉴스를 이용함에 있어 한 언론사 내지 한 뉴스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거나 기사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닌다거나 한 사이트 안에서 여러 페이지를 왔다갔다하며 대략

훑어보는 뉴스 소비 패턴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떠도는 유목민의 모습과 유사하다 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러한 이용 행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 뉴스 소비자

‘생비자(prosumer)’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생산 소비자 혹은 참여형 소비자라고도 불린다. 현대사회는 여러 영역에서 소비자가 생산의 영역에 적극 참여 및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고, 뉴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뉴스 생산(그리고 뉴스 유통)에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여하고 있고, 이러한 참여형 뉴스 소비자를 일컫는 용어가 뉴스 생비자다.

8) 8단원: 뉴스 소비 심리

- 의제설정

언론이 어떤 이슈를 강조해 보도하면 수용자들 또한 그것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해당 이슈가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언론의 기능을 의제설정이라 칭하는데, 매콤스와 쇼(McCombs & Shaw, 1972)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바 있다. 의제설정은 보통 게이트키퍼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어떤 이슈들을 보도할 것인가(동시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됨), 선택된 스토리들을 어느 분량으로 어떤 위치에 배치할 것인가(뉴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달리 부여되는 편집 과정), 또 얼마의 기간 동안 몇 번을 보도할 것인가와 같은 의사 결정에 따라 의제가 달리 설정된다. 이를테면, 신문 1면의 상단에 위치한 기사는 5면 하단 기사보다 더 눈에 잘 띄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기사로 인식되며, 일주일 동안 언론에 오르내린 기사가 한두 번 보도된 기사보다 더 중요

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스미디어는 정보가 선형적(linear)으로 구성되는 반면(예를 들어, 신문의 경우 1면에서 끝면의 순서로),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에서는 정보가 비선형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조직돼 있다. 즉,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연결지점(노드)들이 복잡한 그물망 형태로 상호 연결돼(링크) 있다. 때문에 선형적 미디어에서와는 달리 하나의 정보 지점에서 다른 정보 지점으로 손쉽게(링크 및 검색 기능 등을 활용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구현되는 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노드와 링크의 연결망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조직 형태를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라 부르는데, 전자는 연결된 정보들이 주로 텍스트 기반일 때, 후자는 그래픽,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적 요소들 위주일 때 칭하는 용어다.

- ‘낚시성’ 제목

이용자의 흥미를 끌어 내용을 보게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붙인 제목을 말한다. 낚시성 제목은 보통 내용과 일치도가 낮고,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주변적인 요소를 확대한 것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 시대 이전에도 이러한 낚시성 제목이 존재했지만, 서로 다른 페이지에 위치하는 제목(헤드라인)과 본문 내용이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의 하이퍼텍스트 구조에서는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제목 소비자

기사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제목 위주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

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 개념은 사실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잉글리시(English, 1944)가 70여 년 전에도 이 용어를 언급했을 만큼 제목을 중심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는 과거부터 꼭 존재했었다. 다만,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뉴스 사이트의 시작페이지에 헤드라인만 꼭 제시돼 있고(소수 주요 기사의 경우 한두 문장 정도가 시작 페이지에 제목과 함께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헤드라인만 제시됨), 그것을 일일이 클릭해 보기 전까지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특징으로 인해 제목 소비자의 비율이 더 늘었다고 할 수 있다.

•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

뉴스를 연성과 경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뉴스를 유형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다. 그 구분에는 뉴스 주제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접근 방식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정치, 경제, 국제와 같이 시사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주제들이 보통 경성 뉴스로 분류되고, 연예·스포츠를 비롯한 각종 엔터테인먼트 영역, 문화, 생활정보 등이 대표적인 연성 뉴스 주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동일한 뉴스 주제에 속한 기사라 할지라도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틀 짓는가에 따라서 경성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연성 뉴스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에 대한 기사는 보통은 경성 뉴스이겠지만, 공인으로서 지위나 자격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상과 같은 부분을 다룬 기사라면 이는 정치와 본질적으로 관계없는 인간적 흥미를 위한 연성 뉴스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기사더라도 그 연예인이 관련된 음원 순위 조작이라든가 연예기획사의 구조적인 문제와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은 경성 뉴스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특히 사회 뉴스의 경우, 뭉뚱그려 경성 혹은 연성으로 취급하는 접근에

는 문제가 있다. 사회 뉴스에는 중요한 사회 현안을 다룬 것들도 많이 포함되지만 인간적 흥미 위주의 사건사고 뉴스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를 큰 주제군을 기준으로 단순히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분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9) 9단원: 뉴스 이용의 개인화

• RSS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초간편 배달)' 혹은 'Rich Site Summary(풍부한 사이트 요약)'의 약자다. 업데이트가 매우 자주 발생하는 웹사이트(뉴스 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업데이트 내용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RSS 기능을 제공하는 특정 웹사이트(혹은 그 웹사이트의 특정 섹션)를 RSS 리더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두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업데이트가 이뤄진 내용이 RSS 리더 프로그램에 전송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새 글에 대한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

• 팔로잉과 팔로어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이용자들끼리 관계를 맺는 방식에 쓰이는 용어다. 팔로잉(following)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의 글을 구독하고 싶을 때 내 쪽에서 그 계정의 구독을 신청하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내 계정에 대한 구독 신청을 하면 그 상대방이 내 팔로어(follower)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쓰거나 공유한 글은 내 계정의 타임라인에 나타나며, 나를 팔로잉하는 사람들의 타임라인에는 내가 쓰거나 공유한 글이 보이게 된다.

• 뉴스스탠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메뉴 중 하나로, 각 언론사 홈페이지의 주요 기사를 네이버 와이드 뷰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언론사 웹 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언론사별 편집관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MY뉴스’ 설정을 통해 원하는 언론사의 기사만 보는 것도 가능하다.

• 뉴스 큐레이션

‘큐레이션(curation)’은 미술작품 등의 전시를 기획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큐레이터(curator)’에서 파생했다. 큐레이터가 예술 영역에서 그러하듯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보 영역에서 특정 주제의 콘텐츠를 수집·선별·재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 영역에서도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가 증가 추세에 있다. 뉴스 큐레이션이란 수많은 뉴스 콘텐츠를 수집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재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후 제공하는 고도의 편집 서비스라 정의할 수 있다.

• 선택적 노출

뉴스를 포함한 정보 콘텐츠에 노출할 때 다양한 콘텐츠를 균형 있게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존 태도나 가치관, 이념 성향, 관심사 등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메시지를 회피하는 편향성을 일컫는 학술 용어다. 앞서 각주를 통해서 밝혔듯이 이러한 선택적 노출의 경향은 ‘확증 편향’ 혹은 ‘일치 편향’이라고도 불린다. 선택적 노출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자신의 기존 태도나 신념과 어긋나는 메시지를 접할 경우 인지적으로 불편한 상태이기는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 불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 필터버블

엘리 페리저(Eli Pariser, 미국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 이사장)가 2011년 발간한 동명의 저서(The Filter Bubble)²¹⁾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구글, 야후 등 글로벌 검색엔진 업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보 편식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점차 자신만의 정보막 안에 갇히게 되고 그 바깥의 정보나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상을 꼬집고 있다. 프레이저는 필터버블 발생의 원인으로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꼽았다. 그는 개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개별 이용자가 관심 갖고 좋아할 만한 정보만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늘 비슷한 콘텐츠만 소비하게 되고 확증 편향은 더 강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공 이슈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추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10) 13단원: 뉴스로 보는 세계

- 글로벌 통신사

앞서 4단원의 용어 해설에서 제시했듯이, 뉴스통신사는 언론사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뉴스 및 기사 자료를 수집 및 판매하는 ‘뉴스 도매상’이다. 우리나라의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은 자국 내 언론사들에 뉴스를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이고, 글로벌 뉴스통신사들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언론사들에 뉴스를 공급한다. 국내에서 보도되는 해외 뉴스의 상당 부분도 이들 글로벌 통신사에서 공급받는다. 대표적인 글로벌 통신사로써 소위 ‘세계 4대 통신사’로 불리는 미국의 AP(Associated Press)와 UPI(United Press International), 영국의 로이터(Reuters), 프랑스의 AFP(Agence France

21) 국내에서는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에 번역 · 출간되었다.

Presse)가 있다. 뉴스를 공급하는 지역의 규모가 이들보다 좁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이타르타스(ITAR-TASS), 일본의 교토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등도 글로벌 통신사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 아랍의봄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체 지역으로 확산된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물결을 지칭한다. 독재정권의 부패, 빈부격차, 청년 실업 등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시위가 이듬해인 2011년 1월에 재스민혁명으로 확대됐고, 그 결과 튀지니는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같은 해 2월 이집트 또한 코사리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며, 이 외에도 리비아, 예멘 등에서도 장기 집권한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이러한 혁명적 시위의 확산에는 SNS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시위를 조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으며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 아이스버킷챌린지

근육의 마비가 차츰차츰 진행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¹⁾이 병에 걸렸던 미국의 유명 메이저리거의 이름을 따 일명 ‘루게릭(Lou Gehrig)’병으로 불리고 있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환자들을 돕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면서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하면, 지목 받은 사람이 24시간 안에 얼음물로 샤워를 하거나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기부를 하는 식으로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다. 얼음물 샤워를 하는 이유는 얼음물이 닿을 때 느껴지는 근육 수축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게 하자는 취지다. 이 캠페인은 루게릭에 걸린 친구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 코리 그리핀이 2012년에 처음 기획했고, 정치인, 연예인 등 각종 유명 인사들이

동참하면서 확산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졌다.

11) 14단원: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 시민참여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

말 그대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저널리즘을 일컫는다. 시민이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참여형(participatory)’ 저널리즘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시민기자들이 취재를 담당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온라인 미디어인 오마이뉴스가 대표적인 시민참여 저널리즘 매체다. 또한 일반 언론사에서 시민기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민기자’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해 블로그나 게시판, SNS 등의 공간에서 공유하는 것 또한 시민참여 저널리즘 활동에 포함된다.

- 집단지성

다수의 개인이 각자 지닌 지식·정보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 및 경쟁을 통해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집단지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로부터 모인 이러한 협력적 지성이 우수한 몇몇 사람이나 소수 전문가의 지적 능력보다 낫다고 가정한다.

이 개념의 최초 발원지는 미국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William Morton Wheeler)가 1910년에 출간한 저서 『개미: 그들의 구조, 발달, 행동(Ants: Their structure, development, and behavior)』으로 알려져 있다. 휠러는 힘이 약한 개미가 협업해 거대한 개미집을 만들어 내는 것을 근거로, 개체로 보면 그 힘이 매우 미미한 개미가 집단을 이뤄 협력하면 집합적으로는 매우 높은 지능체계를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의 생산 및 공유가 매우 손쉬워졌다는 점 때문에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이러한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인터넷 시대의 대표적인 집단지성 사례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오픈형 지식백과사전 ‘위키피디아(위키백과)’, 일반 회원들끼리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네이버의 ‘지식iN’ 등이 손꼽힌다.

• 크라우드 소싱

대중 혹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외부 자원 활용으로 번역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이 합쳐진 신조어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일반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내부의 한정된 인력에서 얻기 힘든 신선한 아이디어를 일반 대중에게 이끌어 내는 동시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지닌 잠재 고객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참여하는 일반인들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도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뉴스타파의 2013년 ‘조세피난처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더불어 뉴스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 대중에게 소액의 후원금을 받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다음 뉴스펀딩’이 이에 해당한다.

12) 15단원: 책임 있는 뉴스 소비자

• 명예훼손

개인(혹은 법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관련된 것, 즉 이름, 인격, 직위, 신분, 사회적 지위 등에 해를 끼쳐 그 결과 명성이나 신용,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모욕감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예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만한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형법에서는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 포함된다. 민법에서는 제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불법 행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

- 리드(lead)

신문, 인터넷 신문과 같은 텍스트 중심의 언론 매체에서 기사 내용의 핵심을 간추려 제목과 본문 사이에 배치하는 문장을 말한다. 헤드라인만으로도 담아내기 어려운 요지를 부제의 역할을 하는 리드를 통해 제시해 줌으로써 독자들이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기사를 읽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 임베드(embed)

특정 웹사이트의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나 서비스로 손쉽게 퍼갈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를테면, 유튜브상의 게시물을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그대로 옮겨와 보여 줄 수 있게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게시물 퍼가기 기능이 바로 임베드인 것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게시물의 원래 형태로부터 변형 없이 다른 웹페이지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하지 않고 게시물을 공유 및 확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상호작용성

학술적으로,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션이 그 자체에 과거를 반영하고,

과거에 의존하며, 그에 반응하는 정도”(Newhagen & Rafaeli, 1996, p. 6)라 정의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신문,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성이 매우 낮은 유형이다. 신문 독자가 특정 기사를 선택해 읽거나 방송 시청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본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내용, 즉 콘텐츠에 변형을 가져올 가능성은 아주 적다. 매스미디어의 경우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며, 수용자 쪽에서 커뮤니케이터(송신자) 쪽으로 정보가 흐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성이 높은 매체다. 이를테면, 이용자가 특정 주제의 콘텐츠를 자주 선택하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이용자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나 커뮤니케이터와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다. 상호작용성이 가장 높은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인간과 미디어 사이의 상호작용 기술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수준이 바로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같은 완전한 상호작용성이다.

13) 16단원: 뉴스와 개인의 권리

• 기자윤리강령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특정 직군이나 조직, 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업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윤리 덕목을 만들어 제정한 것으로, 일종의 자율 규제 장치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으로 인해 언론인에게도 이러한 윤리강령에 대한 요구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됐으며, 그 결과 언론윤리강령이나 기자윤리강령(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

율규제 조항)이 각종 언론(인)단체 및 개별 언론사에 마련돼 있다.

내용 해설에서 제시했던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윤리강령 외에도, 1957년에 처음 제정된(현재 버전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에 의해 개정) ‘신문윤리강령’ 또한 대표적인 언론윤리강령 중 하나다. 신문윤리강령에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책임’을 비롯한 총 7개의 강령과 16개의 실천요강이 포함돼 있다.

• 재난보도준칙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를 계기로 재난 상황에서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고자 5개 언론 단체(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보도준칙을 제정해 발표하였다.

재난보도준칙은 부칙을 제외하고 총 3개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1장에서는 준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소개하고, 2장은 취재와 보도에서의 일반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업체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3장은 준칙의 준수와 관련한 언론사의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피해 사건을 접수해 조정 및 중재하고 언론의 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근거해 최초 설치됐으며, 현재는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근거, 선거 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기사를 심의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언론 보도와 관련한 피해를 당한 개인 및 단체가 접수한 조정 혹은 중재 신청에 대해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중재위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두 번째 기능은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내용을 심의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은 내용, 공익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다. 셋째, 선거 시기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선거 보도에서 공정하지 못한 내용이 발견되면 사과문·정정보도문 게재, 혹은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언론 보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들 중 정정 보도는 사실이 아닌 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사가 기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밝히는 정정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다. 반론 보도는 언론 보도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 언론 보도 피해 구제 방법으로, 언론에 범죄 혐의나 형사 조치 보도가 나간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무죄 사실을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후 보도 청구,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04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이 장에서는 국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제안에 초점을 두었다. 국내 중·고등학교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체계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논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 내 전반적인 미디어교육 활동 및 지원 체계 현황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에도, 명백히 뉴스 리터러시 제고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적으로나 현장의 실행적 차원에서나 뉴스 리터러시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유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국내 미디어교육의 현실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계의 전반적 상황을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먼저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행 미디어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

고등학교 미디어교육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향에 부합하면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어야 할 교육 환경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1. 뉴스 리터러시 교육 현황 및 지원 체계의 문제점

국내 중·고등학교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동이라고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부를 만한 프로그램이 운영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뉴스 리터러시’는 학교 내 공식적인 교육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교육 활동에서 부분적으로 연관된 활동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학교 미디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여전히 주변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중반 미디어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방편의 일환으로 공교육화 논의로 이어졌다. 이후 학교는 본격적으로 미디어교육의 주요 주체 중 하나로 부상했다(전경란, 2009). 그럼에도, 학교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관계당국 등 여러 주체로 형성된 미디어교육을 둘러싼 지형에서 체계성을 갖추고 국내 환경에 맞는 교육 모형에 대한 성찰을 진전시키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미디어교육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미디어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논의가 최근까지도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김은규, 2012). 이에 그간 미디어교육이 학교보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주도했던 상황이 이어져 왔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이나 그와 관련한 연구도 미흡한 상태다(이성균·윤영두, 2010).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교 안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안착은 필요한 일이다. 학교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며 생애주기에 맞춰 성장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누적적이고 폭이 넓기 때문이다(김양은, 2005). 이에 향후 학교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학교 내에서 실제로 이뤄져 온 미디어교육의 현황을 먼저 점검하고자 한다.

1) 국내 중·고등학교 미디어교육 현황

본 절에서는 현행 학교 미디어교육을 그 대표적인 형태인 교과 학습 내 미디어 관련 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활동, 학생 스스로의 자율활동 및 기타 유형으로 구분해 파악하였다. 각 형태별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내용 및 방식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1) 정규 교과교육의 변방에 위치한 미디어교육

정규 교과교육에서 미디어교육이 드러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변적인 교육내용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교육은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요 교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 일부 등장하는 수준에 있다. 부수적으로나마 미디어 관련 내용이 교과교육 안에 포함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미디어교육이 정규 교과 수업에서 부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시행된 7차 교육과정부터다(김언동, 2005; 송영필, 2005). 이후 교과서 내에 미디어 관련 내용이 증가하면서 교과수업을 통한 미디어교육은 개별 교과목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형태가 되었다.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의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이 그만큼 확대되어 온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나경애·이상식, 2010), 중·고등학생이 배울 수 있는 관련 교과내용은 양적·질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 4-1〉, 〈표 4-2〉, 〈표 4-3〉은 2011년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중·고등학생들이 국어과 및 사회과 교과수업에서 접할 수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 정리된 내용만 보아도 현재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은 파편화된 형태로 산발적이고 때로는 중복적으로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등장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용어들 및 정보도 그 개념, 범위,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 또한 교과과정의 체계화가 필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015년 9월에 공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 및 영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수준의 교과내용이 제시되는 과목은 발견되지 않는다(교육부, 2015; NCIC, 2015).

학교 교육과정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자리 잡은 미디어교육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더욱 부차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중·고등학교 교과학습에서 사용되는 국어과 교과서와 사회과 교과서에는 ‘뉴스’라는 단어조차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뉴스는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콘텐츠 중 한 종류로 전제되어 있을 뿐이며, 이러한 상황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교과수업 안으로 진입해 활성화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디어교육의 주변화 경향은 현행 학교 교육과정이 미디어교육을 교수법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표 4-4〉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미디어 콘텐츠 활용을 통해 특정 교과목의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미디어교육의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다. 신문을 활용하는 NIE가 정보화 사회의 교육현장에서 교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표 4-1〉 중학교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

(과목)과정영역	내용 성취 기준
듣기·말하기	(9)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 발표내용을 구성할 때 매체자료 이용윤리, 인터넷이용윤리, 발표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읽기	(2)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문자로 된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에 사용된 자료도 포함한다.
쓰기	(8) 영상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온라인대화, 인터넷게시판 댓글, 전자우편, 블로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한다. (10)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인터넷 등에 허위내용 및 악성댓글 유포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쓰기 등을 지도한다.

〈표 4-2〉 중학교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

(과목)과정영역	내용 성취 기준
일반사회영역	(2) 문화의 이해와 창조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화와 미디어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다. ③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와 미디어 간의 상호 작용(예: 문화의 전달과 창조)을 인식한다.

〈표 4-3〉 고등학교 사회·문화 개정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

(과목)과정영역	내용성취기준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가족, 교육, 대중매체, 종교 등의 사회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기능 등을 파악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④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표 4-4〉 사회과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중·고등 공통)

교수 학습 방법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정보 처리와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해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 활용 교육(IIIE), 영화 활용 교육(MIE), 이러닝(E-Learning) 교육,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학습 방법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즉, 특정 교과 내용과 관련된 신문·방송·인터넷 기사들을 인용, 해석하면서 해당 교과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수단(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육이 주변적이고 도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시민성 함양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교과수업 내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 기존 교과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던 ‘뉴스’를 독립적인 교과로, 혹은 교육과정의 주요 영역으로 인식하도록 전환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시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 현황

국내 중·고등학생 대상의 미디어교육은 학교 교과 수업에서보다는 오히려 비교과 활동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자유학기제의 실시로 이어지기까지, 학교의 주요 비교과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주로 실행돼 왔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발표한 “창의·인성교육 기본 방안”에 기초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한다. 교육부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시수 동안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방학 등의 시

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외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필수 활동이 아닌, 교과활동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핵심 활동이며,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된다(〈그림 4-1〉 참조). 학생들이 각 활동 영역을 통해 대인관계능력, 협동적 학습능력을 익히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자아실현의 기초를 마련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창의적 체험 활동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유관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디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에서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 혹은 학생들이 기관을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신설된 주요 배경 중 하나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교과외 활동의 실효성을 고양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인 만큼, 각 단위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유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그림 4-1〉 창의적 체험 활동의 총괄목표 및 활동 영역

총괄목표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 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한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발성에 바탕을 둔 변화 환경 대응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형성	취미 및 특기 개발, 협동적 학습 능력과 창의적 태도 형성	나눔과 배려, 실천, 자연환경 보존,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삶의 가치 이해	자아 정체성 확립과 진로 탐색 설계, 진로 결정 및 준비

출처: 크레존 홈페이지(http://www.crezone.net/?page_id=300)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조영남, 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2015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은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방송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 민간 미디어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시·구립 청소년 관련 기관, 방송사 및 미디어 관련 기업 설립 체험센터 등이 있다. 상기 기관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 연계 프로그램들이 2015년 9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운영자들에게 추가로 문의했다. 특히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주제 연구보고서 『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서 파악했던 미디어 관련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프로그램이 2015년 9월 현재에도 유지, 확대 혹은 축소되었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 4-5>와 <표 4-6>은 그러한 보완 조사 결과를 덧붙여 재구성한 운영 현황이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영상 제작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관련 교육은 곧 영상제작 교육이라는 등식으로 설명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편향적이다.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임에도 영상 제작, 특히 다큐멘터리나 영화 장르 제작에 치우쳐 있다. 학생들이 영상 제작을 통해 미디어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것도 미디어교육의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제작 기법이나 영상 기기 활용 기술에만 집중하게 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4-5〉 미디어센터의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요

기관명	교육 내용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체험(꿈스꿈스): 파랑TV, 행복뉴스, 라디오스타 등 • 교육(리터러시 및 기획, 영상 제작, 제작 특강, 스마트 기기 활용 등)
광주시청사 미디어센터	체험! 미디어누리(영상 체험, 라디오 체험, 스마트 기기 체험), 미디어교육(영상, 사진, 편집 등)
제천영상 미디어센터	학교 영상교육, 영상캠프, 영상제작 교실 등
서울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	미디어 체험(뉴스제작, 만화를 이용한 영상 제작 등), 미디어교육(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멘토링), 미디어스쿨(탈학교 청소년 대상 미디어전문인 자기주도 학습 대안학교 운영)
원주영상 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학교(영상반, 라디오반 등), 영화 상영
제주영상 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견학: 스튜디오, 녹음실, 상영관, 미디어체험실, 미디어편집실 등 시설 견학(방송 과정 체험 교육, 영상물 제작 지원 등)
익산공공영상 미디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미디어센터 둘러보며 활동지 해결하기 • 미디어센터시설100% 활용하기(다양한 장르의 영화 감상, DVD 및 서적 열람 과 휴식 공간 이용,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센터를 통한 자치 활동의 커뮤니티 공간 이용 등)
강릉시영상 미디어센터	네모난 세상 속으로, 세상 밖으로(교정 시설 청소년, 소외지역 중· 고등학교 미디어교육 등
옥천군영상 미디어센터	아나운서 교실, 포토숍, 스마트폰 따라잡기, 동네방네 영화관, 단편영화 제작 등
부천영상 미디어센터	DMZ Docs 청소년 다큐멘터리 제작, 학교에서 미디어로 소통하자 등 (2015 현황)정상운영, 이헬로비전 부천방송과 업무협약 체결
남구청소년 미디어센터	미디어 놀이터(포토샵, 방송국, 다큐멘터리, 사진, 영화 제작 등)
고양영상 미디어센터	미디어문화학교(미디어 제작기술, 미디어 인문학, IT기술 등), 초중고 방송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14-10, 『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 46~48쪽.

〈표 4-6〉 공공 기관 및 시·구 청소년 관련 기관의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요

구분	기관명	교육 내용	2015 현황
공공 기관	한국언론 진흥재단	• NIE 거점학교 운영, 청소년 신문 제작 체험 교육,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 언론인 NIE 특강 •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및 전국 NIE 공모전 등	유지, 부분 확대
	한국인터넷 진흥원	인터넷 리터러시 창의적 체험 활동(진흥원 혹은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보안요원 되기, 소셜 미디어, 댓글 UCC 제작 수업 등), 인터넷윤리교실(주로 방과후학교로 운영되는 캠페인송, UCC 제작 수업 등)	유지, 부분 확대
시·구립 청소년 관련 기관	서울시립 성동 청소년 수련관	자기애(미디어 비평을 통해 본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축소, 폐지
	아산시청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디지털 사진 등 미디어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유지
	광양시청소년 문화센터	미디어는 내 친구 '우리 지역 콘텐츠 뉴스로 제작하기'	폐지
	관악 청소년회관	청소년미디어단(미디어 전문 교육, 청소년문화존 전시, UCC 제작 및 영상편집 등), 창의적 체험·방송스피치아카데미	유지
	고양시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영화감상회, 청소년 영상캠프(청소년 영상체험 활동 꿈을 쏘다 등)	폐지
	양산시 청소년광장	청소년시나리오창작교실, 청소년 방송교실, 양산청소년영상제, 청소년영상아카데미 '세상을 보는 wide-Angle' 등	축소
	부산 양정청소년 수련관	영상체험프로그램(캐릭터 그리기, 영상편지 만들기, 애니메이션 제작체험 등)	유지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성남시청소년미디어단(보도자료 작성,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꿈꾸는 영상제작(영상 제작의 기초, 시나리오 작성, 촬영 실습 등)	폐지
기타	대한민국 청소년방송단	• 전문 미디어교육(미디어 역사, 특성, 미디어직업군 소개, 정보 선별과 비평 등) • 창의적 체험 활동(방송 현장 체험, 각종 미디어 이벤트탐방, 특강, 진로체험 등) • 온라인 소통 활동(홈페이지 활용 도래, 전문가와 소통) • 청소년 전문 방송 채널 운영, 청소년 DJ 선발 등	축소 및 폐지
	광주영상 복합문화관	영화 교육과 미디어교육 통합 체험	폐지
	미디어영상 교육진흥센터	미디어스카우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방송반 운영 지원 등	축소

구분	기관명	교육 내용	2015 현황
기타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운영 등	유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디지털 미디어 홍보관, 디지털 파빌리온 투어 등	유지
민간	다음세대재단	미디어콘퍼런스, 유스보이스 Lap(미디어 실험, 창작, 놀이터 등), 프렌토(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또래 멘토링) 등	유지

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14-10, 『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서 정리한 내용(46~48쪽)에 2015년 현황을 조사해 보완한 것임.

영상 제작에 치우친 프로그램들은 창의적 체험 교육에서 중시하는 ‘꿈’과 ‘끼’를 발굴하는 데 중심을 두다 보니 정규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영상 관련 내용이 강화되기도 한다. 물론 다큐멘터리나 영화 장르를 제작하면서 서사 구성 및 텍스트 생산에 대한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제고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간과 수업 횟수를 보면 단기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많아야 학기당 10회 이내로 운영), 하나의 완전한 영상을 만들어 내는 단기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디어 디바이스의 기술적인 이용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탐미적 기술 활용에 그치게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영상 제작에만 치중한 현행 프로그램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나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추구하는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정규 교과와 대등한 것이 아니라 그에 종속된 채 기획·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평가받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은 정규 교과 과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직접적으로 주요 교과목과 연관되어 있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에 도움

이 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려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은 여전히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거나 시험 기간 때문에 수업 내용 및 진도가 조정되는 등,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입시 위주의 학사 운영으로부터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데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통로가 될 수 있으나, 처음부터 학교 교육의 변방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제한 요인이라 하겠다.

셋째,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춰 개발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영상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특히 그러하다. 주로 기존에 행해지던 전 연령 대상 교육을 단순히 중·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한 형태다. 교육 대상의 수요나 필요를 중심으로 기획된 프로그램들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해 상시 개설되어 온 프로그램들을 변형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들조차도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교육 운영 기관들은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운 처지다.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디어교육 전문 기관이 아닌 경우 특정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프로그램의 내용, 강사, 운영 전반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미디어센터와 미디어 관련 전문 기관이 아닌 시·구립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이 미디어 관련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할 수 있다.

그나마 공공 기관들은 대체로는 미디어 관련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 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은 있다. 그렇지만 다른 주체의 교

육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인원 대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상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들은, 특히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교육 실적 및 예산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참여 정도를 강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공공 기관의 경우 1년 단위로 사업 계획 및 예산이 새롭게 수립되고 매년 혹은 수시로 담당자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확보한 채 내실을 다지는 방향성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한, 또는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온 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하우의 축적이나 자료의 체계적인 전달 등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표 4-6>의 2015 현황을 보면 개괄적인 비교만으로도 연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3) 자유학기제를 통한 미디어교육의 현황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제도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 2015년 희망학교로 확대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동안에도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 교과와 수업은 진행되지만,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강의식·암기식 수업을 줄이고 토론,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하는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기본 교과와 시수를 일부 감축하여 자율 과정으로 운영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기본 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 과정을 배치한다. 자율 과정은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이라는 4개 영역을 포함한다. <그림 4-2>는 각 활동들의 세부 내용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미디어교육이 학교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네 가지 활동 영역 중 특히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진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명시한 미디어교육 유관 협업기관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EBS,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NIE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진로·적성 교육, 토론 교육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교육부 지정 선택 프로그램 베스트 10’에 선정되는 등 그 효과를 검증받고 있다고 한다(출처: 재단 내부자료). 또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5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그중 경력강사 과정을 이수한 20명은 8월 말부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 출강하기 시작했으며, 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인 ‘신문 내

<그림 4-2> 자유학기 자율 과정의 활동 영역

진로탐색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2회 이상의 전일제 진로 체험활동 진로캠프, 사회인사 특강 프로그램 자기주도 진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개설 학교간 동아리 연계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강사를 활용한 예체능 교육 내실화 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예체능 프로그램 편성 예체능과 교육간 융합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관심 분야 맞춤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원하는 프로그램 지속 개발 보급

출처: https://freesem.moe.go.kr/freesem/homepage/information/homepage_informInforMation.do

꿈을 펼치다' 교재를 활용하고 '뉴스를 활용한 진로교육', '창의적 글쓰기'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신규 강사 과정을 이수한 58명 중 수업 시연(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일정 기간 보조강사로 출강한 뒤 2016년부터 주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경력 강사는 60시간, 신규 강사는 120시간에 걸쳐 교수법 및 수업지도안 작성법, 뉴스 리터러시 및 뉴스 활용 교육 방법 등 미디어 강사 활동에 필요한 전문 역량 교육을 받았다. 재단은 이번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양성이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중심 수업, 체험형 교육 등과 같은 변화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의 사례를 보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자유학기제는 분명 청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첫째, 인력 수급의 문제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각지의 중학교, 특히 소외 지역에 파견할 강사들까지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²²⁾ 둘째, 학교 재량에 따라 채택되는 선택 프로그램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단위학교와 담당 교사들의 요구가 필수다. 그러나 서울·경기권에서 광역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개별 선택 프로그램마다 각별히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측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데, 담당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이 기존 창의적 체험 활동에 비해 차별화되는 이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가 미비한 이유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의 참여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22) 재단 미디어교육팀 담당자와의 인터뷰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시험이 없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주요 교과에서 학습능력이 퇴보할까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들을 포함해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을 통한 미디어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자유학기제라는 새롭게 맞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답보 상태의 미디어교육 지원법과 파편화된 지원 체계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교육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화된 국가 정책이 구체적으로 틀을 잡지 못한 국내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학교 내에서 지금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은 학교 안팎의 종사자들과 교·강사들의 희생과 연합 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이 시민단체의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미디어교육을 위한 강사 교육 및 학교 파견, 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교육 학습 자료 및 교재 발간과 배포, 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 차원의 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 등 미디어교육 사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김양은, 2009; 정현선 외, 2009).

그럼에도 그러한 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유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지원 체계의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법제화 시도는 수립 주체나 방식 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통적 접근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미디어교육지원법」²³⁾이다.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2013년 6월 소관위 심사에 상정된 이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는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와 연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발전과 확산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보여 준다.

(2) 교육부의 주도적 지원 미비

여러 정부 기관에서 미디어교육을 위해 지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의 교육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미디어교육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정현선 외, 2009). 그러나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교육 정책 실행 주체인 교육부가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디어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학교 밖 미디어교육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며 누적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그 크기가 훨씬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정미정·한찬희, 2013).

일부 학자들과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가 주도할 경우 기존 교육부의 폐쇄적인 교과과정에 미디어교육이 휩쓸릴 것을 경계해 반대하기도 하지만, 입시 위주의 공부가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 풍토에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중·고등학생 대상 미디어교육은 학생들에게 부수적인 것을 배우라고 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진로 교육 및 자유학기제 시행 등 학교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교육부가 유관 부처와의 연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23)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발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교육 정책 연구원인 미디어교육 유관 기관과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 필수적인 학교 안에서의 안착을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교재 개발 및 인력 지원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재 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점검해 보았다. 그간 학교 안팎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진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미디어교육 교재들이 개발되어 왔고 현재도 그 작업은 진행 중이다. 여러 개발 주체들과 협업 기관들이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교재의 양적 팽창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의 교·강사들은 여전히 적절한 교재가 부족한 것을 미디어교육 수업에서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정미정·한찬희, 2013; 김은규, 2012).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재들은 기획부터 개발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출간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유치·개설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촉박한 일정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설한 특별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교재를 길어야 몇 달 안에 급히 제작하다 보니 전문성을 확보한 집필진의 섭외부터가 어렵다. 시간에 쫓기는 일정에서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필진을 섭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담긴 교재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교재 기획 및 개발, 개발 후 활용, 그리고 활용 후 교육 효과 면에서 필수로 거쳐야 할 단계인 교재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

다. 해당 교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 및 개발되었으며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기획 방향과 현장에서의 활용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과 평가는 교재의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미디어교육의 효과를 파악하는 학술논문이나 연구보고서들에서 교재의 효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이미나, 2011; 성은모·임정훈·김세리, 2010; 손영준, 2004). 그러나 현장에서 교재에 대한 평가는 주로 교사들의 주관적인 평가, 그중에서도 계량적 평가가 빠진 질적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박한철, 2009).

교재 개발만큼이나 미디어교육 인력 지원 현황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학교 미디어교육 발전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은 교사들이었다. 특히 개별 교사들의 수업 운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적 효과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아무리 좋은 교재가 개발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그 내용과 교수법을 제대로 탐구하고 숙지하지 않으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 미디어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사 연수 및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현행 교과 연수에서는 미디어교육에 관련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과 내 미디어 관련 내용의 수업은 학교 미디어교육의 확장을 위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각 교과 교사들이 해당 시수의 수업에서 미디어교육의 측면을 강화, 심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법이나 교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연수 과정은 별로 없다. 물론 현행 교사 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과목의 일부 영역만을 강조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특정 교과 안에서 효과적인 미디어교육 교수법의 공유는 오히려 전국 교과 교사들의 네트워크 활동이나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연합 활동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노하우를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궤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비교과 활동 관련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한 교육의 비전문성이다. 국내 미디어교육의 양적 팽창에는 미디어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도 여러 기관을 통해 증가해 온 것 또한 한몫을 했다. 언론, 방송, 통신 유관 공공 기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한 강사들은 각각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방과후 수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의 가장 핵심 문제 중 하나가 교육 대상별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급변의 시기를 겪는 중·고등학생들과 접해 본 경험이나 이들 세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언론 유관자들, 또는 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강사들이 주체가 된 미디어교육활동들로 인해 국내 미디어교육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표 4-7〉은 최근 미디어교육사 양성 프로그램들의 대체적인 교육 내용과 유사한 시청자미디어재단·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공동 미디어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 리스트다. 이 과정 역시 교육 대상별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지 않다. 각 강의에 출강하는 강사들의 이전 경험이나 전문영역에 따라 초중고, 다문화, 소외 계층 등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 받는 정도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미디어교육강사 양성 과정(〈표 4-8~9〉)에서도 생애주기 단계별 교육 대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명시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셋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단기 속성 과정이라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양성 과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짧은 기간 안에 각종 매체를 경험 및 파악하고, 다양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며, 실습 및 현장 체험까지 마쳐야 한다. 이러한 빠듯한 일정에서 유능한 강사를 배출하려면 결국 참여하는 개별 인력의 역량과 의지 및 집중도에 기댈 수밖에 없다. 경력 강

〈표 4-7〉 시청자미디어재단-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공동 미디어교육사 양성 과정

차시	날짜	과목	강의주제	시간
1	9/7(월)	OT	오리엔테이션 / 전체 교육 진행 목적과 가치	2시간
2	9/10(목)	교직 과목	학교 교육 강사의 교직윤리와 인성	3시간
3	9/14(월)		초·중·고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례1	3시간
4	9/17(목)		초·중·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사례2	3시간
5	9/21(월)		교수법 노하우 / 학습자가 원하는 강의법	3시간
6	9/24(목)		교수- 학습 설계 / 한습 설계를 통한 수업전개 전략	3시간
7	10/1(목)		미디어 교육 활용을 위한 인문학 기초 및 교안 작성	3시간
8	10/5(월)	교육 실무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동유형 진단	3시간
9	10/8(목)	기획· 구성	영상 콘텐츠 기획 및 구성 1 - 시놉시스/트리트먼트/시나리오 구성 및 작성법	3시간
10	10/10(토)		영상 콘텐츠 기획 및 구성 2 /콘티 구성 및 작성법	3시간
11	10/10(토)		영상 콘텐츠 기획 및 구성 3 /5분 영상 제작을 위한 기획안	3시간
12	10/12(월)	라디오	라디오 매체의 특성 및 방송제작 과정의 이해	3시간
13	10/15(목)		라디오 방송 아이템 선정 및 기획	3시간
14	10/19(월)		라디오 제작 실습 및 교안 작성	3시간
15	10/22(목)	영상 촬영	영상 촬영 실무 - 카메라 기초	3시간
16	10/24(토)	영상 편집	영상 촬영 실습 - 카메라 실습	3시간
17	10/24(토)		영상 편집의 실제 - 프리미어 및 편집 소프트웨어 실습	3시간
18	10/26(월)		영상 편집의 실제 - 종합 편집의 이해와 실습	3시간
19	10/29(목)	영화 제작	영화의 분석과 지도법	3시간
20	10/31(토)		원-테이크 영화 제작의 이해	3시간
21	10/31(토)		원-테이크 영화 제작 실습 및 교안 작성	3시간
22	11/2(월)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기기 활용 미디어 교육의 실제 - 웹툰, 애니메이션, 타입랩스 등 다양한 앱 활용	3시간
23	11/5(목)		스마트 미디어기기 활용 미디어교육의 실제 실습 -스토리텔링과 앱 활용을 통한 작품만들기	3시간
24	11/9(월)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시대에 대한 이해와 사례	3시간
25	11/12(목)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이해와 활용	3시간
26	11/16(월)		1인 미디어 제작 실습 및 교안 작성	3시간

차시	날짜	과목	강의주제	시간
27	11/19(목)	미디어 교육 실무	프레젠테이션 스킬 업 - 스팟, 스피치	3시간
28	11/23(월)		대상과 매체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 - 영상 미디어, 뉴 미디어, NIE 활용 수업지도안 기획	3시간
29	11/26(목)		대상과 매체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2 - 미디어 교육 수업지도안 작성방법	3시간
30	11/18(토)	발표 및 마무리	•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교안 5분 발표: 수업 안 발표 및 피드백 / 토론 • 수료증 수여 및 마무리	4시간
합계			평일: 오후 7시-10시 * 토요일: 오전 10시-1시/오후 2시-5시 (1시간 휴식)	90시간

출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지도사 양성과정 모집 안내'

〈표 4-8〉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과정-신규 강사 커리큘럼

구분	신규 강사(120시간)
직무분야(60시간) 교직·교양 교수법 수업지도안	교사 윤리 및 기본 소양 교육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과 교육 매너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전략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
	미디어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
	학교급별 미디어교육 사례와 실제
	수업 디자인과 설계
	학습지도안 작성의 실제
	수업기술과 Teaching Tips - 발문법, 동기유발, 주의집중, 판서 등 학교교육환경 및 수업 환경
	학습자료 및 교구 제작 방법
	ICT 활용 팁과 전략
	포트폴리오 관리 및 피드백
	교육레크리에이션
	상호 교차수업 시연 및 강평

구분	신규 강사(120시간)
뉴스미디어교육 분야 뉴스 리터러시 (20시간)	일상 속의 뉴스
	뉴스의 기능과 가치
	뉴스의 차별성과 본질
	뉴스의 영향력
	뉴스의 생산 및 유통
	뉴스 소비의 심리학
	뉴스에 작용하는 다양한 압력
	뉴스 속의 뉴스
	뉴스의 신뢰도 평가
	뉴스의 가공과 편집
뉴스미디어교육 분야 뉴스 활용 (20시간) 뉴스미디어교육 분야 뉴스 활용 (20시간)	뉴스 매체 이해 및 활용 - 신문, 방송, 인터넷-분석 및 비교대조하기
	뉴스 매체 이해 및 활용 - 뉴스 생산 직업 탐구(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뉴스 제작과 공유 - 뉴스 생산 체험 및 활용 뉴스 제작과 공유 - 뉴스 생산 현장 방문
	뉴스의 교육적 활용
뉴스 미디어교육 분야 뉴스미디어 활용 (20시간)	SNS 세상 속에 자아 찾기(메신저, 메시지 등)
	개인 미디어콘텐츠의 생산과 공유(팟캐스트, 유튜브, 블로그 등)
	영상 제작과 품평회
	이미지 생산 및 활용
	웹툰과 애니메이션 알기
	미디어 속 음악의 세계
	게임과 균형적 활용

사의 재교육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교사 양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즉, 단기에 속성으로 완료되는 교육보다는 사후 관리가 가능하고 연속적인 연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 학교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불안정한 제도적 근거 위에서 개별 현장 교·강사들,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둔 학자들 및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발전해 온 국내 미디어교육이 보이고 있는 문제점들은 그간 교육 현장과 학계 양측에서 공통으로 지적돼 온 문제점인 비체계성과 비전문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김기태, 2007; 김은규, 2012; 김양은, 2005). 미디어교육이 시작된 초창기에 몇몇 관심 있는 개별 교사의 재량으로 이뤄지던 것에 비해 현재의 환경은 확실히 진화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간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이다. 현황 분석 결과, 교육 활동의 주체들, 교육당국과 정부 기관의 관심, 일선 교사와 시민단체 활동이 모두 상이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 있다 보니, 적용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체계적이고 비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후 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 또한 그 실행 주체에 따라 목표와 수업의 흐름이 상이한 경향이 발견됐다. 다음 절부터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견지하면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

2.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본 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해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현행 미디어교육 및 뉴스 리터러시 교육 관련 활동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된 비체계성 및 파편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어 온 교육활동을 연계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뉴스 리터러시 교육 주체인 기관·학교-교사-학부모-학생 간의 네트워크와 현행 유사 프로그램들 간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들이 연속적인 운영에 취약했던 구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1) 뉴스 리터러시 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현재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별로 주요 목표, 목적과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관련된 현행 프로그램들이 종교계, 시민단체, 학교 현장, 학계, 관계 당국 등 여러 주체로 형성된 복잡한 미디어교육 지형 안에서 파편화된 채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그 지점들을 잇는 대략적 지도가 그려지는 것만으로도 그 동안 미디어교육이 겪어 온 것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내의 짧은 미디어교육 역사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은 미디어교육의 다양성 제고에 분명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령 마련 및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중요도 제고 등 정책적 도입이 미진한 것은 일원화된 창구를 통한 체계적인 활동이나 네트워크의 힘이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미디어교육 구심체가 있었다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육의 비중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학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뉴스 내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활동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각종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들에서 뉴스 관련 내용에 대한 운영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미디어교육에 동참하고 있는 교·강사들의 네트워크가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0개의 교사연구회 중 800개 교사연구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또한 2015년 현재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공모전 등을 통해 관심 있는 교사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뉴스 리터러시 유관 교과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해 적절한 교수 방식을 제공하거나 이들이 개발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포상하는 장을 마련해 네트워크 구축의 시작점으로 삼는 한편 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유관 교과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에서의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높일 수 있는 홍보 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다. 학교는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교과 진도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교과에서 해당 영역을 교수하는 기간이 예상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에서 대중매체 영역에 관한 수업

이 진행되는 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해당 교과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발송하는 등 세분화된 홍보 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이 사회에서의 교육에 비해 효과 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부모와의 유대 및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디어 소비 과정은 다분히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다른 교과교육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 또한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의 참여와 지지가 필수라고 하겠다. 요컨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성패에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학교가 중심이 되어 긴밀한 협조 및 연대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부모에 대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학부모 뉴스 리터러시 교양 강좌를 학교에서 개설함으로써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고 학교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뉴스레터나 SNS를 활용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 나가고, 학부모 회의, 학부모 특강,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뉴스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단체나 기관과 학교 사이의 연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사실 개별 학교의 여건으로 인해 자체적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역량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지역의 사회봉사기관, 청소년 문화 진흥 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등에서 진행되는 봉사학습, 학생 상담 등의 활동에 연계된 활동을 기획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유관 자원이 학교에서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대학, 지역 내 유명 언론인이나 인사를 초청해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유효한 시도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과 우수한 전문능력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학교가 건강한 사회의 실현과 시민성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활동에 역으로 학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중·고등학생들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한 부분인 뉴미디어를 활용한 뉴스 이용에 관한 지식을 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미시적 차원에서 교육목표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는 기획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뉴스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것은 학생, 학교, 가정, 사회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2)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적인 진전과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미디어교육이 보이던 파편적인 운동성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거시적인 차원의 선결 과제라면, 미시적으로 선급한 사항은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에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학교와 유관 협업기관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① 교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부 설치

먼저 학교 내에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부의 추진을 제안한다. 아직까지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명칭은 미디어교육부로 해도 좋을 것이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교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뉴스 내지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규 교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창의적 체험 활동부’를 통합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부’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과별 뉴스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교과 간 연계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입안하며,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것이든 미디어교육을 위한 것이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공간, 시간, 시설, 재정이기 때문이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공간이나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반, 신문반 등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학교 내 숨겨진 공간을 활용하는 등 부서 설치 과정에서부터 미디어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더불어 살아가기의 모습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²⁴⁾

교내에서 미디어 내지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

24) 우리나라 학교 건물은 비용문제로 단순한 직육면체 건물에 복도와 교실이 획일적으로 배치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구조다. 이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주장해 반감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기존 교사 소모임의 관심 주제를 심층화 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들의 모임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임에는 다양한 교과와 교사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추진되는 문·이과 통합 수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 기능하다. 예를 들어,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적 교양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은 최근 신문방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필요성과 수요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② 협업 기관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학교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협업 교육 기관의 운영에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담당 부서나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공 기관은 순환근무제나 담당자의 이직 등으로 추진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몇 년간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미디어교육사 양성 과정은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매년 다른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었다. 이는 다수의 학교에서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노하우가 축적될 틈도 없이 매년 지원 대학이 변경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 매년 유관 학과 교수들의 일정을 새로 짜야 하고, 담당자가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대학 담당자 간의 협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연속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에 전담 근무자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연도의 개별 근무자가 가진 역량과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행정 및 운영 효과가 달라지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견 책임자의 부서 이동은 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록 기존 교육 목적과 방향이 성문화되었다고 해도, 기획자와 실행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가

쌓이면 담당 부서에서 그 프로그램을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견 책임자들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변화는 운영에도 혼란을 준다.

미디어교육 유관 공공 기관들이 미디어교육 전문 기관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생애주기 단계별 교육을 담당할 전담팀이 구성돼 있지 않다. 여타 민간기관의 경우, 이를테면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던 교육을 재정적인 이유, 혹은 운영상의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변경 내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고등학생 전문 전담팀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책 시류에 따라 주력 대상 세대 및 집단이 변화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한정된 인원이 너무 넓은 스펙트럼의 교육 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디어교육 자체에 대한 지원 조항이 모호하고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금이 파편적이고 중복적으로 지원되어 온 국내 상황에서, 이상의 논의가 현실화되려면 무엇보다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를 조정, 실행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구심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미디어교육진흥원(안)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미디어교육진흥원(안) 설립

(1)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한 마스터 센터의 필요성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 국내 미디어교육 활동의 비체계성을 극복할 방안으로 학계 혹은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중심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성을 주장하되 그것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근거가 되어 줄 법령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센터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안 및 정책 전문 연구와 교육 실행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담론화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해 그 안에 학교 미디어 교육의 법적 지원이 어떠한 긍정적인 사회·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위하여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미디어교육 유관 기관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센터를 설립하고 각 센터 간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협업 기관들 중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가장 근접한 프로그램인 NIE 교육을 담당해 온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²⁵⁾ 향후 미디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완료되고 미디어교육진흥원의 설립이 가능한 시점이 되었을 때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중심으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일 것이기 때문이다.

(2) 조직 구성

① 생애주기별 전담팀 운영

센터 내 조직을 구성하는 데 무엇보다 교육부의 생애주기 단계별 조직 구

25) 재단은 자체 전략 목표 중 하나였던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2015년 현재 ‘국민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으로 수정한 상태이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미디어교육팀에서도 그동안 추진해 오던 NIE 사업을 모두 뉴스 리터러시 교육 사업으로 변경 및 확장하고 있다.

성에 맞춰 병렬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관할 팀 간의 협업만큼이나 해당 생애주기 단계에 대한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유관 기관은 기관 내 역할에 따라 조직이 구성돼 있다. 외부 협력 담당자 한두 사람이 교육부의 유·아동 교육, 초·중·고등 교육 담당 장학관들을 모두 상대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② 교과 내 교육과 비교과교육 담당 전담팀 운영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 내에서의 미디어교육이라고 해도 교과 과목 내에서의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교육은 그 목표와 방식, 그리고 참여 형태가 모두 다르다. 이에 교과 과목과 비교과 과목에 대한 업무는 실무 차원에서 상호 구분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③ 종합적 DB 시스템 혹은 아카이브 전담팀 운영

현재 미디어교육 유관기관들이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교육 우수 사례를 취합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장 교·강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디어교육진흥원(안)과 같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아카이브를 운영할 때 미디어교육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뉴스, 유관 자료 및 교재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문제 발생 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현재 각 교과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교과 교사 모임의 성과를 종합해 아카이브에 업로드할 수도 있고, 현장 교사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교육 연구회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물론 미디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지원과 거리가 먼 자생적 교사 모임

이 상당수 있다. 이 조직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로거나 관련 카페 운영자들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들을 매개로 미디어 유관 교과 교사 모임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하면 DB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④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팀 운영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잠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합의를 공식적인 담론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보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뉴스 리터러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뉴스 리터러시의 제고가 우리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전담팀의 구성은 필수다. 단, 이윤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기업의 홍보 부서와는 달라야 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정확히 인지하는 담당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홍보 전담팀에서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 언론사 및 지역거점 뉴스 리터러시 교육 센터 등 유관 시설과 프로그램의 내용, 사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브로슈어를 상시 비치 및 보급한다거나, 이를 활용하여 체험, 봉사 활동 등 학생들의 실천적 활동을 쉽게 전개할 수 있게 될 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차원의 홍보 활동들을 계속 개발할 필요도 있겠다.

⑤ 선진적 교육 행정 기법의 활용

현행 미디어교육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앞 절의 내용을 고려할 때, 미디어 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OECD가 합의한 선진적 행정 기법은 주의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다.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전략적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행정, 모니터링 실시, 그리고 시나리오 기법의 활용이 그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다양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갖춘 체계적인 연구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단계 중 특히 의사 결정을 중시해 온 관행으로 인해 정책 집행이나 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이 곧 완료라는 인식 때문이다. 정책이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과 개입이 더 필요한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 과정이 미흡하면 취지가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왜곡되고 최초의 좋은 아이디어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 본 절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환경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는 국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미시적 차원의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1) 교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²⁶⁾

(1) 정규 교과목 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 적극 확대

학교교육의 대부분은 교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교육과정의 교과

26) 학교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뉴스에 대한 교양교육의 수요가 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들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센터나 문화센터에서 미디어 관련 과정을 개설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강사를 파견해 ‘뉴스 바로보기’, ‘뉴스 올바르게 이해하기’와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면 학교 밖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방송학/언론정보학과 지원을 원하는 고교생들을 위한 심층적 뉴스 리터러시 교육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거점학교’를 활용해 여러 고등학교의 신문방송학/언론정보학과 진학 희망자들을 모아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실재를 접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과 내용 안에서의 유관 영역 확대에 대해 미리 소극적 태도를 취하며 비교과 과목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차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확대하려면 먼저 교육과정의 시수 재량을 갖는 학교 측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각 과목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별로 균형 있는 학교 교육과정 시수 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다. 현재와 같이 특정 과목에 편중된 교육과정 구성으로는 교과교육을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2015년에 공식된 새로운 교육 과정에 직접적으로 미디어교육을 포함시키지는 못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과 영역 및 교재 개발에서 일정량의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수업 수준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결국 교사들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장의 교사들이 꼽는 뉴스 및 미디어교육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해 요인들로는 교과 학습 진도에 대한 스트레스와 교과 외의 과중한 잡무가 있다. 진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과 내용의 경감은 학교 수준을 넘어 국가 교육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교사의 잡무와 관련된 부분은 개별 학교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 학교와 관련된 정책에서 빠짐없이 언급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내 교사들은 수업 외의 잡무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부장교사와 담임교사의 경우 특히 잡무량이 많은 편이다. 이에 담임교사의 수업 시수를 경감하며, 교과 교사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또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행정 업무 일부를 협업 기관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세심한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재를 개발할 때 개발

자보다는 그 교재를 활용할 교사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평가를 교사가 동시에 해
야 하는 조건에서, 잡무 경감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2) 교과목별 뉴스 리터러시 관련 내용 확대 방안

① 국어과를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신문 기사 혹은 방송 뉴스의 스크립트는 국어과 의사소통 영역을 통해 인
성교육의 한 덕목으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
다. 또한 인터넷 글쓰기 중 뉴스기사에 댓글 달기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배려와 존중을 교육할 수 있다. 예절과 배려, 존중은 경청하는 자세로부
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뉴스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 교육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또한 뉴스는 인생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학생
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텍
스트다. 뉴스를 통해 다른 삶에 대한 공감,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어떤 삶
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물론 국어과의 일반
적 목표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과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교과서 개발 및 교육 자료의 선정과 활용에서 시의적 흐름
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뉴스 기사를 제재로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제한점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성 및 현실과의 관련성이 매
우 높은 특징으로 인해 ‘살아 있는 교과서’라 불리는 뉴스가 기존 교과서
내용의 경직성과 비교적 낮은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신중하게 선별해서 활용한다면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사회과를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과목은 사회과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한 태도를 학습하는 사회과의 교과과정에서 미디어 및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중요성과 그 효력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사회과 교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시민성 함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뉴스’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논의 또한 다양한 사회 현상들 중 일부로만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인 모범 수업 사례를 발굴해 담당 교사들이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 한정된 시간 동안 질적으로 우수한 수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교사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수업 사례를 제시한다면 분명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부 학습 내용에 대한 과도한 학습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뉴스 내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내용에 안배하는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선택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요 교과목의 정상 수업 중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적 수업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③ 미진입 교과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실과 및 기술·가정은 모든 교과목들 중 인간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다룬다. 영어²⁷⁾ 및 외국어 과목은 문화 교육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 과목이다. 미술 교육에서는 심미성을 탐구할 뿐 아니라 디자

인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시각에 관한 지식을 공유한다. 기술이나 정보 교과는 디지털 기기의 원리 습득이 필수다. 이처럼 국어과나 사회과 외에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교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간 간과하고 있었던 미진입 교과목에 대한 적극적인 진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④ 교과 간 융합 수업 추구를 넘어서는 독립 교과로 개설

정규 교과목 내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유관 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뉴스’, 혹은 ‘뉴스 리터러시’라는 독립적 교과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제안이 비현실적이었으나 교과 간 융합·통합 수업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교육 정책 방향에서는 불가능하지는 않다.²⁸⁾

물론 뉴스 리터러시 교육만을 위한 독립적인 교과를 마련한다고 하거나 뉴스를 구분하여 교과과정 내에서 주요 과정 혹은 영역으로 제시한다고 했을 때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른 콘텐츠 영역의 리터러시 제고와 비견될 여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 교육에서 역할을 다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뉴스라는 콘텐츠가 지니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뉴스 교양 교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끔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독립 교과로서 교육과정 내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27) 2013년에는 영자 신문을 이용한 자유학기 선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공시된 바 있다.

28) 독립 교과 설치 및 운영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해외 뉴스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3) 비교과 활동을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지원 방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창의적 체험 활동은 뉴스 리터러시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교육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교원 연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항의 인력 지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둘째, 재미있고 효과적인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오늘날 중·고등학생은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²⁹⁾에 민감한 세대이며,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와 접하면서 삶을 이어온 세대이다. 학교 공부라도 따분하고 지루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업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며, 설사 주요교과목이라 해도 수업방식에 대한 고민이 없는 교사들은 거부당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교육 대상의 특성을 간과한 채 평면적인 신문 스크랩이나 작위적인 토론의 유도로 유지되는 수업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수법과 교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며, 실행 전 평가 수업을 통한 사전 검증이 필수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 기획 단계부터 교재 개발, 지도서 개발 등 중간 단계에서도 실행 전 평가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사 감수진, 청소년 모니터링 위원회 등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도입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탈학교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에 가기 싫어하던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생활에 활력이 된

29)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과 에능을 뜻하는 ‘entertainment’의 합성어.

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도입되는 것을 넘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는 결국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그 내용의 특성상 서로 협동하면서 과제를 하거나 학습 그룹의 배려와 단결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타 교육 활동에서도 협동학습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협동학습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³⁰⁾

셋째,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연구에 근거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 및 보완을 지속해 나가며,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폐지의 근거를 찾는 감시적 평가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의 건설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사들 간 수업 개방, 동영상 공유 등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게끔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교재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시도할 만한 방법이다.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또래집단에 관여하고 집중하는 정도가 어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선후배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없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느낄 만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주요 정보와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분명

30) 중학생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얼마나 중시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어떠한 의미인지 밝힌 연구 결과들(예: 김은미 외, 2009)을 근거로, 청소년들의 소통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협동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이다. 이에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해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의 관여 수준을 높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수업에 즐겁게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인력 양성 방안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일부 교사들은 관련 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거나 간헐적으로 마련되는 연수 과정을 수강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배우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설사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위해 개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도 재교육 기회가 많지 않을 뿐더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뉴스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안을하고자 한다.

(1) 창의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연수는 교사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함양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 및 전문 기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수 기회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교사 연수는 미디어교육을 직접 담당할 사람들에게 교육과정 내용, 교재 개발 취지와 교육방법, 평가방법들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연수를 통해 교육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결국 질적으로 우수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때 만족스러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질적으로 우수한 연수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진의 섭외가 필수다. 강사진 풀을 구성할 때 명확한 섭외 기준과 목표를 수립하여 이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야 한다. 무엇보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와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지식과 교육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공 분야의 적합성만큼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교사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지녔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뉴스 리터러시, 좀 더 넓게는 미디어교육 자체를 전공한 인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미디어 및 저널리즘 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자들을 골고루 강사진으로 섭외하되, 두 영역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또한 포함시키는 것이 연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과 조율을 위해 중요하리라고 본다.

대부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해결하고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한 협동 과정 개설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실 뉴스 리터러시를 제대로 교육하려면 미디어·저널리즘과 교육학 분야 둘 다를 전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 관심에서 이 두 분야를 선택해 복수 전공한 학생들을 찾아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협동 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편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수자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당장 협동과정 개설이 어렵다면, 현재 많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언론대학원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특수 대학원으로 설치된 언론대학원은 초기에 비해 학생들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전직·현직 언론인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초창기에 비해 언론인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하여 입학이 가능하도록 알선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는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미디어교육센터와 같은 지원 기관에서 각 대학의 언론대학원과 강의 교료를 통해서 연수 과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교사들에게 이득이 되는 교사 연수가 되게 하려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서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연수와정에 포함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온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해 원격 연수 인가를 받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일차적으로 각 학교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연수를 강화하려면 약간의 강제성이 있더라도 연수를 받는 교사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 미디어교육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교권 확립 또한 필요하다. 학교 정교사들의 교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문 강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해도 시간강사에 불과한 미디어교육 강사들에게 교권이란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강사들의 급여 및 근무 시간, 고용 안정성(다음 학기 수업 보장 등)과 같은 기본적 처우를 개선하여 강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여유 있는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교·강사의 교권 확립은 학생의 인성에 대한 평가권을 부여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평가를 학생부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의 교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미디어교육은 생애주기 단계별로 특화돼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강사들 또한 특정 연령대의 교육 대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할 적기라 할 수 있는 중등교육과정 학생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 교육 내용에 일반 청소년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강사진을 초청해 특강을 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실습 및 현장 수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경력 강사가 수업하는 모습을 청강할 수 있는 기회가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자문을 담당했던 중·고교 교사들에 의하면, 교육학 설문조사나 교육 통계에서 단순하게 측정할 수 없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만의 고유한 특성이 분명히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 또한 발달과정상 뚜렷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같은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년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일진데, 현재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은 동일한 사람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생애주기형 모델에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 미디어교육 또한 교육 대상의 발달 시기에 맞게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특성을 간과한 채 단지 전직 언론인이었다거나 미디어 관련 전공자라는 이유로 강의에 쉽게 투입되는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

4.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논쟁점들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학교 내의 전반적인 미디어교육 활동 및 지원 체계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행 미디어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향에 부합하면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어야 할 교육 환경, 그리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국내 미디어교육의 양적 팽창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비체계성과 파편화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이며, 이러한 고질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각 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교육진흥원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과 교·강사 양성에서 학생들의 발달 시기별 특성이 반영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미디어교육에서 변방이라는 위치에 안주하지 말고, 교과 내 교육과 비교과 활동 양측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1. 논문, 단행본, 보고서

- 강내원 외(2014). 『저널리즘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별책 18호.
-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1). 『글로벌 인재포럼 2011』. 교육과학기술부.
- 구정화(2012). 초등학생의 NIE 학습유형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련성. 『사회과교육』, 51권 4호, 93~108.
- 김경희 · 엄한진 · 윤태일(2009). 신문활용교육(NIE)을 통한 다문화 사회교육의 가능성과 조건: 강원지역 결혼이주여성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12호, 5~45.
- 김광재(2014). 세계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해외미디어동향』, 2014년 4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사승 외(2010). 『뉴스 수용자의 진화』.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양은(2005). 미디어교육의 개념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28권, 7~110.
- 김양은(2008). 초등학생용 미디어교육 교과서 개발 사례. 한국언론학회 · 한국방송학회 2008 봄철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 김양은(2009). 디지털 시대 한국의 미디어교육 연구. 『미디어교육연구』, 통권 1호, 59~99.
- 김양은 · 안정임(2004). 미디어교육의 개념 및 학교 미디어교육의 방향.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 컨퍼런스, 2004년 1차, 1~17.
- 김연동(2005). 국어시간, 미디어교육을 위한 새로운 풍경들. 『국어교육연구』, 37권, 1~66.
- 김우미(2009). 시민성의 전제로서 의사소통 합리성. 『시민교육연구』, 41권 2호, 47~71.
- 김은규(2012). 지역사회 초 · 중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미디어교육 실천방안 연

- 구.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200~239.
- 김은미 · 송요셉 · 오상화 · 나은영 · 정하소 · 박소라(2009). 다매체 환경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방식에 대한 FGI 연구. 『언론정보연구』, 46권 2호, 33~65.
- 나경애 · 이상식(2010). 청소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349~373.
- 마크로밀엠브레인(2014). 『트렌드 모니터 2015』. 지식노마드.
- 문혜성(2003).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방안과 교육기관 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미디어교육 제1차 국내 심포지엄.
- 문혜성(2004). 『미디어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박동숙 · 이경숙 · 정수영(2010). 『글로벌 읽기문화프로젝트: 신문읽기문화 진흥 실태조사 및 읽기문화 진흥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한철(2009). 미디어교육 교재 집필과정 탐색을 통한 바람직한 교재집필의 방향모색. 한국언론학회 2009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설규주 · 김명정 · 이봉민(2011). NIE 실태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정치정보연구』, 14권 1호, 71~94.
- 성은모 · 임정훈 · 김세리(2010). 초등학교 IPTV 활용수업에서 시각화 경향성이 교과태도, 학습몰입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3권 3호, 293~320.
- 손영준(2004). 미디어 이용이 보수 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40~266.
- 송영필(2005). 국어과 수업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국어교육연구』, 37권, 173~200.
- 심미선 · 송현주 · 김유정(2015). 『청년층의 뉴스 콘텐츠 이용패턴과 전망』. 한국언론진흥재단.
- 안정숙(2005). 신문활용 교육(NIE)을 적용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년도 제38차 추계학술대회, 283~283.
- 안정임 · 이창현(2003). 언론학 교육의 변화와 미디어교육.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 위원회 제1차 국내 심포지엄
- 안정임 · 전경란(1999). 『미디어교육의 이해』. 한나래.
- 안정임 · 전경란(2006). 『기존 미디어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유목화』. 방송위원회.
- 이미나(2011). 청소년 수용자들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효과 연구: 파당적 뉴스에 대한 프레임링과 객관보도규범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3권 1호, 111~155.
- 이성균 · 윤영두(2010).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권 1호, 468~476.
- 이성일 · 윤혜진(2009). 생활중심 신문활용 교육(NIE)이 정신지체학생의 어휘력에 미치

- 는 효과. 『한국교육논단』, 8권 3호, 83~100.
- 이정훈·이두황(2011). 『디지털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 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정훈·이두황(2013). 뉴스 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의 뉴스콘텐츠 이용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대 뉴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8호, 180~190.
- 이화행·이정기(2011). 청소년기 NIE(Newspaper in Education) 경험여부에 따른 대 학생의 신문 이용동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1권 4호, 456~488.
- 장주영(2015). 『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표현의 자유 판결』. 육법사.
- 전경란(2007). 한국 미디어교육 교재 발간 실태 분석. 한국미디어교육학회 제11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 미디어교육 교재 발간 현황과 개발 사례 발표회.
- 전경란(2009). 미디어교육 학술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미디어교육연구』, 1호, 9~48.
- 정문성·구정화·설규주·박영석·이동원·김학희(2008). 『사회과 교수·학습법(개정판)』. 교육과학사.
- 정미정·한찬희(2013). 학교 미디어교육 도입 평가와 활성화 방안연구: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미디어교육 교사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교육』, 3권 1호, 39~71.
- 정현선(2004). 한국의 교육과정과 미디어교육.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 컨퍼런스.
- 정현선 외(2009). 한국 미디어교육의 역사와 정책, 그리고 실천. 『미디어교육연구』, 1호, 103~133.
- 정현선·옥현진(2010). 『NIE 교육과정 체계화를 위한 「신문과 생활」(가제) 과목의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조영남(2012).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 변천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5권 3호, 235~256.
- 전선영(2014).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PBL 기반의 미디어교육 방안』.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민재·김성해·박진우·최용준(2013).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2014). 『201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학회(2004). 『학교 미디어교육 도입방안 연구.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연구 보고서.
- 홍성일(2014).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뉴스』. 돌베개.
- 황유선·박진우·김위근(2011). 『NIE와 교육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 Abrami, P. C., Bernard, R. M., Borokhovski, E., Wade, A., Surkes, M. A., Tamim, R., & Zhang, D. (2008). Instructional interventions affecting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dispositions: A stage 1 meta-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8(4), 1102~1134.
- Ashley, S., Maksl, A., & Craft, S. (2013). Developing a news media literacy scal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68(1), 7~21.
- Ashley, S., Poepsel, M., & Willis, E. (2010). Media literacy and news credibility: Does knowledge of media ownership increase skepticism in news consumers?. *The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2(1), 37~46.
- Aufderheide, P. (1993). *Media Literacy: A report of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Aspen, CO.: Aspen Institute.
- Aufderheide, P., & Firestone C. (1993). *Media literacy: A report of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Aspen, CO.: Aspen Institute.
- Bawden, D. (2001). Information and digital literacies: A review of concepts. *Journal of Documentation*, 57(2), 218~259.
- Blood, R. (2002). *The weblog handbook: Practical advice on creating and maintaining your blog*. Basic Books.
- Bruce, S. (2011) Information literacy programs and research: An international review.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ALJ)*, 49(3), 209~218.
- Buckingham, D. (2007). Digital media literacies: Rethinking media education in the age of the Internet.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2(1), 43~55.
- Christ, W. G., & Potter, W.J. (1998). Media literacy: Symposium. *Journal of Communication*, 48(1), 5~15.
- Craft, S., Maksl, A. M., & Ashley, S. D. (2013). Measuring news media literacy: How knowledge and motivations combine to create news-literate teens. Available at <https://mospace.umsystem.edu/xmlui/bitstream/handle/10355/34713/MeasuringNewsMediaLiteracy.pdf?sequence=1>
- Curran, J. (2011). *Media and democracy*. 이봉현(역) (2014). 『미디어와 민주주의』. 한울.
- Dilevko, J. (1998). Bibliographic instruction and mass news literacy: A theoretical background. *The Library Quarterly*, 68(4), 431~474.
- Dyson, R. A. (1998). Media literacy who needs it and what does it mea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60(2), 155~166.

- English, E. (1944). A study of the readability of four newspaper headline types. *Journalism Quarterly*, 21, 217~229.
- Eshet-Alkalai, Y. (2004). Digital literacy: A conceptual framework for survival skills in the digital era. *Journal of Educational Multimedia and Hypermedia*, 13(1), 93~107.
- Fleming, J. (2012). What do facts have to do with it? A case study of news literacy at Stony Brook Univers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Fleming, J. (2014). Media literacy, news literacy, or news appreciation? A case study of the news literacy program at Stony Brook Universit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69(2), 146~165.
- Gay, G. (2002). Preparing for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3(2), 106~116.
- Hobbs, R. (2010a). News literacy: What works and what doesn't.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EJMC) Annual Conference*, at Denver, Colorado, August 7, 2010.
- Hobbs, R. (2010b).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 Johnson, C. (2012). *The information diet*. California: O'Reilly Media Inc.
- Klibanoff, C. E. (2012). *News literacy, informed citizens and consumer-driven media: The future landscape of American journalism*. San Bernardino, CA: Lulu.
- Klurfeld, J. & Schneider, H. (2014). *News Literacy: Teaching the Internet generation to make reliable information choices*. A publication of the Center for Effective Public Management at Brookings, June 2014.
- Ksiazek, T. B., Malthouse, E. C., & Webster, J. G. (2010). News-seekers and avoiders: Exploring patterns of total news consumption across media and the relationship to civic particip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4, 551~568.
- Lasswell, H. (194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L. Bryson (Ed.), *Communication of ideas* (pp. 203~243). New York: Institute for Religious and Social Studies.
- Lewis, A. (2007). *Freedom for the thought that we hate*. 박지웅 · 이지은(역) (2010).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간장출판사.
- Lewis, J., & Jhally, S. (1998). The struggle over media literacy. *Journal of*

- communication*, 48(1), 109~120.
- Lickona, T. (1991).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Bantam Books.
- Livingstone, S., van Couvering, E. & Thumim, N. (2008). Converging traditions of research on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ies: Disciplinary, cri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J. Coiro, M. Knobel, C. Lankshear, & D. J. Leu (Eds.). *Handbook of Research on New Literacies* (pp. 103~132). Routledge, New York, USA.
- Loth, R. (2012). What's black and white and retweeted all over? Teaching news literacy in the digital age. *Politics and Public Policy Discussion Paper*, Joan Shorenstein Center on the Press, Available at http://shorensteincenter.org/wp-content/uploads/2012/03/d71_loth.pdf
- Maksl, A., Ashley, S., & Craft, S. (2015). Measuring news media literacy. *The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6(3), 29~45.
- Malik, M., Cortesi, S., & Gasser, U. (2013). *The challenges of defining 'news literacy'*.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342313
- Mayfield, A. (2006). *What is social media?* Spannerworks, Available at http://www.spannerworks.com/fileadmin/uploads/eBooks/What_is_Social_Media.pdf
- McChesney, R. (1999). The new global media: It's a small world of big conglomerates. *NATTON-NEW YORK*, 269, 11~12.
- McChesney, R. (2004). *The problem of the media: US communication polit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YU Press.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 176~187.
- McManus, J. H. (2012). *Detecting bull: How to identify bias and junk journalism in print, broadcast and on the wild web* (2nd ed.). Sunnyvale, CA: The Unvarnished Press.
- McQuail, D. (1997). *Audience analysis*. Sage publications.
- Mihailidis, P. (2008). Beyond cynicism: Media education and civic learning outcomes in the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and Media*, 1(3), 19~31.
- Mihailidis, P. (2011). New civic voices and the emerging media literacy landscape.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3(1), 4~5.

- Mihailidis, P. (Ed.). (2012). *News literacy: Global perspectives for the newsroom and the classroom*. Peter Lang.
- Miller, A. (2010). Can a democracy survive without reliable information? *Youth Media Reporter*, 4(3), Available at http://www.youthmediareporter.org/2010/06/can_a_democracy_survive_without.html
- Newhagen, J. E., & Rafaeli, S. (1996). Why communication researchers should study the Internet: A dialog. *Journal of Communication*, 46, 4~13.
- Newton, R. (1985). Newspaper in education: New readers for newspap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Western Social Science Association*, Ft. Worth, Texas.
- Panagiotou, N., & S. Theodosiadou. (2014). *News Literacy: Learning about the world*. Available at <http://users.auth.gr/npanagiotou/articles/News%20Literacy%20Learning%20About%20the%20World.pdf>
- Patterson, P., & Wilkins, L. (2013). *Media ethics: Issues and Cases* (8th ed.). McGraw-Hill.
- Potter, W. J. (2004a) *Theory of media literacy: A cognitive approach*. Sage.
- Potter, W. J. (2004b). Argument for the need for a cognitive theory of media lite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2), 266~272.
- Potter, W. J. (2010). The state of media literac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4(4), 675~696.
- Potter, W. J. (2012). *Media Literacy* (6th ed.). Thousand Oaks, CA: Sage.
- Potter, W. J. (2013). *Media literacy* (7th ed.). Thousand Oaks, CA: Sage.
- Powers, E. (2010). *Teaching news literacy in the age of news media: Why secondary school students should be taught to judge the credibility of the news they consume*. Master's Thesis, Washington University.
- Powers, E. (2014). *How students access, filter and evaluate digital news: Choices that shape what they consume and the implications for news literacy educ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Prior, M. (2007). *Post-broadcast democracy: How media choice increases inequality in political involvement and polarizes ele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ece, P. & Blackall, D. R. (2007). Making news today: Literacy for citizenship. *Literacy Learning: The Middle Years*, 15 (3), 46~54.
- Schneider, H. (2008). *News literacy outcomes*. Media Giraffe Project.

- Schwarz, P. F. (2011). *Media literacy and the news*. Windesheim School of Media in Zwolle, the Netherlands.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White Plains, N.Y.: Longman.
- Silverblatt, A. (2001). *Media literacy: Keys to interpreting media messages*. ABC-CLIO.
- Sunstein, C. R. (2007). *Republic.com 2.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e Missouri Group (2005). *News reporting and writing* (8th Ed.). Boston, MA: Bedford/St. Martin's.
- Thoman, E. & Jolls, T. (2008). *Literacy for the 21st century: An overview and orientation guide to media literacy education*. (2nd ed.). Center for Media Literacy. Available at http://www.medialit.org/pdf/mlk/01a_mlkorientation_rev2.pdf
- Thoman, E., & Jolls, T. (2004). Media literacy? A national priority for a changing world.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1), 18~29.
- Toepfl, F. (2013). Four facets of critical news literacy in a non-democratic regime: How young Russians navigate their new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9(1), 68~82.
- Tyner, K. (2014). *Literacy in a digital world: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age of information*. Routledge.
- Waldman, S. (2009). *Informing communities: Sustaining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The report of the Knight Commission on the Information Needs of Communities in Democracy. The Aspen Institute. Available at http://www.knightcomm.org/wp-content/uploads/2010/02/Informing_Communities_Sustaining_Democracy_in_the_Digital_Age.pdf
- Wright, W. R. (1960). Functional analysis and mass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24, 605~620.

2. 온라인 자료

- 창의·인성 교육넷(2011). www.crezone.net.
- NCIC(2015).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자료.
<http://ncic.kice.re.kr/mobile/revise/board/view.do>.
- American Press Institute(2013), <Introductory News Literacy>
<https://www.americanpress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3/10/Introductory-News-Literacy-curriculum.pdf>

- James L. Knight Foundation
<http://www.knightfoundation.org/about/>
- McCormick Foundation & Journalism Education Association (2013). LESSON PLAN: UNDERSTANDING NEWS LITERACY.
<http://jea.org/blog/2013/07/24/lesson-plan-understanding-news-literacy/>
- McCormick Foundation & 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News Literacy: Educating better citizens and student journalists.
<http://slideplayer.com/slide/5820679/>
- Mihailidis's News Literacy and adjacent concept areas
<http://engagementgamelab.org/blog/2014/09/seeking-coherence-reflect-ions-on-the-national-news-literacy-summit/>
- Nieman Foundation
<http://niemanreports.org/>
- Poynter Institute
<https://www.newsu.org/news-media-literacy>
- Reliable Sources Program
<http://www.schooljournalism.org/wp-content/uploads/2013/09/Reliable-Sources-by-Sue-Laue.pdf>
- Robert McCormick Foundation의 Why News Matter(WNM)
<http://www.whynewsmatters.org/news-matters/news-literacy-for-educators-parents/>
- Syracuse University
https://library.syr.edu/services/getting_help/instruction/about/index.php
- The Center for News Literacy at Stony Brook University
<http://www.centerfornewsliteracy.org/>
- The News Literacy Project (NLP)
<http://www.thenewsliteracyproject.org/>

